

中央語文學會

제45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와 인문학

- ◆ 일시: 2021년 8월 24일 (화)
- ◆ 진행: 실시간 화상 회의 및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 ◆ 주최: 중앙어문학회 ·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중앙어문학회 제45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와 인문학

◎ 전체 일정

12:30~13:00 실시간 화상 회의실 입장

13:00~13:10 개회사 및 축사

13:10~15:10 기획주제 발표

15:10~15:30 폐회사

◎ 일 시 2021년 8월 24일 (화) 12:30~15:30

◎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실

◎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대회 진행 방법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기획 주제 발표

사회: 고혜원(중앙대)

13:10~13:40 코로나19 신어와 언어 공동체

▶발표 정한대로 (가천대) ▷토론 정성미 (강원대)

13:40~14:10 고전문학에 나타난 역병을 통해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발표 정영문 (숭실대) ▷토론 박종훈 (조선대)

14:10~14:40 코로나19의 양면, 악마적 형상과 천사의 끔찍한 메시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발표 김옥선 (경성대) ▷토론 김주현 (인제대)

14:40~15:10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운영 원리 고찰

▶발표 박지순 (연세대) ▷토론 이연정 (서원대)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에 대하여

▶발표 도재학 (경기대) ▷토론 김현주 (공주교대)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발표 박미은 (대진대) ▷토론 김민국 (경상대)

◎ 고전문학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발표 김지현 (광운대) ▷토론 고승관 (제주대)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해석한 황진이 문학과 캐릭터 연구

▶발표 김지은 (중앙대) ▷토론 이채영 (동국대)

◎ 현대문학

정미경 소설 연구를 위한 초석

▶발표 박수현 (공주대) ▷토론 김성연 (세명대)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

▶발표 양소영 (덕성여대) ▷토론 허운 (서울대)

◎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발표 신승윤 (상명대) ▷토론 손진희 (강원대)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정 발화 비교

-기쁨 발화, 음성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발표 오세진 (한양대) ▷토론 김지혜 (성균관대)

▣ 기획주제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와 인문학

코로나19 신어와 언어 공동체

고전문학에 나타난 역병을 통해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의 양면, 악마적 형상과 천사의 끔찍한 메시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운영 원리 고찰

코로나19 신어와 언어 공동체

정한대로(가천대학교)

1. 머리말

인간의 언어활동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는 언제, 누가 만든 것일까? 오래 전부터 쓰여 온 단어라면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단어는 누군가의 필요, 즉 특정 개념이나 대상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명명(naming) 동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언제 단어를 명명하고자 할까? 새롭게 등장한 목표 개념이나 대상을 다루고자 할 때, 특히 화자를 포함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단어의 탄생은 ‘화자’,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 ‘명명 동기’, ‘언어 공동체’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새롭게 만들어져 쓰이는 단어, 즉 신어(neologism)는 형성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다. 실제 세계에 낯선 개념이나 대상이 출현할 때 최초 화자의 명명 동기가 촉발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친구, 직장 동료,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어는 사용자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밀접하다. 이에 신어는 공동체의 공시적 모습을 탐색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1) ‘인터넷/휴대폰’ 관련 신어 (정한대로 2020: 106-107)

	1994	2004	2014
가	인터넷	강쥐, 넷포터, 방법(하다), 아이디 스타, 악플러, 위키 사전, 일인 미디어, 퍼머, 퍼뮤니케이션, 펌킨족, 펌플족; 가나다라송, 싸가지송, 올챙이송, 원츄송, 인터넷송, 허무송; 도토리, 미니룸, 미니홈피, 사이, 사이질, 사이홀릭	닉변, 닥눈삼, 베댓, 블로거브리티, 어그로꾼, 약스압, 후방 주의, 훈녀생정; 고대짤, 여친짤, 인생짤, 합성짤, 희귀짤; 만렙 지역, 최하옵; 냥스타그램, 멕스타그램, 셀스타그램, 소셜력, 스눅, 클릭 농장, 트윅, 페메
나	휴대폰	당뇨폰, 라이팅폰, 박스폰, 스트레스폰, 쌍둥이폰, 지피에스(GPS)폰; 모티켓, 몰폰카, 셔터찬스, 이청첩장	갠톡, 읽씹, 톡디

(1)은 1994년, 2004년, 2014년에 국립국어원(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신어 목록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1994년 신어로 ‘인터넷(인터넷)’과 ‘휴대폰’이 눈길을 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넷’과 ‘휴대폰’이 30여 년 전 당시에는 언중들에게 매우 낯선 신어의 지위에 있었다. 주목할 사항은 그 후로 10년이 지난 2004년 신어 조사 결과, ‘인터넷’과 ‘휴대폰’ 두 단어가 신어 유형의 한 범주를 이루게 된 사실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우리 사회

에 일상화되면서 다수의 관련 신어가 출현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화(예. 악플러, 위키 사전, 올챙이송, 미니홈피 등)가 형성되었다. 이후, 다시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꾸준히 관련 신어가 확인되는데, 2004년과는 또 다른 문화적 양상(닥눈삼, 어그로꾼, 여친짤, 냅스타그램, 페메, 갠톡, 읽씹 등)이 관찰된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휴대폰 간 경계를 넘나들며 SNS와 관련한 신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11월, ‘코로나19’의 출현은 (1)의 ‘인터넷, 휴대폰’ 이상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불러 왔다. 2020년 초부터 급격하게 출현하기 시작한 (2)의 신어는 여러 측면에서 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유형은 (1)의 예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2) ‘코로나19’ 신어

- 가. 금스크, 마코인, 마스크 메이크업, 마스크 화장법
- 나. 온라인 개학, 사이버 술자리, 랜선 음악회, 비대면 강의, 언택트 경제
- 다. 생활 치료 센터, 생활 방역 수칙, 집중 감염원, 혼합 검사법
- 라. 재난 기본 소득,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아동 양육 쿠폰, 재난 구조 수당

전염병 감염 예방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일상화(2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사회 활동 증가(2나), 코로나19로 인한 보건(2다) 및 복지(2라) 분야의 전문용어 출현 등 코로나19 전후로 급격한 사회 변화가 관찰된다. 그중에는 ‘금스크, 마코인’처럼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쓰이던 예도 있다.¹⁾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었을 당시에 ‘금스크, 마코인’이 출현하여 확산된 결과이다. (2나)는 기존의 ‘온라인, 사이버’ 영역이 확장되고, 더 나아가 ‘비대면, 언택트’와 같이 비접촉이 강조된 형식의 구성이 새롭게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2020년에 첫 출현한 (2다)와 (2라) 전문용어 중에서도 ‘생활 치료 센터, 재난 기본 소득’은 언론 기사에서 수차례 확인되는 데 반해, ‘혼합 검사법, 재난 구조 수당’은 그 쓰임이 많지 않다. 신어 간에도 일상 내 활용 정도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 글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한국 사회에 출현한 신어의 사회적 수용(공인화)과 유지, 이후의 확장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코로나19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과 변화된 모습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²⁾ 신어의 유지 및 소멸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54개 언론사(주요 일간지, 방송 등)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를 활용한다.³⁾ 주지하듯이 신문과 방송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을 돕는 매개로 적극 활용되는바 신어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공동체 내 확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문 방송

1) ‘금스크’는 ‘금에 맞먹을 만큼 비싸고 귀한 마스크’, ‘마코인’은 ‘나날이 올라가는 마스크 가격을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빗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4.1의 <표 7>을 참고할 때, 코로나19 신어 조사 시기로부터 1여 년이 지난 2021.1.~2021.6. 기간에 이 두 단어는 0회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2) 코로나19 관련 신어를 대상으로 언어학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로 이수진 외(2020), 강희숙(2021), 김주아(2021)이 있다. 특히 강희숙(2021)은 코로나19 신어를 대상으로 삼아 ‘빅카인즈’를 활용한 점에서 본 연구와 주제 및 방법적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는 빅카인즈 도구의 장점을 활용하여 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 입체적으로 제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논의한 박순열(2020), 신광철(2020)도 참고된다.

3)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약 7천만 건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의 출현빈도를 측정하거나 월별 추출을 통한 빈도 추이 조사, 관계어 네트워크, 연관어 분석 등이 가능하기에 언어학적 연구에 유용하다. 또한 다양한 변이 형식(예. 코로나19, 코로나 19, 코로나일구, 코로나 일구 등)을 함께 추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성상 뉴스 자료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며 정확한 사용일(보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 연구에도 실용적이다. 코로나19 신어가 2020년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후 코로나19 신어의 사회적 위상 변화는 또 다시 언어 공동체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신어와 언어 공동체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한다. 3장에서는 2020년에 등장한 코로나19 신어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비친 2020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코로나19 신어의 2021년 출현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신어의 수용과 정착 문제를 다루고, 의미 범주 및 연관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공동체 모습을 논의할 것이다.

2. 신어와 언어 공동체

Bauer(1983: 45-50)은 ‘임시어 형성(nonce formation) → 공인화(institutionalization) → 어휘화(lexicalization)’의 순서로 단어의 역사(history of lexeme)를 소개한 바 있다. 이때 ‘임시어’는 즉각적인 필요(immediate need)에 따라 화자가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사용 후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 특정 청자와의 소통이나 사회적 수용과는 무관한 수준의 개념이다. 그러나 임시어의 형식과 의미가 공동체 내에 확산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이는 다음 단계인 ‘공인화’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소 우리가 인지하는 ‘신어’는 보통 공인화를 거친 대상들이다. 최초의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에 따라 만든 단어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확산한 결과로 신어가 우리 앞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어는 ‘언어 공동체에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단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수용, 즉 사회적 기준이 반영된 개념이다. ‘임시어’가 언어 내적 차원(단어 형성 원리)의 결과인 것과 달리, ‘신어’는 언어 외적 차원(사회적 수용)까지 포괄한 결과물인 것이다.

신어의 수용과 확산은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때의 언어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연을 지니는 것일까? 신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회 전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대,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몇 가지 부류가 참고된다(Hohenhaus 2005: 360-362).

(3) 언어 공동체의 층위

가. 두 사람(couples)

나. 한 가족, 소수 집단(가까운 직장 동료, 탐험 원정대의 작은 팀원 등)

다. 다수 집단(전문용어를 쓰는) 전문 직업인, (은어를 쓰는) 특정 세대)

라. 특정 언어를 쓰는 언어 공동체(the speech community of a language)

언어 공동체는 (3)과 같이 다층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회 전체(3라)를 가리킬 수 있으며, 전문용어를 쓰는 특정 집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3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만이 공유하는 특정 단어가 있다면 한 가족(3나)이 언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한 쌍의 연인만이 알고 사용하는 단어라면 이는 두 사람 언어 공동체(3가)에서 수용된 언어 표현에 해당한다. 일견 신어라고 하면 (3라)의 층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의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어는 본질적으로 (3가)~(3다)와 같이 하위 집단에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지역(물리적 공간)은 물론 연령, 성별, 직업, 온라인/오프라인 등의 개별적 요인이 모두 (3나), (3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어, 그리고 언어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정밀한 관찰과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공인화(임시어의 사회적 수용)를 규정하고 진단하는 작업, 즉 언중의 선호와 수용 양상을 판단할 기준을 수립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동안 국내외 공인화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은 이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양적 공인화’와 ‘질적 공인화’ (정한데로 2015가: 248)

	양적 공인화	질적 공인화
	언어 공동체 내 출현빈도 상승으로 인한 승인	사전 등재 및 공표를 통한 승인
공통점	언어 공동체의 크기 및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차이점	(3가~3라)의 층위에서 모두 관찰된다.	(3다, 3라)와 같은 높은 층위에서 주로 관찰된다.
	진행 속도가 점진적이다.	진행 속도가 급진적이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정한데로(2015가: 246-248)는 ‘양적 공인화’와 ‘질적 공인화’의 유형 구분을 통해서 어휘 사용에 따른 출현빈도 증가와 확산, 사전 등재나 용어 공표의 두 가지 사회적 수용 방식을 정리한 바 있다. 전자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확산인 반면, 후자는 정책 이름이나 공식 순화어 등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수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신어는 대부분 공동체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사용 대상 영역을 넓혀 가는 양적 공인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결과 중 대다수는 양적 공인화, 즉 언중의 사용을 통해 점차 확산된 단어들이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순화어(예. 길도우미(내비게이션), 꾸림정보(콘텐츠))가 신문 매체에 소개된 뒤 2004년 신어로 선정된 경우, 정부 정책 및 제도 관련 용어(예. 계획 휴가제, 법령 사전 상담 제도)가 2005년 신어로 발표된 경우처럼 질적 공인화 결과가 신어 자료집에 포함된 예는 소수 확인될 뿐이다.⁴⁾ 질적 공인화에 의한 신어는 신어를 만들고 공표한 시점과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정부 내 어떤 집단이 언제 만들어 발표하였는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면 양적 공인화는 최초 자료의 등장과 배경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따져 관찰해야 하므로 시기와 주체를 밝히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어는 본질적으로 언어 공동체와 밀접하다. 새로운 단어의 탄생, 유지 및 소멸은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서 비롯하며, 단어는 개인과 사회가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5) ‘단어’와 ‘언어 공동체’의 상관성 (정한데로 2020: 90)

	‘개인/사회’		‘단어’
--	---------	--	------

4) 3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코로나19 신어 중에 질적 공인화를 거친 예가 상당수 확인된다는 점에서 2020년은 매우 특징적인 해에 해당한다.

가.	㉠ 표현 동기	⇒	형성
	㉡ 공인 및 선호		유지 및 소멸
나.	㉢ 의사소통	⇐	표현 수단
	㉣ 유지 및 소멸		사용

최초의 단어 형성은 개인의 표현 동기 또는 사회적 필요에서 시작되고(5가㉠), 이후 공동체 구성원의 선호와 사회적 승인을 통해 신어는 유지 또는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5가㉡). 반대로 단어는 표현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다(5나㉢). 아울러 단어라는 도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축적해 온 문화적 성과들을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5나㉣). 인류 문화의 유지 또는 소멸 과정에 언어 기본 단위인 단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어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출현을 알리는 단서가 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수용하여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시어가 공인화를 거쳐 신어에 도달하는 과정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와 신어는 ‘텍스트 생산=임시어 형성’, ‘텍스트 수용=임시어 공인화’의 측면에서 평행한 양상을 띤다.

(6) ‘대중문화’와 ‘신어’의 평행성 (정한데로 2020: 93)

‘대중문화’		‘신어’
텍스트의 생산 생산된 텍스트 텍스트의 수용	⇔	임시어의 형성 임시어 임시어의 공인화

대중문화를 영화, 방송과 같은 매스 미디어(mass media) 등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이 수용하고 소비하는 영역 전반, 즉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주제로 이해한다면(김창남 2010: 38 참고), 대중문화의 토대 위에서 의식주, 문화, 경제 생활, 사회 생활 등 다양한 하위 범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신어 역시 여러 의미 범주로 유형화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기의 사회적 흐름을 가늠해 보는 단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⁵⁾

신어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선호로 탄생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쓰이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⁶⁾ 언어 공동체 내 새로운 개념과 문화의 출현은 이를 명명할 필요에 따라 신어의 탄생을 동반하지만, 그 개념과 문화가 더 이상 사회 내에서 유지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어는 곧 사라질 뿐 사전등재어에 진입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신어의 탄생과 유지의 문제는 언어 공동체의 시대별 모습을 기록하고 탐구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신어의 빈도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5) 최근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에서는 의미 범주 기준에 따라 신어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분포와 비율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3장, 4장에서 다시 후술할 것이다.

6) 신어를 신어의 정착과 소멸을 다룬 연구로 이선영(2007), 김일환(2014), 남길임(2015), 정한데로(2015나, 2017) 등이 있다. 남길임(2015)에서는 신어 가운데 약 27%만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사용을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정한데로(2015나)는 약 12%, 정한데로(2017)은 약 20%로 신어가 유지된다고 논의하였다. 각 연구의 대상과 방법, 조사 기간 및 정착 판단 기준에 따라서 비율 차이가 있다.

3. 코로나19 신어의 탄생

주지하듯이 ‘코로나19’는 2019년 11월 최초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020년은 관련 신어가 폭발적으로 등장한 시기라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특수한 해로 기록된다. 그 출현 양상을 조사한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남길임 외 2021, 한국문화사)는 코로나 시대 초기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언어 자료로 기록한 점에서 주목되는 연구이다.⁷⁾ 이 장에서는 남길임 외(2021)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신어를 대상으로 2020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살피고자 한다.

3.1. 코로나19 신어의 특징과 의미 범주

종합 일간지 기사에서 수집한 남길임 외(2021)의 2020년 신어는 총 405개 항목이다.⁸⁾ 그중 코로나19 신어는 229개로 단어(명사) 30개, 구(명사구) 199개에서 보듯 구가 86.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최근 신어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신어 가운데 단어 비중이 2017년 50.4%, 2018년 51.2%, 2019년 63.5%라는 점에서 평상적으로 구보다는 단어가 높은 값을 보인다.⁹⁾ 이에 반해 2020년 신어, 특히 코로나19 관련 신어 중 단어 비중이 13.1%에 불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이다. 이는 제도, 정책, 보건 등과 관련한 전문용어 성격의 구 구성이 코로나19 신어로 다수 수집되었기 때문이다(남길임 외 2021: 36-37). 코로나19로 달라진 2020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7) 가. 달고나커피, 줍폭탄, 워킹스루

나. 언택트주, 코돌이, 코로나돌이, 코로나둥이, 확진자

다. 금스크, 텍스크; 등린이, 산린이, 요린이; 오케팅, 포켓팅; 마코인; 온택트; 코로 나케이션; 홈테인먼트¹⁰⁾

7) 남길임 외(2021)은 2019.7.~2020.6.의 기간 동안 종합 일간지 5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체에서 생산한 기사문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어 후보 목록을 추출한 후 수작업으로 수집한 신어를 포함하여 ‘어휘 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종 신어 목록을 확정하였다. 코로나19 신어와 관련한 연구로 이수진 외(2020)도 참고된다.

8) 남길임 외(2021: 7-8)의 신어 수집과 기술은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사업의 기준과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조사 대상에 있어서 기존 국립국어원 사업은 <우리말샘> 신어 추출기 기반 ‘네이버 뉴스’를 활용했던 데 반해 남길임 외(2021)은 5개 신문사 말뭉치를 활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2017년~2020년 신어의 유형별 개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자료의 특이점이 잘 드러난다. 남길임 외(2017, 2018, 2019, 2021) 참고.

	단어/구 기준		일반어/전문어 기준	
	단어	구	일반어	전문어
2017년 신어	188개(50.4%)	185개(49.6%)	349개(93.6%)	24개(6.4%)
2018년 신어	222개(51.2%)	212개(48.8%)	355개(81.8%)	79개(18.2%)
2019년 신어	217개(63.5%)	125개(36.5%)	302개(88.3%)	40개(11.7%)
2020년 신어	63개(15.6%)	342개(84.4%)	223개(55.1%)	182개(44.9%)
코로나19 신어	30개(13.1%)	199개(86.9%)	129개(56.3%)	100개(43.7%)

10) 달고나커피: 인스턴트 커피 가루, 뜨거운 물, 설탕 등의 재료를 한데 넣어 크림처럼 될 때까지 휘저은 후, 이를 우유 위에 올려 만든 커피.

줍폭탄: 화상 회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참여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단어 유형으로 합성(7가)과 파생(7나)의 예가 일부 확인되며,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7다)의 혼성 유형이다. 최근 신어 조사 결과 혼성 방식이 다수 관찰되는데, 코로나19 신어에서도 그 경향성이 일관되게 확인된다.¹¹⁾ ‘금스크, 텍스크’는 ‘X+(마)스크’, ‘등린이, 산린이, 요린이’는 ‘X+(어)린이’ 구성의 계열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단어를 형성한다.

- (8) 가. 공적 마스크, 기본 재난 소득, 긴급 돌봄 제도, 마스크 공적 판매처, 마스크 의무제, 생활 방역 수칙, 생활 속 거리 두기, 선별 검사 센터, 수리 감염 역학, 아이 돌봄 쿠폰, 이동 선별 진료소, 재난 생계 수당, 코로나 일구 등
나. 깜깜이 감염, 덕분에 챌린지, 랜선 문화, 마스크 화장법, 비대면 강의, 비밀 차단, 사이버 술자리, 안심 가림막, 애프터 코로나, 언택트 산업, 온라인 개강, 위드 코로나, 집콕 운동, 코로나 베이비, 코로나 블루, 포스트 코로나 등

199개 구 유형의 신어 가운데 (8가)의 전문용어는 100개가 수집되었는데, 그중 『복지』(49%), 『보건 일반』(36%) 분야 신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코로나19 신어 가운데 전문용어가 43.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는 물론, 전문용어 가운데 『복지』, 『보건 일반』 분야가 85%의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최근 국립국어원 신어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코로나19 신어(2020년 신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복지』, 『보건 일반』 전문용어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진단 검사, 생계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 관련 신어가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문가 집단(정책 운영자)이 명명해 발표한 정책 용어가 급진적으로 확산된 경우로서 질적 공인화 유형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 신어 중 대부분이 양적 공인화 유형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2020년은 질적 공인화에 따른 신어가 다수 출현한 해이다. 반면 일반어로 분류된

워킹스루: 특정 장소에 걸어서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언택트주: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된 주식.

코돌이: ‘코로나돌이’를 줄여 이르는 말.

코로나돌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에 치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코로나둥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에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

확찐자: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활동량이 줄어들어 살이 찐 사람.

금스크: 금에 맞먹을 만큼 비싸고 귀한 마스크.

텍스트: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치는 것을 이르는 말.

등린이: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산린이: 산에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요린이: 요리를 처음 시작하거나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오펜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오징어를 사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경쟁이 벌어지는 일을 이르는 말.

포켓팅: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강원도에서 판매하는 감자를 사는 것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공연 표를 예매하는 것에 빗대어 이르는 말.

마코인: 나날이 올라가는 마스크 가격을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빗대어 이르는 말.

온택트: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함.

코로나케이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방학에 빗대어 이르는 말.

홈테인먼트: 집에서 즐기는 오락물을 이르는 말.

11) 최근 신어 조사 결과, 구를 제외한 단어 중에서 ‘혼성’은 27.66%(2017년), 31.5%(2018년), 32.7%(2019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합성이나 파생보다도 혼성이 최근 신어의 가장 활발한 형성 방식이다.

구 유형의 (8나)는 (8가)와 달리 양적 공인화를 거친 결과, 언어 공동체 내 점진적 확산 및 출현빈도 증가로 인해 신어의 지위에 오른 것들이다.

한편, 코로나19 신어를 의미 범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²⁾

<표 1> 의미 범주에 따른 코로나19 신어 유형 (남길임 외 2021: 39)

의미 범주	수(개)	비율(%)	예
정치와 행정	81	35.37	공적 마스크 제도, 긴급 재난 생활비, 마스크 의무제, 쇄국 방역, 코로나 총선
보건·의학	50	21.83	깜깜이 감염, 안심 가림막, 케이 진단 키트, 워킹스루 진료소, 코로나 포비아
삶	30	13.10	랜선 놀이, 산린이, 위드 코로나, 집콕 시대, 코로나 이혼,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생활	24	10.48	동학 개미 운동, 코로나 블랙 스완, 큐코노미
사회 생활	15	6.55	덕분에 챌린지, 사이버 술자리, 코로니얼 세대
교육	9	3.93	비대면 시험, 언택트 러닝, 온라인 개학
인간	6	2.62	코로나 베이브, 코비디언, 확진자
식생활	5	2.18	달고나커피, 돌밥돌밥
의생활	5	2.18	마스크 메이크업, 마스크 화장법
문화	4	1.74	랜선 음악회, 언택트 시네마
소계	229	100	

코로나19 신어 중 『복지』, 『보건 일반』 전문용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데서 미루어 짐작 가능하듯이 <표 1>의 의미 범주에서 ‘정치와 행정, 보건·의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그 뒤로 ‘삶, 경제 생활, 사회 생활, 교육, 인간, 식생활, 의생활, 문화’ 순서로 코로나19 신어가 다수 등장한다. 실제 삶이나 생활 현장과 직접 관련한 신어가 다수 만들어진 반면, 총 15개 의미 범주 가운데 ‘주생활, 종교, 자연, 동식물, 개념’ 범주의 코로나19 신어는 관찰되지 않았다.

3.2. 코로나19 신어로 바라본 2020년 한국 사회

신어는 공동체 사회와 문화를 기록하고, 삶의 변화는 신어의 출현과 확산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신어는 2020년 초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따라서 신어 분석의 결과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표 2> 코로나19 신어의 핵심어 분석 결과

핵심어(빈도)
코로나(37), 재난(29), 긴급(28), 마스크(13), 생활(12), 지원금(12), 수당(10), 소득(9), 랜선(8), 돌봄(7), 방역(7), 언택트(7), 생계(6), 선별(6), 진료소(6), 기본(5), 안정(5), 자금(5), 감염증(4), 격리(4), 고용(4), 공적(4), 기금(4), 비말(4), 운동(4), 쿠폰(4), 기간산업(3), 생활비(3), 세대(3), 신속(3), 안심(3), 우한(3), 이동(3), 제도(3), 지원(3), 집콕(3), 감염(2), 검사(2), 검사법(2), 검체(2), 극복(2) 등

229개의 코로나19 신어를 구성성분별로 분석하여 핵심어 빈도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

12) 이때의 의미 범주는 한송화 외(2015)에서 제시한 대범주 14개에 ‘보건·의학’ 범주를 추가하여 총 15개로 제시한 것이다. (인간, 삶,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교육, 종교, 문화, 정치와 행정, 자연, 동식물, 개념, 보건·의학)

재난 > 긴급 > 마스크 > 생활’ 등의 순서로 상위 출현빈도 값이 확인된다. ‘코로나 세대, 코로나 쇼크, 코로나 블루, 코로나 베이비’ 등에서 보듯 ‘코로나’가 단연 최상위 순위를 차지한다.¹³⁾ 상위권의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 수당, 소득, 돌봄, 방역’ 등은 모두 정부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것들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초부터 국가적 차원의 신어 명명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결과로서, ‘재난, 긴급’ 핵심어 관련 신어는 모두 ‘정치와 행정’ 의미 범주에 해당한다.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전염병으로 인해 달라진 생활 모습인 ‘격리, 집콕’, ‘랜선, 언택트’ 등도 상위권에 속한다.

<표 2>로 정리된 몇 가지 주요 핵심어의 의미 범주 분석을 통해, 사용 영역에 근거한 2020년의 한국 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핵심어 ‘코로나’ 관련 신어의 의미 범주

의미 범주(빈도)	코로나
정치와 행정 (8)	코로나 공조, 코로나 수당, 코로나 정치01, 코로나 정치02, 코로나 총선, 코로나 피싱, 코로나돌이, 코로나등이
보건·의학 (14)	상상 코로나, 신종 코로나 감염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코로나,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앱, 코로나 우울감,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일구,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구, 코비드 일구
삶 (10)	애프터 코로나, 위드 코로나, 코로나 베이비 붐, 코로나 블랙홀, 코로나 비만, 코로나 안개, 코로나 이혼, 코로나 전쟁, 코로나칼립스, 코비디보스
경제 생활 (9)	코로나 대출, 코로나 보릿고개, 코로나 블랙 스완, 코로나 쇼크, 코로나 신데렐라, 코로나 채권, 코로나 특수, 코로나노미, 코로나노미 쇼크
사회 생활(2)	코로나 세대, 코로니얼 세대
교육(2)	코로나 수능, 코로나케이션
인간(3)	코로나 베이비, 코로나 사피엔스, 코비디엇

정치와 행정, 보건·의학뿐만 아니라 삶, 경제생활, 사회 생활,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코로나’가 핵심어로 쓰이고 있다. 특히 보건·의학 범주에서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루,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포비아’ 등 가장 높은 유형빈도로 관련 신어가 확인된다. 삶, 경제 생활, 인간 범주에서 ‘코로나’ 관련 신어가 다수 등장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공동체의 삶, 특히 경제 영역과 긴밀한 영향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핵심어 ‘마스크’, ‘비말’ 관련 신어의 의미 범주¹⁴⁾

의미 범주(빈도)	마스크	비말
정치와 행정 (5)	국민 안심 마스크, 마스크 공적 판매처, 마스크 오부제, 마스크 의무제, 아베노마스크	
보건·의학 (7)	비말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비말 마스크, 비말 차단, 비말 차단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삶(1)	턱스크	
경제 생활(2)	금스크, 마코인	
사회 생활(2)	노 마스크족, 마스크 없무새	
의생활(3)	마스크 메이크업, 마스크 프루프, 마스크 화장법	

13) ‘코로나노미, 코로니얼 세대, 코비디보스’ 등의 혼성어까지 포함한다면 ‘코로나’가 핵심어로 직접 참여한 신어의 실제 값은 48회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4) 마스크 없무새: “마스크 없어요.”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약사를 이르는 말.

마스크 프루프: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해도 화장이 지워지거나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2020년부터 ‘비말’에 의한 감염 방지 차원에서 ‘마스크’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행정 및 보건 차원의 용어 사용은 물론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의생활에 전면적으로 마스크와 밀접한 생활 변화가 진행되었다. 제도(마스크 공적 판매처, 마스크 의무제 등)나 일상(텍스크, 마스크 메이크업, 마스크 화장법) 영역 전반에 걸쳐서 삶의 변화가 관찰된다. ‘비말’은 『의학』 전문용어로서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코로나’와 더불어 출현빈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단어이다.¹⁵⁾

<표 5> 핵심어 ‘온라인’, ‘비대면’ 관련 신어의 의미 범주¹⁶⁾

의미 범주(빈도)	온라인/사이버/원격/랜선	비대면/언택트
정치와 행정(1)		언택트 범죄
삶(4)	랜선 놀이, 랜선 여행족, 랜선 운동, 랜선 호캉스	
경제 생활(5)		언택트 경제, 언택트 산업, 언택트 영업, 언택트 존, 언택트주
사회 생활(4)	사이버 술자리, 랜선 생파, 랜선 초대장, 랜선 축하	
교육(5)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시대	비대면 강의, 비대면 시험, 언택트 러닝
문화(4)	온라인 뷰잉 룸, 랜선 문화, 랜선 음악회	언택트 시네마

감염병을 대비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관련 신어도 증가하였다. 이전부터 활발히 쓰이던 ‘온라인, 사이버’와 달리 ‘원격, 비대면, 언택트, 랜선’ 용어는 ‘코로나, 비말’처럼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급증한 단어들이다. 그중 ‘언택트, 랜선’이 결합한 신어가 넓은 영역에 걸쳐 다수 출현한 점이 주목된다(<표 5> 참고).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 시대, 비대면 강의, 언택트 러닝’과 ‘언택트 시네마, 랜선 음악회’ 등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온라인 방식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표 6> 핵심어 ‘집’ 관련 신어의 의미 범주¹⁷⁾

의미 범주(빈도)	집	홈
삶(5)	집콕 시대, 집콕 운동, 집터 파크	홈터 파크, 홈테인먼트
식생활(1)	집콕 요리	

<표 5>와 유사한 맥락에서 ‘집, 홈’ 관련 신어의 등장도 코로나19 전후로 달라진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거주 공간에서의 단독 일상생활이 늘면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요리, 놀이’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새로운 문화로 성장하였다.

15) 국립국어원에서는 ‘비말(飛沫)’을 ‘침방울’로 다듬어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빅카인즈에서 2021.1.~2021.6. 기간 ‘비말’과 ‘침방울’이 등장한 뉴스 자료의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 ‘비말’(1,562회)이 ‘침방울’(451회)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16) 랜선 호캉스: 현실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으로 호텔 곳곳을 둘러보며 즐기는 휴가.

랜선 생파: 현실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여는 생일 파티.

언택트 범죄: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저지르는 범죄.

온라인 뷰잉 룸: 온라인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17) 집콕 시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시대.

집콕 요리: 외식 대신 집에서 음식을 만들. 또는 그 음식.

집콕 운동: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집터 파크: 집에서 물놀이를 하며 워터 파크에서 노는 듯한 분위기를 내는 일. 또는 그 공간.

=홈터 파크.

4. 코로나19 신어의 공동체 수용과 확장

코로나19의 등장은 새로운 개념과 대상을 지시하는 신어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들 신어는 이후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언중의 선호를 거치며 어떠한 지위를 유지하였을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며 사용 영역을 확장하였을까? 코로나19 신어의 사회적 수용 양상, 그리고 그에 반영된 2021년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모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4.1. 2021년, 신어의 수용과 정착

코로나19 신어가 출현한 지 1여 년이 지난 2021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관찰하기 위하여 빅카인즈 자료를 활용하였다. 2021.1.1.~2021.6.30.(6개월) 기간에 생산된 뉴스 자료에서 핵심어를 검색한 후, 수집한 뉴스(기사) 빈도를 토대로 코로나19 신어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¹⁸⁾

<표 7> 코로나19 신어 관련 뉴스 빈도 (2021.1.~2021.6.)

그룹	코로나19 신어	출현빈도(회)	유형빈도(회)
1	코로나 일구	444,469	1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79,191	1
3	포스트 코로나	13,885	1
4	코로나 팬데믹, 생활 치료 센터	3,000~3,300	2
5	온택트, 코로나 블루	2,600~2,700	2
6	재난 기본 소득,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트래블 버블, 워드 코로나	1,000~1,999	4
7	생활 속 거리 두기, 동학 개미 운동, 비말 차단, 비대면 강의, 동학 개미, 생활 방역 수칙, 텍스크, 코로나 특수, 핀센 방역, 이동 선별 진료, 이동 선별 진료소, 공적 마스크, 워킹스루, 코로나 쇼크, 코로나 세대, 코로나 대출, 집콕 시대, 코로나 우울증 등	100~700	27
8	언택트 산업, 우한 폐렴, 깜깜이 감염, 교육 재난 지원금, 산란이,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 블랙, 언택트 경제, 긴급 돌봄 지원단, 우한 코로나, 온라인 뷰잉 룸, 생활 방역 체계, 재난 긴급 생활비, 코로나 우울감, 비대면 시험, 애프터 코로나, 집콕 운동, 집콕 요리 등	10~99	59
9	재난 생계 소득,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 격리 생활 시설, 마스크 메이 크업, 코돌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구, 기본 재난 소득, 마스크 공적 판매처, 재난 생계 지원금, 코로나 이혼, 노 마스크족, 승차 진료소, 재난 생계수당, 재난 수당, 코로나 수당, 랜선 운동, 아동 돌봄 쿠폰, 안심 가림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1~9	62
10	공감 소비 운동, 금스크, 기간산업 기금, 기간산업 지원금, 기간 안정 산업 기금, 기부금 특별법, 기업 구호 긴급 자금, 긴급 돌봄 학교, 긴급 생계 수당, 긴급 재난 생계 지원 자금, 긴급 재난 수당, 긴급 정서 돌봄, 랜선 생파, 랜선 여행족, 랜선 호캉스, 마코인, 사이버 술자리, 상상 코로나, 선별 검사 센터 등	0	70
계		564,052	229

<표 7>은 총 229개의 코로나19 신어가 포함된 뉴스 빈도를 조사하고 출현빈도 기준에 따라

18) 빈도 측정 시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표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여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 예컨대 ‘교육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 ‘교육 재난 지원금’, ‘교육재난 지원금’, ‘교육 재난지원금’, ‘교육재난 지원금’ 유형을 총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10개 그룹으로 나눈 결과이다. 최상위 1 그룹의 신어는 ‘코로나 일구(코로나19)’로 조사되었는데, 44만여 회의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로 이는 전체 누적 564,052회의 78.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뒤를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포스트 코로나’가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1~3 그룹의 합이 전체의 95.3%일 만큼 코로나19 신어 중에서도 특히 세 신어가 6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그룹은 1,000회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인 신어이다. 2020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생활 치료 센터, 재난 기본 소득,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의 정식 용어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¹⁹⁾ 핵심어 ‘코로나’가 구성성분으로 참여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블루, 워드 코로나’, 온라인 중심 환경 변화를 드러내는 ‘온택트’가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신뢰 국가 일부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허용을 추진한다는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2021년 6월에 급증한 결과로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장기간 제한되어 온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신어 출현빈도로 가시화된 결과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이 ‘팬데믹 → (감염병) 세계적 유행’, ‘코로나 블루 → 코로나 우울’, ‘트래블 버블 → 비격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등으로 다듬은 말을 제안하고 있지만, <표 7>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팬데믹, 코로나 블루, 트래블 버블’이 높은 비율로 쓰이는 현실을 보여 준다.²⁰⁾

10회 미만의 출현빈도를 보인 9~10 그룹의 합이 229개 유형의 신어 가운데 66.4%(152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 ‘정치와 행정, 보건·의학’ 의미 범주 유형이 78개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전문용어도 62개로 그 수가 많다. 앞서 3.1에서 코로나19 신어(2020년 신어)의 현저한 특징으로 ‘전문용어’ 및 ‘정치와 행정, 보건·의학’ 의미 범주의 단어 급증을 꼽았다면, 이들 상당수가 1년 만에 급격한 출현빈도 하락 또는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코로나19 출현 초기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한 행정 및 보건 용어가 당시의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았다.

1회도 출현하지 않은 코로나19 신어의 수는 70개 유형으로 확인된다. 그중에는 ‘기간산업 기금, 기업 구호 긴급 자금, 긴급 돌봄 학교, 긴급 생계 수당, 아동 양육 쿠폰, 재난 극복 수당’ 등과 같은 ‘정치와 행정’ 의미 범주 신어가 40.0%(28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긴급, 신속, 재난’ 핵심어가 포함된 용어가 상당수 관찰된다. 코로나19 초기의 긴급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제도가 신설된 후 1년이 지난 현재에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들이다. 사라진 코로나19 신어로 ‘보건·의학’ 의미 범주의 예(사전 환자 분류소, 선별 문진 표, 안심 외래 진료소, 혼합 검사법 등)도 15.7%(11개)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10 그룹의 전문용어도 45.7%(32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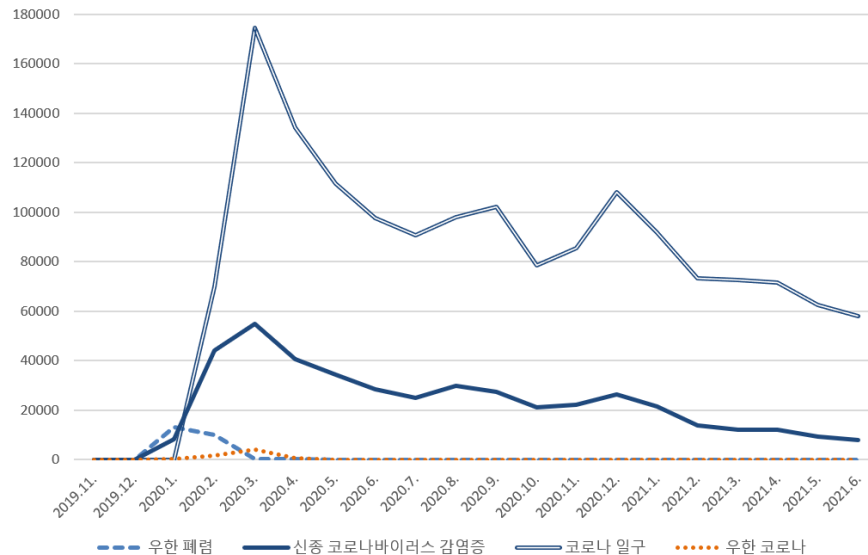
<표 7>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1여 년 후 해당 신어의 사회적 위치를 관찰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6개월(2021.1.~2021.6.) 간의 빈도를 합산한 값이기에 평면적 분석이라는 한계

19) 이들 신어는 초기의 유의어 간 경쟁을 거치며 점차 단일화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사한 의미로 쓰이던 코로나19 신어가 있었으나 ‘생활 치료 센터(3,123회) > 생활 치료 시설(162회)’, ‘재난 기본 소득(1,921회) > 기본 재난 소득(7회), 재난 생계 소득(9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167회) > 긴급 고용 지원금(15회)’처럼 대표적인 정식 명칭으로 점차 통일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20) 빅카인즈에서 2021.1.~2021.6. 기간 동안 아래 구성이 등장한 뉴스 자료의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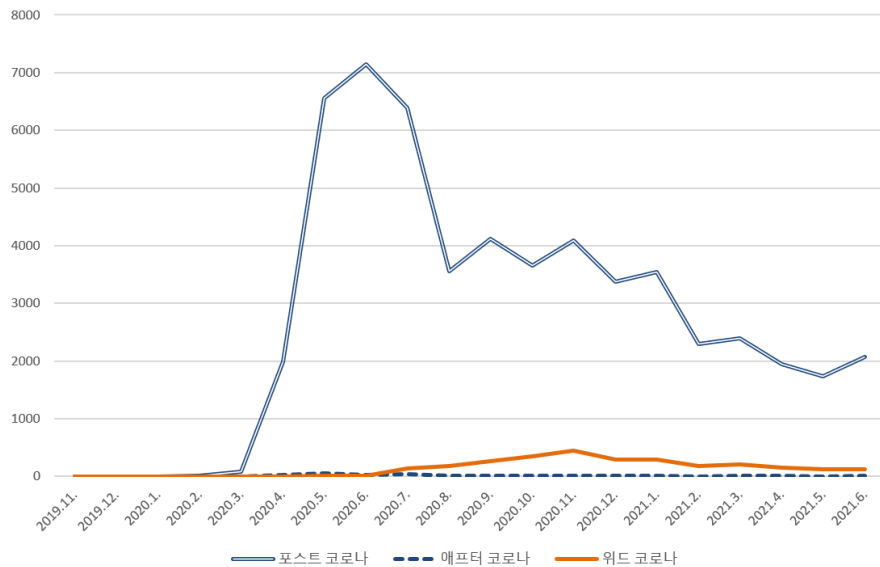
대상	팬데믹	(감염병) 세계적 유행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빈도	21,411	179	2,635	339	1,217	1,156

가 있다. 가령 ‘코로나 일구, 포스트 코로나’의 빈도 변화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통시적 양상을 추가로 관찰하였다.



[그림 1] ‘우한 폐렴, 코로나 일구’ 등의 뉴스 빈도 추이 (2019.11.~2021.6.)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시작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는 초기에 ‘우한 폐렴’으로 불리었다. 이후 WHO(세계보건기구)가 2020.2.11.에 공식 명칭을 ‘COVID-19’로 확정된 후 국내에서 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번역해 사용하였다. [그림 1]처럼 2020년 1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간 유의어 경쟁이 있었으나, 2020년 2월 이후 공식 명칭인 ‘코로나 일구(코로나19)’가 경쟁 우위를 이어가면서 빈도 차이가 역전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우한 폐렴’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반면 ‘코로나 일구’는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하게 되었다. <표 7>의 결과에서도 ‘코로나 일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 그룹, 2 그룹을 차지하며 최상위권에 있다. 초기 ‘우한 폐렴’과 함께 쓰이던 ‘우한 코로나’도 2020년 3월 이후로는 빈도 값이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 <표 7>의 8 그룹에 속하게 된다.



[그림 2]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등의 뉴스 빈도 추이 (2019.11.~2021.6.)

2020년 4월부터는 달라진 사회 모습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늘면서 경제, 관광,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초기 ‘포스트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간 유의어 경쟁이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양상은 꾸준히 지속된다. 2020년 3월~4월에 급증한 ‘코로나 일구’의 뒤를 이어([그림 1] 참고) 2020년 5월~7월에 정점을 보인 ‘포스트 코로나’ 분포로부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코로나19가 곧 극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대비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0년 7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19를 통제하며 안전하게 생활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된다. 2020년 8월~2021년 2월 기간 ‘포스트 코로나’의 빈도 하락과 달리 ‘위드 코로나’는 이전 대비 상승하였다. 2020년 한 해를 코로나 일상으로 보냈으나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위드 코로나’의 빈도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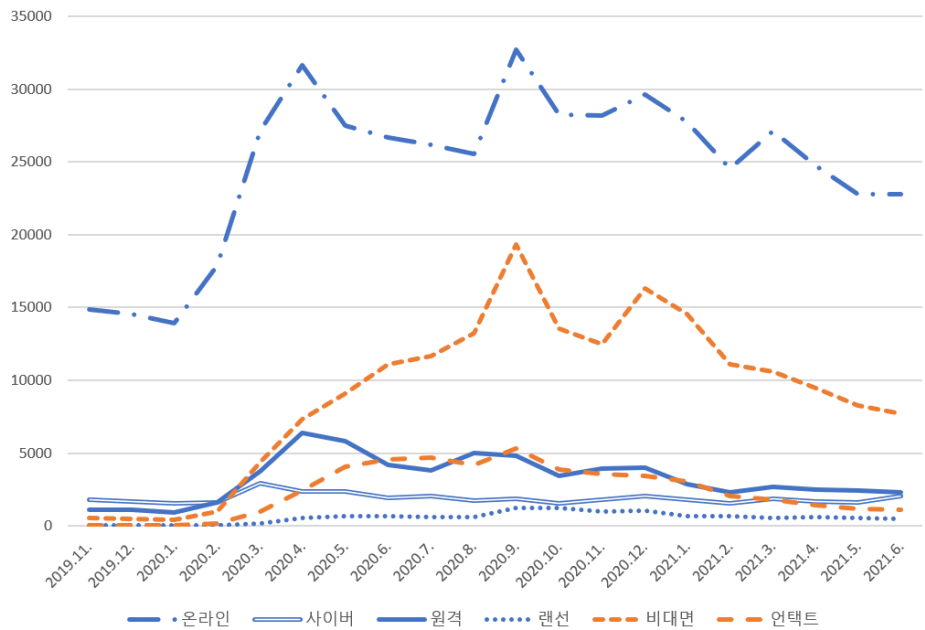
코로나19 신어 등장만으로도 2020년 한국 사회를 포착해 낼 수 있지만, 신어 출현 이후 이들이 언어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특히 통시적 차원에서 어떠한 빈도 추이를 보이는지 관찰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시기별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더욱 미시적 차원에서 공동체 변화 양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4.2. 신어의 확장과 공동체 변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신어는 공동체의 공시적 모습을 담아내는 도구’라는 기본 접근에서 2021년에 확장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단어의 사용 양상을 세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코로나19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빅카인즈’ 도구를 활용하여 ① 유형빈도 증가와 의미 범주 확장, ② 이전 신어의 출현빈도 증가와 재확산, ③ 연관어 추출을 통한 분석 방식으로 공동체 모습 탐색을 시도할 것이다.

<표 7>에서 핵심어 ‘코로나’가 참여한 고빈도 예(코로나 일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팬데믹 등)를 제외할 때 가장 주목되는 신어는 ‘온택트, 비대면 강의, 언택트 산업’ 등

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큰 사회적 변화는 ‘온라인’과 ‘비대면’의 저변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염병 발생 시점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온라인’, ‘비대면’ 관련 단어의 출현빈도 변화를 통해 직접 확인된다.



[그림 3] ‘온라인, 비대면’ 등의 뉴스 빈도 추이 (2019.11~2021.6.)

[그림 3]은 ‘온라인, 사이버, 원격, 랜선’(4개) 및 ‘비대면, 언택트’(2개) 핵심어를 대상으로 2019.11~2021.6. 기간 동안 빅카인즈 뉴스 빈도 추이를 조사한 결과이다. 2020년부터 이들 용어가 출현한 뉴스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변화는 ‘비대면’에서 확인된다. ‘비대면 회의, 비대면 수업, 비대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일상 곳곳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급증하였다. 2020년 3월~4월 ‘온라인, 사이버, 원격’의 하강과 달리, ‘비대면, 언택트’는 그 이후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특히 ‘비대면, 언택트’는 ‘온라인, 사이버, 원격’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전에 쓰임이 많지 않았던 단어이기에 큰 폭의 직접적인 변화를 겪은 대상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신어 출현 1년 후, 이들 핵심어는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을까?

<표 8> 새로운 ‘비대면’ 관련 구성의 의미 범주 (2021.1~2021.6.)

의미 범주	비대면	언택트
인간		언택트 열공족, 호모 언택트
삶	비대면 노래방, 비대면 명절, 비대면 버스 투어, 비대면 심리 상담, 비대면 여행지, 비대면 성묘	언택트 관광, 언택트 관광지, 언택트 기부, 언택트 라이프, 언택트 명절, 언택트 설날, 언택트 세배, 언택트 스포츠, 언택트 시대, 언택트 여행, 언택트 졸업식, 언택트 트렌드, 언택트 힐링 관광
식생활	비대면 도시락, 비대면 메뉴, 비대면 식사, 비대면 회식	언택트 메뉴
의생활	비대면 패션쇼	
사회 생활	비대면 공모전, 비대면 면접, 비대면 범죄, 비대	언택트 바람, 언택트 사회, 언택트 서비스,

	면 봉사 활동, 비대면 사기 범죄, 비대면 시대, 비대면 업무 협약, 비대면 영상 회의, 비대면 졸업식, 비대면 총회, 비대면 취임식, 비대면 화상 회의, 비대면 회의	언택트 채용, 언택트 컨퍼런스
경제 생활	비대면 거래, 비대면 결제, 비대면 경매, 비대면 금융 서비스, 비대면 대출, 비대면 마케팅, 비대면 배송,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소비, 비대면 쇼핑, 비대면 수요, 비대면 예매, 비대면 장보기, 비대면 주문, 비대면 중고 거래, 비대면 판매, 비대면주	언택트 구매, 언택트 기술, 언택트 마케팅, 언택트 소비, 언택트 쇼핑, 언택트 수요
교육	비대면 개강,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온라인 교육, 비대면 학습	언택트 강연, 언택트 교육, 언택트 도서관
종교	비대면 미사, 비대면 법회, 비대면 예배	언택트 예배
문화	비대면 시상식, 비대면 온라인 공연, 비대면 축제, 비대면 콘서트, 비대면 토크 콘서트, 비대면 프로그램	언택트 공연, 언택트 문화, 언택트 팬미팅, 언택트 팬서트, 언택트 합창, 언택트 행사
정치와 행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대면 행정 서비스	언택트 선거 운동
보건·의학	비대면 진료, 비대면 처방, 비대면 치료	언택트 진료

<표 8>은 ‘비대면, 언택트’를 동반한 새로운 구성을 조사하고, 의미 범주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결과이다. <표 5>의 ‘비대면, 언택트’ 신어와 비교할 때 훨씬 다양한 유형의 구성이 2021년에 활발히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표 5>가 ‘정치와 행정, 경제 생활, 교육, 문화’ 범주의 한정된 영역에서 관찰되었다면 1년 후 <표 8>의 영역은 ‘인간, 삶, 식생활, 의생활, 사회 생활, 종교’를 포함하여 더욱 확장된다. ‘비대면/언택트 마케팅’, ‘비대면/언택트 진료’ 등처럼 유의어로서 ‘비대면’과 ‘언택트’가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쓰이는 양상도 확인된다.

<표 9> 새로운 ‘집콕’ 관련 구성의 의미 범주 (2021.1.~2021.6.)

의미 범주	집콕
인간	집콕 스트레스, 집콕 요리족, 집콕 육아족, 집콕 힐링, 집콕러, 집콕족
삶	집콕 댄스, 집콕 독서, 집콕 라이프, 집콕 명절, 집콕 바캉스, 집콕 생활, 집콕 연휴, 집콕 육아, 집콕 일상, 집콕 투어, 집콕 피서, 집콕 필수품, 집콕 홈트, 집콕 휴가
식생활	집콕 레시피, 집콕 먹거리
의생활	집콕 룩
주생활	집콕 가전
경제 생활	집콕 경매, 집콕 소비, 집콕 쇼핑, 집콕 수요, 집콕 이코노미, 집콕 특수, 집콕 힐링 사업, 집콕주
교육	집콕 놀이 키트
문화	집콕 문화, 집콕 영화제, 집콕 예술, 집콕 축제, 집콕 콘서트, 집콕 트렌드

이와 더불어 <표 6>에서 확인한 ‘집콕’ 관련 구성의 확장도 코로나 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에서도 ‘집콕 운동, 집콕 요리’의 꾸준한 출현이 확인되었는데, 앞선 ‘비대면, 언택트’와 마찬가지로 ‘집콕’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미 범주로 확대 생산된다. <표 6>의 ‘집콕’은 ‘삶, 식생활’에 국한되었지만, <표 9>에서 보듯이 2021년의 ‘집콕’은 ‘인간, 의생활, 주생활, 경제 생활, 교육, 문화’로 확장되어 폭넓게 쓰이고 있다.

특히, ‘집’과 관련하여 ‘홈카페, 홈쿡, 홈캠핑’ 등의 구성이 다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사회 구조 안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신어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재확산된 사례가 관찰된 점이 흥미롭다.

<표 10> ‘홈’ 관련 구성의 최근 5년 간 출현 빈도 추이

	구성	최초 출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6.
1	홈카페	1998	175	201	257	419	995	511
	홈카페족	2010	58	49	65	74	186	100
2	홈콕	2009	27	15	19	29	350	255
	홈콕족	2009	0	5	11	10	36	61
3	홈스토랑	2010	12	9	11	5	41	54
	홈스토랑족	2012	0	1	0	0	0	2
4	홈캠핑	2014	15	13	18	4	189	63
	홈캠핑족	2014	0	1	8	0	25	6
5	홈술	2016	127	289	251	379	1298	806
	홈술족	2016	112	171	131	162	583	370
	홈술 시장	2016	1	1	1	0	36	16
	홈술 문화	2016	9	17	32	59	176	74
6	홈트	2016	13	83	105	216	982	544
	홈트족	2016	9	74	49	58	237	148
	홈트 용품	2017	0	4	2	1	35	31
	홈트 열풍	2017	0	3	2	4	30	22

<표 10>의 각 구성은 2019년 이전 출현 용례가 관찰되기에 코로나19 신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0년부터 관련 뉴스 출현빈도가 급증한 결과, 전후 10배 이상으로 출현한 경우도 적지 않다(홈콕, 홈캠핑, 홈술 시장, 홈트 용품 등). ‘집콕’ 관련 구성의 유형빈도 확장(<표 9>)과 더불어 ‘홈X’ 구성의 출현빈도 확장(<표 10>)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불러 온 사회적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카페, 레스토랑, 캠핑’ 등 실외 활동을 주거 공간으로 끌어온 문화, 이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홈카페족, 홈콕족, 홈스토랑족, 홈캠핑족, 홈술족, 홈트족)가 코로나19 이후 재확산되었다. 아울러 ‘룸콕, 룸트’의 출현은 ‘집(홈)’보다 한정된 공간인 ‘방(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리키고자 ‘집콕, 홈트’로부터 추가 확장된 신어이다.

끝으로, 연관어를 활용한 분석으로 공동체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자. <표 7>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랙, 코로나 우울감’에 주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심각하게는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한다.

<표 11>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등 연관어 순위 (2021.1.~2021.6.)

번호	연관어	계	번호	연관어	계	번호	연관어	계
1	정신건강	1,590	11	아이들	217	21	반려식물	146
2	비대면	1,177	12	심리상담	200	22	팬데믹	129
3	장기화	1,084	13	대구	193	23	문화예술	120
4	사람들	1,013	14	군민들	180	24	무기력	120
5	힐링	876	15	전남	179	25	청소년들	118
6	시민들	733	16	홈트	178	26	신조어	108
7	사회적 거리	588	17	불안감	176	27	보건복지부	108
8	주민들	432	18	수원	173	28	단양	104
9	집콕	275	19	국민들	151	29	언택트	103
10	지역사회	224	20	취약계층	148	30	구청장	88

<표 11>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등이 출현한 기사 2,989 건을 대상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연관어 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빈도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연관어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 드러나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공시적 양상이 잘 포착된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불안감, 무기력’ 등을 극복하기 위한 ‘힐링, 심리상담, 반려식물,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 주민들, 군민들, 아이들, 청소년들,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 층위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구, 전남, 수원, 단양’ 등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아래의 워크클라우드를 통해서도 주요 연관어가 파악된다.



[그림 4] ‘코로나 블루’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5.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강희숙(2021), 코로나-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 인문학연구 6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15-138.
- 김일환(2014), 신어의 생성과 정착: 신문의 신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4, 한국사전학회, 98-125.
- 김일환(2015), 한국 사회의 키워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언어 사용, 아시아문화연구 3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5-33.
- 김주아(2021), 언어로 보는 중국의 ‘코로나19’: 2020년 10대 신조어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0, 한국중국어언어문화연구회, 329-359.
- 김창남(2010), 대중문화의 이해, 전면2개정판, 한울.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2005.2006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
- 남길임·이수진(2016), 신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길임 외(2017), 2017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남길임 외(2018), 2018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남길임 외(2019), 2019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남길임 외(2021),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 박순열(2020),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공간과 사회* 30-3, 한국공간환경학회, 62-98.
- 신광철(2020),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 *인문콘텐츠* 59, 인문콘텐츠학회, 107-129.
- 이수진·강현아·남길임(2020), 코로나-19 신어의 수집과 사용 양상 연구: 주제 특정적 신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36, 한국사전학회, 137-171.
- 이선영(2007), 국어 신어의 정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4, 한국어의미학회, 175-195.
- 정성미(2020), [X-족], [X-남], [X-녀] 신어의 형태·의미적 연구, *어문논집* 84, 중앙어문학회, 147-188.
- 정한데로(2014), 임시어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 71, 국어학회, 61-91.
- 정한데로(2015가),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국어학* 74, 국어학회, 233-266.
- 정한데로(2015나), 신어의 형성과 빈도 변화에 관한 일고찰: 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한글* 310, 한글학회, 171-204.
- 정한데로(2017),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2002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국어학회, 119-152.
- 정한데로(2019), 신어의 탄생, 사회와 문화를 담다, *새국어생활* 29-3, 국립국어원, 9-23.
- 정한데로(2020), 신어로 바라본 한국의 대중문화: 1994년, 2004년, 2014년 신어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5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85-120.
- 한송화 외(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 Bauer, L.(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henhaus, P.(2005), Lexic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Štekauer, P. & Lieber, R.(eds.), *Handbook of Word-Formation*, Springer, 353-373.

코로나19 신어와 언어 공동체의 논평문

정성미(강원대)

단어의 생산과 확산은 사회문화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두드러지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일수록 더 많은 신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9년 11월 코로나 19가 시작됐을 때, 아무도 코로나 19가 빠르게, 긴 시간, 전 영역의 삶을 장악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매일 코로나 19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만나는 데 사람의 수를 고려해서 만남을 절제하고, 국내, 해외 여행 등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한대로 선생님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신어 연구를 해 오셨고, 특히 이 학술대회의 기획주제인 ‘코로나 시대, 공동체와 인문학’에 맞는 기획 발표 논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발표에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저도 신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연결사회와의 연관성을 신어를 통해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코로나 19 신어 연구에 논평을 자진해서 맡게 되었다.

향후 신어 연구에 있어서 코로나 19는 오래도록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코로나 19 신어 어휘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코로나 19 신어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신어 어휘 자료인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어 연구들은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신어 자료를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0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신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남길임 선생님의 2020 신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시의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의 초기에 해당하는 신어들을 조사했다는 의의가 크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조사가 가진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발표 논문에서도 코로나 19 신어 목록이 채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19 신어 연구는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빅카인즈 자료를 활용해서 2021.1.1.~2021.6.30.(6개월) 기간에 생산된 뉴스 자료에서 핵심어를 검색하고, 빈도를 기준으로 코로나 19 신어 목록을 구성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신어 목록 구성에 대한 방법, 신어 판별 기준(출현시점, 빈도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기 바란다. 또한 빅카인즈 자료는 신문 텍스트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향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또 빅카인즈 자료가 지닌 장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 논문에서 Bauer(1983)의 ‘공인화’를 질적 공인화와 양적 공인화로 구분하고, 코로나 19 신어에 질적 공인화와 양적 공인화를 거친 신어에 대한 구분의 예가 보이는데,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질적 공인화와 양적 공인화의 신어들의 구별된 특징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영역별, 또는 단어 출현 빈도, 소멸 시기, 명사보다 구가 많은 코로나 19 신어의 특징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는 코로나 19의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빈도추이와 연관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신어에 반영된 언어 공동체의 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

와 애프터 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정착되는 빈도 통해서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없는 수용적 태도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고빈도 핵심어 ‘비대면, 언택트’의 출현빈도 변화와 의미 범주 유형을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큰 사회적 변화를 ‘온라인’과 ‘비대면’의 저변 확대로 강조하고, ‘집콕’의 예를 통해 이전에 만들어진 신어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고 재확산되고 룸(방)으로의 확장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랙, 코로나 우울감’에 주목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코로나 19 신어와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강희숙(2021)의 연구에서는 신어의 용례를 통해서 코로나 뉴노멀의 양상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 둘째,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 셋째, 거대 정부의 진격에 따른 각종 제도 및 경제적 지원의 다양화, 넷째,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방식 확산이다. 이는 이 발표문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19 신어 속 언어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와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등 부적응 사회현상에 대해서 포착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고전문학에 나타난 역병을 통해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영문

- I. 서론
- II. 설화 시대의 믿음과 치유
- III. 성리학 시대의 이성과 치유
- IV. 결론 -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치유

I. 서론

현재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혼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과학의 힘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음에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나게 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류는 질병과 싸웠고, 그 시간을 지나 현재로 왔다. 선조가 살아온 모습을 살펴본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은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지만, 과거에는 이 현장을 충실히 기록하지 못했다. 기록할 지라도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투사하기보다는 치환, 변형해서 표현했다. 강렬했던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선택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질병’은 신체의 결함이나 결손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반면에, ‘전염병’은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을 맺고 나타난다. 이런 까닭에 전염병의 발생과 치유를 살펴본다면, 사회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병은 개인의 삶을 붕괴시켜 죽음과 고통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공포와 혼란을 유발한다. 이러한 공포와 혼란은 전염병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모르거나,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전통시대에 한국인을 괴롭혔던 전염병은 두창(痘瘡), 콜레라, 학질 등이었다. 그중에서 두창, 즉 천연두는 8세기에 전국을 휩쓸고 일본으로 전파²¹⁾되기도 했으며, 오랜 시간 한국 사람들 가까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19세기 서세동점의 시기에는 조선으로 콜레라가 유입되었지만, 병명을 몰라서 ‘괴질(怪疾)’이라고 하였다. 2019년에는 코로나가 세계로 퍼졌고, 현재까지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병 중 그 전파력이 높아 예방 및 관리가 강조되는 질병”²²⁾이다. 급격한 전염성과 함께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왕조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염병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백성들은 민간요법과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염병이 사라지지만, 그때까지의 체험과 기억은 그대로 남아서 구전되거나 기록으로 전해졌다.

E.H 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는 반복되어 나타난다. 과거에 맹위를 떨치다 사라진 전염병은 시대를 달리하여 변이되어 돌아온다. 현재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가 알고 있던 전염병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치유하고자

21)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9쪽.

22) 두산백과, 전염병, 네이버 지식백과.

하는 욕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역사시대 이후 전염병의 체험과 기억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우리는 그 기억을 다양한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전염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문학과 연관성 속에서 전염병을 바라본 연구는 많지 않다. 김영주는 한문학에 나타난 두역을 4가지 유형(슬픔과 좌절의 표현, 해학, 유교적 윤리, 실증적인 작품)으로 구분²³⁾하였고, 김동준은 질병 소재의 한시를 소개하는 과정에 전염병의 증상을 묘사한 시를 소개하였다.²⁴⁾ 강상순은 조선 시대 역병의 불안과 공포, 비참함을 살펴보고, 역병의 병인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²⁵⁾하였다. 이주영은 역병에 내재한 인간의 심리를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찾아보았다.²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치유 방법을 살펴보고, 과거의 인식이 현대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설화 시대의 믿음과 치유

고대국가에서도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사서(史書)에서 기록하고 있다.²⁷⁾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그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는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용랑은 개운포(開雲浦)에서 신라 헌강왕(BC 875-886)을 따라 서라벌로 와서 정치를 도왔고, 그 보답으로 아내를 얻어 정착했으며, 급간(級干)의 벼슬을 받았다.

① 처용의 아내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疫神이 흠모해서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몰래 동침했다. 處容이 밖에서 자기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자 이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② 疫神이 본래의 모양을 나타내어 處容의 앞에 꿇어앉아 말했다. 내가 공의 아내를 사모하여 이제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은 노여워하지 않으니 감동하여 아름답게 여기는 바입니다. 맹세코 이제부터는 공의 모양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라 사람들은 處容의 형상을 문에 그려 붙여서 邪鬼를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아들이게 되었다.²⁸⁾

연속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위의 설화는 다음 2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다. ① 역신이 사람 형상으로 처용의 아내와 동침했다는 내용과 ② 굴복한 역신이 처용을 문신(門神)으로 좌정시켜 주었다는 내용이다. 역신(疫神)은 역귀(疫鬼)와 같은 말이고, 민간에서는 ‘손님, 마마’, 현대에서는 ‘천연두’²⁹⁾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역신이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이지만, 인간사에

23) 김영주, 「조선훈문학에 나타난 두역」, 『한문교육연구』29, 한문교육학회, 2007.

24) 김동준, 「질병 소재에 대처하는 한국한시의 몇 국면」, 『고전과 해석』6, 고전한문학연구회, 2009.

25) 강상순, 「조선시대의 역병 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46,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5.

26) 이주영, 「19세기 역병 체험의 문학적 형상」, 『동악어문학』55, 동악어문학회, 2010.

27) 전염병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4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4년)이다.

28) 일연 저,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7, 139쪽.

29)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3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30쪽. 역신은 전염병 가운데 두창(痘瘡) 포창(疱瘡)을 옮기는 귀신을 말한다. 역신은 전염성이

관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이 역신과 처용 아내의 동침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역병에 감염되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온 처용은 아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역병을 치유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역신을 징치(懲治)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내를 빼앗긴 상태에서 체념할 수만은 없다. 이에 ‘노래와 춤’³⁰⁾으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³¹⁾이다. 초월적인 존재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력은 발휘되지 못하고, 노래와 춤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역신에 의해 역병이 발생’한다는 신라인의 믿음이 작용하였다.

역신은 처용이 ‘노(怒)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히며 굴복하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처용과 역신의 행동에는 인과관계가 빈약하다. 이에 현대의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역신의 “공의 형상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맹세는 처용의 기담(奇談)을 나라 사람들 전체의 ‘믿음’으로 확대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문’에 처용의 그림을 붙여 벽사진경(辟邪進慶)의 표식으로 삼았는데, 이때의 ‘문’은 정착민들을 상징한다. 역병이 만연한 지역은 황폐화하고, 그곳에서 살던 정착민들은 거처를 잃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시대에 정착민에게 있어서 역병으로부터 집과 마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문신(門神)으로서 그들을 지켜주는 처용의 존재는 만연하던 전염병이 사라진 이후에 등장한 ‘치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처용은 당대에 존숭(尊崇)되었고, 그의 설화는 후대로 전승³²⁾되었다. 전염병이 확산한 마을에서 신라인들은 구원의 대상을 종교에서 찾았고, 약사여래불은 일찍부터 그 역할³³⁾을 하고 있었다. 설화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마신이 등장하여 아이들을 데려간다.’, ‘여귀(厲鬼)를 잘 대접하여 역병을 물리친다.’는 설화로 변형되었고, ‘입춘대길’을 문에 붙이는 행동으로 변형되었다. 처용의 기담(奇談)은 역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인물’, ‘장소(사당)’, ‘상징물(당산나

강해 흔히 ‘큰 돌림, 대역, 천행두’라 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천연두’라고 알려져 있으나, 옛 문헌에서는 ‘두창, 완두창(豌豆瘡), 두질(痘疾), 두진(痘疹), 두역(痘疫), 두환(痘患), 두후(痘候), 천두(天痘), 천창(天瘡)’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민간에서는 ‘손님, 마마’라 하였다.

30) 삼국시대에 ‘춤과 노래’는 ‘말’, ‘글’, ‘악기’만큼이나 힘이 있었다. 『삼국유사』의 신충, 용천사, 월명사 등은 이들을 매개로 불가능한 일을 하였다. 주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던 만큼 처용의 ‘춤과 노래’는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설화가 믿음을 주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주체는 ‘나라 사람들’ 즉, 백성이다.

31)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존재가 ‘역신(疫神)’이고, ‘역신’이 침범하는 장면을 “몰래 그녀의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한 것이니, 처용의 처는 ‘역병에 걸린 환자’이다. 아내를 병마에서 구하는 장면을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에서 찾은 연구자가 많다. 그런데, 역신은 그의 굴복이 ‘노(怒)하지 않음’에 있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오류가 없다면, 이것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정해진 운명’에 의미를 두는 고대인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처용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의 <처용희>, 『악학궤범』의 <학연화대처용문합설>, 『시용향악보』의 <잡처용>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존재 의미는 달라졌다. 일부는 궁중으로 들어가 놀이가 되고, 일부는 무속신앙으로 확대되었다. “처용희를 조금도 부끄러운 빛이 없이 잘 놀았다.”(고종) “처용가면을 쓰고 작희하여 즐겁게 하였다.”(『고려사』권136 열전49 신우4)에서 볼 수 있듯 ‘놀이’의 주인공으로 변모하였고, 『악학궤범』 소재 <고려 처용가>에서 처용은 힘으로 ‘열병신, 열병대신(熱病大神)’을 구축하고, 위협의 언사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고대인들의 주술에 사용되던 위협적인 언사가 <처용가>에 삽입되면서, 처용은 문신(門神)에서 ‘삼재팔난의 소멸’을 주관하는 존재로 변모한 것이다.

33) 고대국가 시대에 전염병의 치유는 의료체제를 통해 진행되지 못했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의료를 담당한 기관을 설치하였으나 귀족의 건강과 전염병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기에도 부족했고, 의료수준은 역병을 치료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일반백성들의 치유는 자신의 신앙에 기대어 이루어졌다. 경덕왕 14(755)년 분황사에 거대한 약사여래불을 만들었던 것도 믿음에 기대어 병을 치유하고자 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무)’ 등의 이야기로 변이되어 구전되다가 설화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설화는 역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역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비극을 극복하고, 인간의 질서 속에서 다스리고, 다스려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전승한 것이다.³⁴⁾

고대 사람들은 전염병을 초월적인 힘의 작용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전염병을 ‘귀신’과 결부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성리학자 이익은 “무릇 역질 따위에는 귀신이 있어서 여역(癘疫) 두역(痘疫) 진역(疹疫)의 모든 귀신이 무엇을 아는 듯이 전염시키고 있다.”³⁵⁾고 하였다. 전염병의 원인을 ‘귀신의 영향’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 된 사회에서 전염병에 걸린 백성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구휼(救恤), 의료제도 정비, 의학서 편찬 등은 신라 중대(654-779)³⁶⁾부터 지속(持續)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왕조의 대책이 민간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민간에서 선택한 방법은 ‘금기’였다. 금기는 사회의식을 반영하면서 전승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 이문건에게 성주 지역에 두창이 퍼졌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5월 그의 손자, 손녀, 노비들이 전염되었을 때, 남의 집을 빌려 제사를 지냈다.³⁷⁾ 그들이 중시한 제사를 옮겨 지낸 것은 ‘역신’에 대한 ‘금기’³⁸⁾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두창에 걸리면 더러운 냄새, 붉고 달이는 기름 냄새, 방사도 피하고, 머리에 빗질하기 등을 삼갔는데, 두창이 사람의 향내를 맡으며 퍼져 다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³⁹⁾ 이러한 금기가 역병을 해소해 주지는 않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백성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유몽인은 『어우야담』에서 “민간에서 어린아이가 두역을 하면, 신을 신봉하면서 기휘하고 약도 쓰지 않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이 요절”⁴⁰⁾한다는 상황을 제시하며 애석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심정을 기록하였다. 조선에서도 역병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근신하였음은 물론 약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민가에서는 역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원도 의약품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이 없는 시대·상황에서 처용의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가 도리어 역병을 낫게 했다는 설화적 믿음이 “두창신을 화나게 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변형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귀신의 정체를 ‘여귀(厲鬼)’⁴¹⁾라고 보았다. 그들이 원한의 기운을 쌓이게 하여 질병(疾疫)이 생기게 하고, 조화로운 기운을 상하게 하여 변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괴의 원인을 ‘죽은 귀신의 원한’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여귀의 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조선에서는 ‘여제(厲祭)’였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의례가 행졌다. 그 의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조선의 5대(代)왕 문종은 유교 의례인 ‘여제’와 불교 의례인 ‘수륙제(水陸齋)’⁴²⁾를 시행하였다.

34) 송소라, 「구전설화 속 ‘역병’의 서사화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122쪽.

35) 이익, 『성오사설』 권6, 만물문.

36) 『한국전염병사』, 앞의 책, 18쪽.

37) 이문건, 『목재일기』 가정16, 3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1998, 94쪽.

38) 이문건, 『목재일기』, 1556년 5월 4일, 5월 19일, 6월 6일. 금기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금기는 당시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39) 황병익, 앞의 논문, 140-141쪽

40) 유몽인, 『어우야담』

41)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편, 여귀, 네이버 지식백과. 厲鬼는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제사를 지낼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 전염병과 같은 해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는 귀신”이다.

42)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5일. <임금이 친히 악질을 구료하는 의를 지은 내용> “향을 사르는

수륙지법(水陸之法)이 비록 이단(異端)이지만, 불법(佛法)이 사람들의 이목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인심을 편안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에는 의원도 벽사약(辟邪藥)을 몸에 지니면 병이 나을 것⁴³⁾이라고 말하는 등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시대에도 지속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이 변모하였기 때문에 과거와는 그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전염병에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Ⅲ. 성리학 시대의 이성과 치유

삼국시대부터 불교와 무속적 민간신앙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의학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설화적 믿음에 기반하여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이 등장한 여말선초까지 지속하였다.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인식과 다른 이념, 불교와 무속 제의를 ‘淫祀’와 ‘迷信’⁴⁴⁾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파(打破)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요구 속에서 전염병에 대한 인식도 고대로부터 전승된 설화적 ‘믿음’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귀신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믿음이 여말선초 성리학자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주자는 귀신을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天地의 신묘한 작용이고 造化의 자취’⁴⁵⁾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조선에 수용되어 남효온은 “돌림병이 집집마다 서로 전염되는 것 두고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는 귀신이 아니고, 바로 하늘이 운행하는 기운”⁴⁶⁾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염병을 여귀(厲鬼)의 소행이라 생각하는 당대의 인식을 부정하고, 하늘의 운행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였다. 설화적 믿음을 부정하고, 합리성에 기반을 한 이성을 중시한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여제’와 ‘수륙제’를 실시하도록 한 문종도 그 원인이 “기근(饑饉)과 한서(寒暑)에 대한 조절의 실의(失宜)”⁴⁷⁾에 있다고 보았고, 송시열도 “만물은 그 형체가 완전히 소멸하는데, 그 精氣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귀신”⁴⁸⁾이라고 하여 실체를 지닌 귀신을 부정하였다.⁴⁹⁾

역병은 백성만 아니라 왕족의 생명까지도 위협하였다. 『선조실록』에는 “지난해 두창이 매우 위험했었는데 여염에서는 한집안에서 잇달아 죽은 경우도 있다니 놀라고 참담함을 느꼈다. 이번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⁵⁰⁾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선조(宣祖)의 딸이 전염병

것이 약을 먹는 것만 같지 못하며, 황해도와 역질에 수륙재를 지낸다는 것은 나도 역시 들었는데, 그 후에 역기(疫氣)가 약간 흩어졌다는 말이 비록 허망하긴 하나 인심의 향하는 바이니 수륙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제는 행하여도 좋다.”

43)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5일. <임금이 친히 악질을 구료하는 의를 지은 내용>

44) 강상순, 「김시습과 성현의 귀신 담론과 원귀 인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연구회, 2014, 11쪽. 음사(淫祀)란 유교적 명분에 맞지 않은 모든 형태의 제의이고, 미신(迷信)은 성리학적 이기론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신비주의 신앙이다.

45) 『중용』 16장. 정자가 말씀하시길, “鬼神은 天地의 功利用이요, 造化의 자취이다.(鬼神 天地之功用 而造化之迹也).”

46) 김혁배, 「조선시대 유학자의 귀신론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16, 96-100쪽. 남효온, 『秋江集』 卷5, 「鬼神論」. “疫之家傳相染人人 以爲鬼神信乎 曰斯則非鬼也 乃天行之氣也”.

47) 『문종실록』 1년 9월 5일.

48) 『송자대전』 95권, 「答李同甫」. “物其形消盡而其精氣之不泯者爲鬼神”.

49) 여말선초의 성리학자들은 귀신을 부정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성리학자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 제각기 다른 생각을 제시하였다.

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 궁중에서조차 전염병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위정자들은 전염병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현실에서 찾았고, 인정(仁政)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문건(1494-1567)의 『목재일기』와 김약제(1856-1910)의 『청우 김약제 일기』⁵¹⁾에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문건은 일기에 자신이 앓은 질병과 평소에 먹은 약, 그가 수집한 의학서적⁵²⁾, 지역 인물들의 문의와 그의 조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아침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술에 보명단을 먹고, 다시 달군 조약돌을 술잎으로 싸서 어깨를 뜨겁게 하였다.⁵³⁾

그는 평소에도 병을 앓고⁵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적합한 약재를 선택하여 복용하고, 물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면은 19세기 말 김약제의 일기에서도 발견된다. 김약제는 일기에 약방문의 효능과 처방법을 기록할 정도로 의술에 관심이 많았다. 두 사람은 사대부 신분으로 전염병이 집안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의술[刀圭]을 행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약제는 의술을 ‘업’⁵⁵⁾으로 삼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문건이 기록한 질병 중에서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두창과 학질’⁵⁶⁾이다. 1556년 성주 지역에 두창이 유행하면서 그의 집안에도 어렵게 얻은 손자와 노비, 노비의 자손이 두창에 걸렸다. 이문건은 그들의 두창 발생과 치료과정⁵⁷⁾, 학질의 경과⁵⁸⁾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김약제는 근대의 격동기를 살았던 인물로 전염병과 괴질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는 조선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⁵⁹⁾ 상태에 있다는 점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였다.⁶⁰⁾ 그는 “괴질과 전염병이 여전히 그치지 않아 인명이 손실”⁶¹⁾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괴질을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⁶²⁾한다. 괴질을 치료할 단서를 찾고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혼자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

50) 『선조실록』, 선조 24년(1591) 1월 신축.

51) 김약제, 『청우 김약제 일기』, 태학사, 2020.

52)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4호, 역사학연구소, 2013, 38쪽. 이문건은 『집성방』, 『구급방』, 『득효방』, 『화제방』, 『직지맥』, 『의학집성』, 『단계찬요』, 『명의잡저』, 『의학정전』, 『신응경』, 『의욕집』, 『동인도』, 『혈법도』 등을 수집했을 정도로 의학서적에 관심이 많았다.

53) 이문건, 『목재일기』, 1552년 10월 13일.

54) 김성수, 앞의 논문, 41쪽. 『목재일기』에 나타나는 질병의 양상을 계절성 질환, 노인성 질환, 전염병으로 구분하였다.

55) 김약제, 앞의 책, 448쪽.

56) 김성수, 앞의 논문, 44쪽. 두창은 일반적으로 천연두라고 하지만, 홍역이나 발진성 질환을 포함하는데, 홍역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마진(麻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57) 김성수, 『조선시대 전기』, 『한국전염병사』, 대한감염학회, 2009, 152-159쪽 재인용. 이문건, 『목재일기』, 1556년 4월 11일.

58) 김성수, 『조선시대 전기』, 『한국전염병사』, 대한감염학회, 2009, 170-173쪽.

59) 김약제, 앞의 책, 1895년 8월 13일. “올해 전염병이 돌아 실제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했다.”

60) 김약제, 앞의 책. “경기는 사방에서 괴질이 일어나 인명 손실이 많이 일어났고, 황해도와 평안도 양도 역시 그러하다고 한다.”(1895년 6월 28일). “괴질이 크게 일어나 서울에서 사망자가 대단히 많았다.”(7월 25일)

61) 김약제, 앞의 책, 354쪽. 1895년 8월 18일.

62) 김약제, 앞의 책, 1895년 7월 30일. “병으로 인한 소요가 날로 커져갔다. 괴질의 치료 방법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자질구레하게 기록할 수 없다.”

다. 더구나 서양의학에 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연구를 지속하여 2년 뒤에는 학질에 걸린 여동생과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서양인의 가루약을 연구하여 가루를 내어 아침에 시약”⁶³⁾을 해보기까지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염병이 초월적인 힘의 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집안의 구성원들까지 전염시켰다. 그는 병든 환자들이 음식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김약제가 언급한 ‘괴질’은 콜레라⁶⁴⁾로 1821년 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순조실록』에는 한 달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후 1858-9년, 1862년, 1886년에도 유행하고, 일기의 배경이 된 1895년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콜레라의 확산은 서세동점의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그의 일기에는 집안을 덮친 전염병이 더디게 사라지는 상황에 대한 걱정과 주위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온 집안이 거의 모두가 병에 걸려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 오직 아내만이 병에 걸리지 않아서 위아래의 병에 걸린 자들을 도와주었다. 심지어 대문간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도 모두 병으로 누웠는데 계집종 임단이 술시쯤에 죽었다. 나이는 25세로 비참하다. (중략) 임단의 상여가 나갔는데, 그 지아비의 딱한 모습과 세 살 아이가 젖 달라고 울어대니 차마 못 보겠다.⁶⁵⁾

일기에는 계집종 임단의 죽음⁶⁶⁾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하는 예가 많았다. 김약제의 집안에서도 치료 도중에 임단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경춘은 아들 윤철의 병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들쳐 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⁶⁷⁾, 김약제는 임단의 죽음과 애도(哀悼)하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한 것이다.

전염병의 발생은 사람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 공포는 개인에서 마을 전체로 확대된다. 이러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불안감은 공동체 사회를 파괴한다. 질병으로 건강한 사람이 줄어들면서 김약제는 “병으로 인한 소동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농사일도 폐한 자가 많”⁶⁸⁾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대부가 직접 “파종하고 모내기하며 울타리를 수리”하는 등 생활을 꾸려가야만 한다. 경작할 토지가 없는 양민의 경우에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생활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모여들었고, 이들 유랑민을 따라 전염병도 전국으로 퍼져나갔다.⁶⁹⁾ 이런 상황을 『순조실록』에서는 “요사이 도성 안팎에는 잡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염됩니다.” 이러한 유랑민의 전염으로 인해 “살아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서는 묻지도 못하여 그냥 시체나 나뒹굴고 쌓이게 놔두고 있다.”⁷⁰⁾고 기록하였다.

63) 김약제, 앞의 책, 451쪽. 1897년 3월 23일.

64)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문학치료연구』 5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322쪽.

65) 김약제, 앞의 책, 447쪽. 1897년 2월 26-27일.

66) 이문건, 『목재일기』, 1556년 11월 16일.

67) 김약제, 앞의 책, 449쪽.

68) 김약제, 앞의 책, 450쪽. 1897년 3월 15일.

69) 오성준,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 -19세기 콜레라의 유행과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3호, 국문학회, 2021, 108쪽.

70) 『순조실록』 22년 4월 28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나타난 콜레라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때의 체험과 기억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게 하였다. 콜레라에 대한 기억은 <변강쇠가>⁷¹⁾의 주인공 옹녀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여러 번 개가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이유로 남편이 죽어버리자 황해도와 평안도 부녀자들이 결탁하여 옹녀를 쫓아내 버렸다. 결국 유랑민이 되어 떠돌게 된 옹녀의 삶에 전환의 계기는 ‘신사년 괴질’이었다. 이처럼 콜레라로 인한 유랑여성의 모습은 <덴동어미화전가>⁷²⁾에서도 발견된다.

병술년 괴질 닥쳤구나. 안팎으로 삼십여 명이
모두 병이 들어 사흘 만에 깨어나 보니
삼십 식솔 다 죽고서 주인 하나 나뿐이라.
수천 호가 다 죽고서 살아나니 몇 없다네.
이 세상 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서방님 시체 잡고 기절하여 엎드려져서
아주 죽을 줄 알았더니 겨우 인사 차려 하네.
애고애고 어이할까 가엾고 불쌍하다.

(중략)

아무래도 할 수 없어 그럭저럭 장사(葬事)하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산목숨은 못 죽네.
역지로 못 죽고서 또 다시 빌어먹네.

- <덴동어미화전가> 일부.

<변강쇠가>에서 정착민들이 옹녀를 수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축출하는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 이렇게 무리에서 버려진 그녀는 전국을 떠돌다 ‘변강쇠’를 만나 정착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서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덴동어미화전가>에는 이러한 과정이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녀도 ‘병술년 괴질’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민이 된다. 19세기 조선에서는 양민이 생활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다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정약용의 <飢民詩>⁷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의 상황, 그로부터 유발된 불안과 공포의 정서가 만들어낸 것이 ‘차별과 배제’이다. 이러한 태도는 문학적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속죄양을 만들어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타자에게 돌리는 경향⁷⁴⁾이 그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삶, 차별과 배제의 현상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만연한 현재에도 양상만 변화하면서 지속하고 있다.

71) 오성준, 앞의 논문, 103쪽. <변강쇠가>에는 ‘신사년 괴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1821년 유행했던 콜레라이다.

72)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 번 살아 불라고 첫째 낭군은 추천(鞦韆)에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怪疾)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 번 못 잘살고 내 신명(身命)이 그만일세. <덴동어미화전가>, 임형택, 고미숙 엮음, 『한국고전시가선』, 창작과비평사, 1997, 216쪽.

73) 『다산시문집』 2권 詩, <飢民詩>, 한국고전종합DB. 정착민이 유민으로 전락해 떠도는 모습을 <飢民詩> 5행-12행에서 묘사하고 있다. “메마른 산 송장이 쓰러져 있고/ 거리마다 만나느니 유랑민들뿐/ 이고 지고 다니나 오라는 데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득하기만/ 부모 자식 부양도 제대로 못해/ 고난에 빠진 이 몸 천륜도 몰라/ 상농군도 마침내 거지가 되어/ 서투른 말솜씨로 구걸하는데(槁茅弱不振 道塗逢流離 負戴靡所聘 不知竟何之 骨肉且莫保 迫厄傷天彝 上農爲丐子 叩門拙言辭)”와 이러한 유민에 대한 책임을 목민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시의 마지막 2행에서 말하고 있다. “도탄에 허덕이는 이 나라 백성/ 이들을 구제할 자 공들 아닌가(生靈在塗炭 拯拔非公誰)”

74) 오성준, 앞의 논문, 124쪽. 르네 지라르, 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19쪽 재인용.

IV.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치유 - 결론을 대신하여

질병은 개인의 신체를 억압하지만, 전염병은 사회의 자유를 억압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 ‘간병과 기도’, ‘죽음과 생존’, ‘유랑 생활’, ‘치유’의 행동이 차례로 발생하지만, 그 경험이 기록될 때는 기억에 남는 일만 기록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 고대 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보여주는 ‘처용설화’에서는 ‘감염’, ‘간병과 기도’, ‘치유’의 순간만 기록으로 남았다. 조선에서는 ‘이성’과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들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가 만연한 현대에서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등 과학의 힘으로 자연적인 소멸을 기다리는 시대에서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약제, 『청우 김약제 일기』, 태학사, 2020.
이문건, 『목재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98.
일연 저, 이민수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87.
『다산시문집』 2권 詩, <飢民詩>,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문종실록, 선조실록, 순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2. 논저

강상순, 「김시습과 성현의 귀신 담론과 원귀 인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연구회, 2014.
강상순, 「조선시대의 역병 인식과 신이적 상상세계」, 『일본학연구』 46,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5.
김동준, 「질병 소재에 대처하는 한국한시의 몇 국면」, 『고전과 해석』 6, 고전한문학연구회, 2009.
김성수, 「조선시대 전기」, 『한국전염병사』, 대한감염학회, 2009.
김성수, 「『목재일기』가 말하는 조선인의 질병과 치료」, 『역사연구』 24호, 2013.
김영주, 「조선한문학에 나타난 두역」, 『한문교육연구』 29, 한문교육학회, 2007.
김혁배, 「조선시대 유학자의 귀신론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16.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09.
송소라, 「구전설화 속 ‘역병’의 서사화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과교육』 4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1.
오성준,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질병에 대한 기억과 반응 - 19세기 콜레라의 유행과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3호, 국문학회, 2021.
이주영, 「19세기 역병 체험의 문학적 형상」, 『동악아문학』 55, 동악어문학회, 2010.
최성민, 「질병의 낭만과 공포」, 『문학치료연구』 5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4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고전문학에 나타난 역병을 통해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토론문

박종훈(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전염병에 대한 물리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의 치유도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치유’의 측면을 부각하고자 했다. 아직 완결된 논문이 아니기에, 수정 보완한다면 마음의 결을 치유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치유’와 관련해, 실제 문학작품에서 역병의 현장에 보고뿐만 아니라, 역병의 발생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역병 이후의 삶의 변화 양상 혹은 질병 예방 차원의 선제적 대응 등의 모습이 보이는지 궁금하다. 일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길 바란다.

2. 논문에서 장을 크게 ‘Ⅱ. 설화 시대의 믿음과 치유’와 ‘Ⅲ. 성리학 시대의 이성과 치유’로 나누었다. 성리학 시대에도 여전히 설화의 믿음이 공존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문학작품에서는 설화의 믿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역병에 대한 계층 간의 인식도 살펴보아야 한다. 설화 시대에는 역병에 대한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성리학 시대에는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혹 있다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길 바란다.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면 치유 방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3. ‘성리학 시대의 이성’이라면 그 ‘이성’의 근간이 있을 듯하다. 혹 실제 문학작품에서 언급한 근간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면 발표자가 ‘이성’의 뿌리로 인식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4. 문학작품에서 투영된 역병은 실제 역병에 초점을 맞춘, 역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표문에서 언급한 ‘처용가’나 ‘변강쇠가’, ‘덴동어미화전가’는 그 목적(주제)이 역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각 작품은 작품을 통해 저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의 효과적인 발현을 위해 다양한 요소 중에, 역병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역병에 대한 상황이나 치유 등이 선택적으로 선별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에서 역병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역병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역병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실제로 당대 역병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각 작품은 스토리 전개에 있어 역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작품에서 역병의 스토리 전개 과정상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각 작품에서 역병은 어떤 스토리 전개를 위해 활용되었는지 궁금하다.

5. ‘치유’라는 단어의 함의가 궁금하다. ‘설화 시대의 믿음과 치유’의 ‘치유’는 ‘운명에 순응한다.’는 의미인 듯 하고 ‘성리학 시대의 이성과 치유’의 ‘치유’는 실제 ‘역병에 대한 자발적인 대응’의 의미 정도로 파악된다. ‘치유’가 실제 역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의 ‘치유’, 이후 삶에 대한 ‘치유’ 등 다중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구체화 시켰으면 한다.

6. 논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우리는 ‘치유’의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와의 영역까지는 미치지 못한 듯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양면, 악마적 형상과 천사의 끔찍한 메시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김옥선(경성대)

1. 근대성, 코로나19의 원인과 대응
2. 적을 생산하는 친밀한 폭력
3. 천사의 끔찍하고 이상한 메시지
4. 코로나19 이후는 없다

1. 근대성, 코로나19⁷⁵⁾의 원인과 대응

코로나19는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적'이 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개하고', '야만적인' 아시아에 유행하는 것으로 치부했던 유럽 각국이 뒤늦게 시행한 조치는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인의 유입을 막는 등 국경의 빗장을 거는 일이었다. 코로나19 발병 원인을 두고 중국 책임론을 주장한 미국 내 공방은 미·소 냉전 시대 혹은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중심의 세계를 재편한 것과 닮아있다. 미국,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는 자국 국민을 위협, 위기에 빠트린 적을 응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초기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교회, 클럽, 요양병원, 노동현장 등 특정 공간의 집단 감염을 좌악시하고 그 공간을 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시적 영역에까지 이르게 되자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 공간을 더욱 통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 행정, 사무 업무는 재택근무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리두기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맺는 거의 모든 관계를 제한하는 대신 '집', '가족'만을 신뢰의 거점으로 삼고 있다.

델타형, 감마형, 람다형으로 변이가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종식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지금, 국가와 가족 중심의 방역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될수록 국가와 가족이라는 동일자적 세계를 제외한 그 외부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적'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그 경계를 강화하고 내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높고 단단한 장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높고 단단한 장벽의 실체를 모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 이성을 중심으로 자연을 지배해온 인간중심주의, 근대성의 장벽이다. 근대성의 논리에 따를 때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천갑산 등 자연계에서 순환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계로 넘어 올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유롭게 야생동물을 취식하며 자연을 완벽하게 지배했다고 여기는 순간,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특히 미국과 유럽)은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도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기는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박쥐나 천갑산 등 야생동물을 취식한 문제⁷⁶⁾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우한 시장에서는 글로벌

75) 2020년 2월 WT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다. 한글명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표기한다.

식품들이 거래되고, 수산물을 비롯해 야생동물 역시 공식화된 부문으로 자본화되고 있었다.⁷⁷⁾

야생 동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숙주와 함께 죽어나갔을 것이나 자본화된 식품산업은 바이러스로 하여금 진화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밀집된 환경은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어린 동물들이 튼튼한 면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도살되는 동안 바이러스는 진화를 가속해 왔다. 자본은 악성 병원균 개체의 성장을 막아주는 지역 생태계의 복잡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⁷⁸⁾ 코로나19의 확산은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자본의 유연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네트워크(물류, 여행)를 따라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자국에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데에는 그동안 서구 사회가 주도해 온 글로벌리즘의 역풍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싼 임금과 더 넓은 시장을 찾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 지구적 확산은 시장의 탈규제, 경쟁 강화, 거대 자본의 글로벌화였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계적 기업, 한국 기업의 세계 진출,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 세계 여행지에서 즐기는 휴가 등 오늘날 글로벌리즘은 우리에게도 보편적이고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다. 그러나 자본에 의해 지역 경제, 환경 생태계의 복잡성이 훼손되는 동안 그것이 가진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지구가 처한 심각한 위기에 따른 재난, 재해를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거대 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즘이 야기한 위기임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익숙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구의 위기로부터 무관하다는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동안 인간이 저질러 온 ‘불필요하고 과잉된 행위들’⁷⁹⁾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귀 기울일 때 한강의 『채식주의자』만큼 이 세계, 즉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세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적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도 없다. 남성적 질서(가부장제)를 와해시키는 ‘영혜’는 인간 세계에서 ‘적’으로 간주된 코로나19와 닮아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남성이 여성을,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는 기만과 허구성을 드러내는 근대성 비판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의 통찰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인간, 남성적 질서, 그 외부에 선 영혜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세계의 진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의 진실에 가 닿으려는 영혜의 고통을 함께 감각하면서 오늘날 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

76) 코로나19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는 ‘중국의 배꼽’이라 불린다. 우한시는 내륙지역의 육해공 교통 중심지이자 장강 운하의 중심지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고속철도 4시간 거리에 중국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다. 우한시는 우한-유럽, 우한-동남아 등의 국제철도운수와 장강 근해 직통 항로, 육해공 연계 운송 등을 발전시켜 글로벌 종합물류기지로 성장해 온 도시이다. <http://www.kotra.co.kr>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1.8.14.

77) 코로나19를 분석하는 데 대체로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시각 외에 어떻게 그 식품들이 전통 가축들과 함께 판매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식품으로 이용된 동물들은 트럭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팔리지 않았다. 야생동물식품은 공식화된 부문이며, 어느 때보다 자본화되고 있다. 롭 월러스 외, 장자운 외 옮김, 『코로나19와 자본의 순환』,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8권 제2호, 2021.5, 26~27쪽.

78) 롭 월러스 팀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전염병 등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자본의 전 세계적 순환, 악성 병원균 개체의 성장을 막아주는 지역 생태 복잡성을 파괴하는 자본, 해당 도시에서 전 세계로 병원균을 전달하는 국제 여행(및 가축 거래) 네트워크 증가, 가축과 사람 모두에서 더 큰 병원균이 치명성의 진화를 선택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전염 저항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병을 방지하는 생태계 서비스로서의 자연적 선택을 제거해 버리는 산업적 가축의 생식 부족. 롭 월러스, 위 논문, 33~34쪽.

79) 최재천, 『생태와 인간』, 장하준 외,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36~43쪽.

고 있는 오류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

2. 적을 생산하는 친밀한 폭력

『채식주의자』⁸⁰⁾는 세상의 보편적이고 익숙한 것에서 비껴나려고 할 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의 양상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평범한 아내의 역할을 무리 없이 해”(10쪽)오던 영혜는 꿈을 꾸 뒤 고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나’(남편)와 영혜의 부모, 형제들은 영혜의 육식 거부 행위를 저지하고 다시 육식의 세계로 되돌리려 한다. 그들에게 육식은 보편적이고 익숙한 행위이다. 그들은 육식의 세계 외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보편적이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 육식의 외부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듯 육식은 남성, 가부장 질서, 사회적 제도로 상징되는 만큼 개인의 취향일 수 없다. 육식은 인간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생존의 기술이자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 생태계의 외부, 혹은 최고 정점에 존재함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육회를 즐기는 장인, 손수 활어회를 뜯 줄 아는 장모, 정육점 칼을 휘둘러 닭을 토막 낼 줄 아는 처형(25쪽), 어린 영혜의 다리를 물어뜯은 개를 잡은 날 집에 모인 동네 아저씨들로 구성된 육식공동체 안에서 영혜는 ‘평범한’ 아내, 딸, 이웃일 수 있었다. 그러나 냉장고 안에 든 모든 고기를 내다버리는 순간 영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육식공동체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영혜를 ‘과민함’, ‘편집증이나 망상, 신경쇠약’등으로 진단한다. 사장이 주최하는 부부동반 모임에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그녀를 채식주의자로, 건강과 정신을 위한 행위로 배려하는 듯하지만 기름에 번들거리는 자신들의 입술을 바라보는 아내를 불편해 하고 그녀를 외면한 것이다. 그런데 타인의 경멸적 시선보다 영혜를 더욱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가족이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48쪽), “얼굴이 그게 뭐냐”(57쪽)라는 가족의 진심이 담긴 염려와 사랑이 영혜를 더욱 강하게 ‘비정상’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가족의 의무와 책임은 육식공동체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일이다. ‘나’가 장모와 처형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들은 똑같이 경악하고 사죄하며 영혜를 되돌릴 것을 다짐을 한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38쪽) 장인은 사위에게 면목 없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할 정도이다. 아버지는 딸을 다시 육식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킬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 책임을 공유하는 가족은 아버지의 폭력을 승인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은 그뿐이 아니다.

가부장 문화권에서 육식의 권리는 남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육식은 ‘힘’이고, ‘강하고 건강한’ 남성의 상징이다. 음식을 차리는 일은 여성의 몫이고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건강을 위해 고기를 조리해 내 놓는 것이다.⁸¹⁾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서방은 어찌란 말이냐?”(38쪽)는 아버지의 호통은 아내의 의무, 남편에게 육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딸의 무책임함을 동시에 꾸짖고 있는 것이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새카맣게 그을린 장인의 얼굴을, 한때 젊은 여인이었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쪼글쪼글한 장모의 얼굴을, 그 눈에 어린 염려를, 처형의 근심어린, 치켜올라간 눈썹

80) 한강,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창비, 2007. 본문에는 쪽수만 표기한다.

81) 사실 남성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임신부나 수유 중인 여성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다고 한다. 그러나 고기를 금기시하는 풍습은 대개 여성들에게로 향해 있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많은 음식책은 남자=육식이라는 공식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음식책은 남성을 위한 특별 요리로 바비큐요리를 추천하고 있다. 캐럴 J. 아담스, 류현 옮김,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2018, 77~100쪽.

을, 동서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막내처남 내외의 소극적이지만 못마땅한 듯한 표정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아내가 무슨 말이든 꺼내놓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상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 모든 얼굴들이 쏘아보내는 무언의,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46쪽~47쪽)

육식, 즉 공동체의 질서를 거부하는 영혜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표정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못마땅함과 난감함으로 일그러져 간다. 사위에게 반쯤 죄인이 된 어머니가 딸이 좋아했던 고기를 먹여 보려고 하지만 딸은 완강히 거부하고 어머니는 곧 울음을 터트릴 듯하다. 기어이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억지로 입을 벌려 쑤셔 넣고, 탕수육을 먹는 척 만하면 될 것을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누나를 보는 동생은 안타깝기만 하다.

가족의 진심어린 걱정과 사랑은 육식공동체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영혜를 막아서고 내부로 복귀시키려 한다. 이렇듯 육식공동체는 “네가 고기를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이 널 죄다 잡아먹”(60쪽)을 것이라는 공포와 협박을 부성, 모성, 자매·형제의 가족애로 전환시켜 온 것이다. 때문에 이 가족애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혜가 손목을 그음으로써 아버지의 힘을 좌절시키는 행위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 잡지사의 대담에서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발표했을 때 독자에게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게 불편한 소설을 왜 쓴 것이냐, 이 여자의 심리를 설명해 달라”, “정말 화가 난다”는 항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읽고 “분노를 느꼈다”, “이해할 수 없다”, “(영혜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⁸²⁾ ‘가족애’, ‘친밀함’으로 감춘,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가족의 폭력성을 목격하는 일은 불편한 일이다. 많은 독자들이 영혜의 육식 거부가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금기시 하는 가족 공동체를 극도의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애로 아버지의 폭력에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족의 ‘선량함’을 훼손하고, 남들(특히 남편)을 괴롭히는 영혜는 그야말로 ‘괴물’, ‘악마’와 같다. 코로나19 역시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과 평화로움을 깨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악마적이다. 그러나 악마적 형상을 하고 있는 영혜를 통해서만 육식공동체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익숙함과 보편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절망적인 것은 오늘날 육식공동체로 상징되는 국가와 가족의 경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우리를 위기로 빠뜨린 그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하고 보편적인 것들의 너머를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이다.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이 지구적인 문제에 의한 것인 만큼 ‘지구적인 해결책’⁸³⁾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채식주의자」가 보여주는 또 다른 통찰은 여기에 있다. 「채식주의자」는 근대 이성-인간 공동체에 의해 억압된 자연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 이는 「채식주의자」가 에코페미니즘적 세계의 가치로 이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82)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도 받았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수동적 저항밖에 없는가? 여성을 왜 이렇게밖에 그리지 못했는가? 성적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분노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분노하시는 거죠. 한강·강수미·신형철,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문학동네』 88호, 2016년 가을, 43쪽.

83)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지구불평등에 대한 주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 말한다. 코로나19는 근대 과학, 이성을 토대로 쌓아올린 인간 문명에 내재한 불평등들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논리에 의해 자연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연 이상 현상, 기후 위기 등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안희경 인터뷰, 「2050년 우리 문명은 이제 30년 남았다」, <한겨레신문> 2021.7.22.

3. 천사의 끔찍하고 이상한 메시지

페미니즘을 생태학 관점으로 확장한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는 오늘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에코페미니즘은 지구적 생태 위기에 당면해 인간과 자연의 불평등 관계에서 자연 해방을 시도해 왔다. 오랫동안 자연은 여성과 동일시되어 왔고 인간 이성에 의한 자연의 지배는 곧 남성의 여성 지배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육식 공동체, 남성 가부장 질서의 폭력성을 파괴적으로 그리고 있는 「채식주의자」에서 영혜의 저항은 여성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생명 되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적 세계관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지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데.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43쪽)

손과 발, 이빨은 사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더불어 시선은 근대적 주체를 생산하는 체제이다.⁸⁴⁾ 그러나 젖가슴은 사냥을 위한 무기도 될 수 없고, 주체를 생산하는 자리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영혜는 그 무엇도 죽일 수 없는 젖가슴으로 세상과 대적한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벗고 지내는 영혜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부부동반 모임에서도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그녀의 젖가슴은 “호기심과 아연함,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29쪽)의 대상이 된다. 병원 마당에서 환자복 상의를 벗고 있는 그녀는 여지없이 “정신병 환자”일 뿐이다. 영혜의 투쟁은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에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을 견디는 일이다.

「채식주의자」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은 인간(이성, 남성)과 자연(감성, 여성)의 경계에 선 영혜의 이러한 치열하면서도 독자적인 투쟁에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없는, 영혜의 또 다른 무기는 ‘나무 되기’이다. ‘나무 되기’는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을 꿈꾸는 일이다. 자연은 사회적, 제도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 “상호관계를 맺는 유기체로서 공존하기 때문”이다.⁸⁵⁾ 그러나 「채식주의자」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은 여성과 자연을 접목해 근대 사회의 모든 지배적 논리에 저항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의의로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기로써의 젖가슴, 즉 여성의 생득적·본질적 자질에 근거한 저항은 남성/여성이라는 관계를 자리바꿈한 채 지배와 종속의 구조를 반복한다. 때문에 그녀의 ‘나무 되기’ 역시 실천을 담보하기 보다는 신비로운 정신적 초월에 가깝다. 그러나 「채식주의자」는 한 여성의 정신적 초월에 그치지 않는다. 영혜는 지금까지 그녀가 있어야 할 당연한 자리에서 벗어남으로써 그간 인간 존재의 익숙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 어린아이들이 우글거리고, 맛있는 냄새가 났어. 수많은 가족들이 소풍

84)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 위한 자리,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 그 유일한 중심점에 서야 한다. 요구되는 주체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여 그 자리에 설 때 주체가 된다. 근대적 시선의 체제는 이진경의 논의 참조.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8, 268쪽~293쪽.

85) 이찬규 외,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46호, 2010.

중이었어. 그 광경은 말할 수 없이 찬란했어. 시냇물이 소리내서 흐르고, 그 곁으로 돛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김밥을 먹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고기를 굽고, 노랫소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쟁쟁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아직 내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 헛간 바닥,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었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내 얼굴이, 눈빛이.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분명 내 얼굴이었어. 아니야, 거꾸로, 수없이 봤던 얼굴 같은데,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들.(19쪽)

‘봄날의 나무’, ‘맛있는 냄새’, ‘소풍 중인 가족’, ‘김밥’, ‘고기’, ‘노랫소리와 웃음소리’의 세계는 영혜가 인간으로서 최초로 속한 세계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익숙한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다. ‘피가 묻은 입술과 손’, ‘날고기의 감촉’, 그리고 ‘피웅덩이에 비친 번쩍이는 눈’, 영혜의 모습은 마치 사냥한 고기를 조금 전에 먹어 치운 육식 동물을 연상케 한다.

인간은 고기를 섭취하면서 날것의 감촉을 ‘맛’으로 전환한 유일한 생물이다. 생존을 위해 사냥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존만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도축, 가공을 은폐함으로써 생물-동물과 식재료-고기를 구분했다. 이제 인간은 손, 발, 옷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날고기의 감촉’을 금기시, 억압하면서 육식의 잔인함을 가리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전환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영혜는 인간의 문화로서 육식이 아니라 동물로서 날고기를 탐하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이웃집 고양이를 목 조르고 싶어질 때”, “정육점 앞을 지날 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숨겨져”(42쪽) 올라오는 이 끔찍하고 잔인함을 감각하게 된 것이다. 자기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잔인함,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육식의 감각을 목격하는 것은 몹시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영혜는 ‘도마에 칼질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이 “익숙하지만 낯선”⁸⁶⁾ 감각을 통해 인간이 억압해 온 금기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는 친밀함으로 은닉된 인간 세계의 제도와 규칙을 깨뜨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금기를 깨고 외부에 존재하는 것 또한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과 경계 지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해온 문명, 즉 인간 안의 동물성을 제거해온 역사를 부정하고 야생의 습속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지구가 처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인간과 자연의 화해, 공존’이었기에 영혜의 ‘끔찍함과 이상한’ 감각은 새겨봐야 할 가치가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일은 인간 역시 먹이의 연쇄 관계 내에 평등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자연과의 공존이란 어디까지나 생태계의 최상위에 인간을 두고 있다. 동물은 인간의 먹이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은 결코 동물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발 플럼우드⁸⁷⁾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현재 인간이 신뢰하고 있는 근대적 이성⁸⁸⁾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함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토대로 말한 바 있다. 그녀는 혼자서 강에 나갔다가 악어의 공격을 받는데 악어는 그녀를 오롯이 먹이로만 보고 다가 온 것이다. 한쪽 허벅지가 뜯겨 나가는 상처를 입고 겨우 악어의 이빨로부터 탈출했을 때 그녀는 “복잡한 인간 존재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충

86) 영혜가 느끼는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감각은 낯선 존재로부터 친숙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때 두려움이 시작된다. 프로이트는 이 두려운 낯설음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오래 전부터 친숙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이라 말한다. 인간이 감추고 싶은 “두렵고 낯선(uncanny)” 것은 애초에 인간이 동물과 다르지 않았던, 바로 인간이 거부, 억압했던 자신들의 모습이다.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프로이트 전집 18』, 열린책들, 1997, 99~102쪽.

격적인 몰락”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오직 포식자와 피식자로 존재하는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도 먹힐 수 있는 존재일 뿐인 “무심한 세상”이었다.⁸⁷⁾

영혜가 육식공동체의 질서를 찢어발긴 틈사이로 목격한 세계는 피가 낭자하고 먹이를 향한 육식 동물의 본능 같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 자체’이다. 그것은 인간 세계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가족, 종교와 같은 인간의 믿음, 이데올로기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이다. 「채식주의자」는 그 무엇도 아니하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 어떤 인위적인 정체성을 부정할 때 존재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한 통찰이라 할 것이다.

근대성이란 인간과 자연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었고 인간은 자신들의 언어로 자연을 전환했다고 믿어왔지만 현재 인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이상한’ 세상을 목격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대기, 토양, 대양, 지표 등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유기체 그 자체로서 ‘가이아’⁸⁸⁾의 ‘무심함’이다. 그런 점에서 육식공동체의 기만을 폭로하는 영혜, 인간의 일상을 저지하는 코로나19는 가이아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행해왔던 모든 종류의 분리, 정복과 지배, 그리고 지구를 잠식하는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에 대한 ‘지금 당장 멈춤’이라는 가이아의 뜻이다.

4. 코로나19 이후는 없다

「채식주의자」는 모든 종류의 지배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고통을 오로지 한 여성의 몸뚱이 하나로 감내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누구도 해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생태학적 윤리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아름답다. 대부분 영혜의 나무 되기에서 “공동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희망”을 읽어 내지만 채식을 넘어 거식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육체 언어는 언어가 아니라 꿈과 독백처럼 의사소통에 실패”⁸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영혜의 나무 되기, 꿈과 독백은 애초에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여지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라는 동일성의 규칙,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육식공동체 안에는 영혜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생생하고,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전달할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육식공동체는 그것에서 비껴서는 것을 막고 이탈하는 존재를 끌어들이는 힘만 작동한다. 그러나 영혜를 탈주하게 하는 것은 그녀를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그 힘 때문이었다. 그녀를 공동체 내부에 익숙한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힘이 그녀를 괴물로, 악마로 만든 것이다.⁹⁰⁾

87) 발 플럼우드(Val Plumwood, 1939-2008)는 호주의 여성 인류학자이자 생태철학자이다. 그녀는 호주 토착민과 삶을 함께 하며 동식물과 공생하는 생명공동체로서 생태학 연구에 힘쓴 인물이다. 이 글에서 발 플럼우드의 논의는 유정원의 논문과 그가 플럼우드의 글을 번역한 「악어의 먹이」에 기대고 있다. 발 플럼우드, 유정원 옮김, 「악어의 먹이」, 『몸물림』 제38호, 2015, 유정원, 「자아-타자 간 상호 의존성과 동반자 윤리」, 『생명연구』 제40집, 2016.

88) ‘가이아’이론은 제임스 러브록이 1960년대 지구 유기체 이론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 지구는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존재하고 지구의 정화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후 환경학자들은 가이아를 ‘대자연’, ‘대지의 여신’, ‘어머니로서의 자연’으로 전유했으나 브루노 라투르는 자연과 가이아를 분리한다. 가이아는 “살아있기 때문에 동시에 취약한”, “유한성으로 인하여 지상에 묶여 있는 자들과 운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를 ‘신기후체제’라 선언한 바 있는 라투르는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에서 가이아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권의 원칙을 찾게 해주는 의무를 부과하는 자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지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 온 가이아와 함께」,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9.6 참조.

89)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환경학회, 『문학과환경』 제9집, 제2호, 2010.12, 208쪽.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류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가 주는 이 가르침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는 ‘적’만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적을 악마화하고 축출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또 누군가는 환경, 생태적 차원에서 인간 행위를 반성하도록 촉구하며 기후 변화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상당수 글로벌 기업이 주도⁹¹⁾하는 반성의 실질적 목적은 이 질병을 불러온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도리어 보편적이고 익숙한 자본주의, 글로벌리즘을 회복하는 데 있다.

물론 세계 불평등, 성장 중심주의, 가부장제 하의 여성, 환경의 시장화, 인구 과밀화, 공장형 축산 등 국가-가족-자본 공동체에 기초한 지배의 논리에 대한 반성은 줄곧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계급 해방 이후 자연스럽게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절적으로 보편화된 지식은 ‘지구적인 해결책’을 가로막는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문제를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동시에 전력을 다해서’ 풀어야 한다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채식주의자’는 인간 존재로부터 조금이라도 비껴서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부여받았던 정체성, 즉 인간, 이성, 국가, 국민, 중심, 남성의 자리에서 ‘동시에’ 비껴 서는 일은 그것들이 익숙했던 만큼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천사’의 메시지는 안정과 행복으로 이끄는 평화로운 종소리가 아니다. 지금의 혼돈 상태는 영혜가 보았던, 결코 인간의 말로 해석되거나 전유되지 않는, 기왕의 정체성이 무력해지고 ‘그 무엇도 아닌’ 지점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도래할 공동체란 ‘~이 아니거나 하는’ 영혜의 고통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 마주하고 연대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천사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영혜를 불편해 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고 이상함을 감각하는 일이다. ‘악마’를 제거하고 익숙한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국가-가족 공동체로 상징되는 육식공동체의 오류를 무한 반복하게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상황을 승인, 유지하려는 자본-글로벌리즘의 힘이 지속되고 있는 한, 코로나19 이후는 없다.

90) 코로나19 상황 초기, 비난과 혐오가 집중되었던 것은 ‘문란한’ 동성애자,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고집 센’ 노인, ‘춤추는’ 여성,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외국인)노동자였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국가와 개인, 글로벌 자본과 로컬 경제 사이의 지배와 종속을 유지하려는 힘에 의해 ‘악마화’된 존재들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을 악마화했던 원인에 가당기보다 악마를 응징하고 처벌,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이를 반복하고 있다.

9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만 탄소배출권 매출로 5억 1,800만 달러를 챙겼다. 「머스크도 재미 본 탄소배출권 올 들어48% 올랐다」, <서울경제> 2021.5.5.

참고 문헌

- 한강,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김지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온 가이아와 함께」,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9.6, 253~264쪽.
- 롭 월러스 외, 장자운 외 옮김, 「코로나19와 자본의 순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8권 제2호, 2021.5, 20~47쪽.
- 발 플럼우드, 유정원 옮김, 「악어의 먹이」, 『몸울림』 제38호, 2015, 74~84쪽.
-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환경학회, 『문학과환경』 제9집, 제2호, 2010.12, 193~211쪽.
- 유정원, 「자아-타자 간 상호의존성과 동반자 윤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원, 『생명연구』 제40집, 2016, 17쪽~48쪽.
-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8.
- 이찬규 외, 「한강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연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제46호, 2010, 43~67쪽.
- 장하준 외,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 캐럴 J. 아담스, 류현 옮김,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2018.
-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프로이트 전집 18』, 열린책들, 1997.
- 한강·강수미·신형철, 「한강 소설의 미학적 층위」, 『문학동네』 88호, 2016년 가을.

「코로나19의 양면, 악마적 형상과 천사의 끔찍한 메시지」에 대한 토론문

김주현(인제대)

최근 1년은 거의 모든 학계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번이 기대를 깨며 진화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덕에 아마도 우리는 가장 단기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자본제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산업문명을 근원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희망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김옥선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며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읽힐 만한 텍스트라는 것도 타당하며 코로나와 영혜의 채식을 겹쳐 읽으며 의미를 추적해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완인 듯하여 분석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지만, 아마도 발표문의 의도에 더 가까우리라 짐작되는 바-<채식주의자>를 매개로 한국사회의 전환론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볼까 합니다.

1. 먼저 <채식주의자>가 수용된 맥락을 통시적으로 짚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채식으로 대변되는 문명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품으로 텍스트의 자리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도입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글로벌 식품 시장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집요하게 사용되는 ‘우한 바이러스’와 우한 연구소 유출설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외부(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적을 지목해 잘못을 전가하는 냉전적 사고가 여전히 힘을 발휘함을 보여주는 한편 저개발지를 타자화, 식민화하는 제국주의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선생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미개한 식문화’식으로 몰아가는 서구 자본주의의 책임 전가론과, 우한 시장 내 야생동물 매매에 대한 더 세심한 분석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중국이 근래 유행한 온갖 바이러스 배양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것과 저개발국가의 ‘위생’ 문제를 끄집어내는 (문명화된)우리의 태도가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흐리고 있는지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 <채식주의자>를 인간의 자연 지배와 가부장적 근대성 비판의 서사로 읽으며, 영혜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근대 이성-인간 공동체가 억압한 자연으로 읽어내려면 사회주의/자본주의가 가부장적 근대성에 기초한 개발주의를 공유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채식주의자>의 세계가 어느 지역에나 있는 ‘국가-가족 공동체’를 그리고 있는데도 유독 유럽에서 호응을 얻으며 반향을 일으켜 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 <채식주의자>는 2007년 발표 당시도 그렇고, 2016년 맨부커 수상 후에도 유명세에 비하면 크게 공감받은 작품이 아닙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래 채식이 기후위기를 비롯해 생태적 삶에 호응하는 문화로 수용되는 데는 ‘문명의 대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하는 듯한 코로나 영향이 큼니다. 영혜의 육식 거부를 ‘나무되기’처럼 극단화되어있는 미적 알레고리에서 분리하여, 동일한 근대성이 지배하는 어느 지역에서도 개별자의 채식할 권리와 그것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한 분노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육식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견해는 잡식성인 인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에 ‘강자의 식습관’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혜의 육식 거부를 산업화 이후 반성 없이 오직 서구식 근대화를 추종하기 바빴던 한국사회에 대한 브레이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동물로서 날고기를 탐하는 영혜’가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부분에 대한 해석.(“ 친밀함으로 은닉된 인간 세계의 제도와 규칙을 깨뜨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금기를 깨고 외부에 존재하는 것 또한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발표문의 논지에서 영혜가 깨달은 야생의 습속은 실은 생태계의 그물에서 최상위에 있는 인간의 숙명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또한 먹이일 때만 성립되는 논리지요. 선생님은 이를 “그 무엇도 아니하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 어떤 인위적인 정체성을 부정할 때 존재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한 통찰”로 영혜의 자의식(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혜는 왜 이 숙명을 거부할까요? 단적으로 숙명까지 거부하고 나무가 되어야만 육식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서 오히려 더 큰 존재적 고통을 앓아야 한다면 영혜와 연결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웬만한 타협적 대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터입니다. 이 상황이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에 대한 ‘지금 당장 멈춤’”을 말하는 가이아의 메시지라는 해석에 동의합니다만 영혜의 “누구도 해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생태학적 윤리”가 거식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태학적 윤리를 누가 수용하려 할까요? 우리가 ‘육식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 육식을 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말하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표문의 해석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영혜를 “인간의 말로 해석되거나 전유되지 않는, 기왕의 정체성이 무력해지고 ‘그 무엇도 아닌’ 지점”으로 애매하게 두는 해석이 생기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나무되기는 채식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미학적 상징이라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되나 이 발표문에서는 상징이 아니라 아직 명명되지 않은 어떤 급진적 실천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논문에서 쓴 ‘자연과의 합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어떤 수를 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연과의 합일’,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멈추고 비인간 상태의 언어를 획득하는 것만이 과연 방법인가? 그것이 에코페미니즘인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재고함으로써 <채식주의자>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읽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5. 제목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사의 천사인 코로나19의 악마적 형상과 천사의 끔찍한 메시지를 영혜의 행동에 겹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좀더 선명하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운영 원리 고찰

박지순(연세대학교)

1. 서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대학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나⁹²⁾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실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서, 이른바 ‘원격 교육’의 시대가 급격히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을 의미하는데, 근래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교양 강좌나 외국어 강좌와 같은 사회교육, 방송통신 고등학교나 방송통신 대학교와 같이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학교교육 형태의 방송통신 교육으로 계속 존재해 왔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원격 교육의 정의를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비대면 수업의 성격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초기의 원격 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이루어지며 통신 기술과 기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상호작용이 보조되는 제한된 교육으로 정의되었다(김희선 1984; Moore & Kearsley 1996). 그러던 것이 교수자가 학습 내용과 학습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멀티미디어로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학습(고일상 외 2006),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임철일 외 2012; 한태인 2014) 정의됨으로써 온라인 매체의 기능이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면서(김동심 외 2018; 이영희 외 2020; 강정림 2021) 시공간의 한계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편의성,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연결성,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접근성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대면 수업은 더이상 대면 수업의 차선택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실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이라기보다는 대면 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구현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당면한 과제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19사태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비대면 수업의 진단과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므로, 대면 수업과 그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 운영 방법 등에서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현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

92) 2020년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98개 4년제 대학 중 전면 비대면 수업 운영 대학은 72개교(36.4%),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대학은 30개교(15.2%), 실험, 실습, 실기 수업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은 72개교(36.4%)이다(강정림 2021:3에서 재인용).

상황을 진단하고 비대면 수업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의 운영 원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비대면 수업 상황

2.1. 수업 유형

비대면 수업의 유형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동시성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간 수업과 비실시간 수업, 그리고 혼합형 수업으로 구분된다. 비실시간 수업은 원격 강의의 초창기 형태로서, 교수자가 온라인상에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면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영희 외(2020)에서는 비실시간 수업의 유형을 교수자가 사전에 강의 영상이나 강의 녹음 자료를 제작하여 게시하면 학습자들이 이를 학습하여 주어진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교수자 강의 동영상 유형'과 학습 내용과 관련된 외부 동영상이나 동영상 이외 형태로 된 학습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 자료 중심형'으로 나누었다.

실시간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화상 회의 플랫폼에 동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화상이나 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면 수업과 유사한 교수·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김현주 2020; 조인식 2020), 여러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함께 하는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고립되어 학습을 하는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박상훈 외 2020)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³⁾

<표 1> 비대면 수업 유형

구분	실시간 수업	비실시간 수업		혼합형
		교수자 강의 자료 유형	학습 자료 유형	
특징	교수자와 소통 중심	교수자 강의 중심	학습자 활동 중심	교수자 강의 + 소통
학습 자료	실시간 화상 강의, 자체제작 강의자료	자체 제작 강의 동영상, 녹음 자료, 자체제작 강의자료	외부 자료(동영상, 교재, 읽을거리 등)	동영상(자체 제작 강의 동영상, 외부 동영상), 자체제작 강의 자료
강의 방법	수업 전체를 화상 강의로 진행	교수자의 강의 자료 학습 후, 출석 확인을 위한 간단한 학생 활동 수행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 학습과 학생 활동 수행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동영상을 포함한 자체 제작 자료 또는 외부 자료) 학습 후 화상 강의 및 토론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얼굴 표정과 입모양 확인의 필요성(조인옥 2020:249), 교사의 입 모양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발음 교육의 어려움, 교사에 의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 교사와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기회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교수자의 동영상

93) 박효성(2021), 이영희 외(2020)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강의 또는 강의 음성이 녹음된 PPT 제공 등의 비실시간 수업 방식은 선호되지 않는다(김가람 2021:520). 학습 자료가 될 만한 외부 한국어 강의 공개 강좌의 개발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실시간 수업의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설되는 한국어 강의의 경우 어휘, 문법, 읽기 등의 일부 교과목에 한해 교사의 강의 자료를 사전에 학습하고 실시간 수업을 통해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혼합형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온라인에 동시에 접속하여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한국어 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도 하다(조인옥 2020:263). 그러나 수업이 한국에 있는 교수자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학습자의 경우 한국과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일지는 불확실하다.

2.2. 수업 플랫폼 및 사용 장비

코로나 19 사태 이후인 2020년, 2021년에 발표된 한국어 교육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간 수업에 활용하는 플랫폼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플랫폼은 줌(Zoom)이다(최정선 외 2020:140). 그밖에도 웹엑스(Webex)도 줌 다음으로 여러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⁹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플랫폼인 줌과 웹엑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두 플랫폼 모두 최대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시간 이상의 수업에 이용하려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콘텐츠 공유, 화이트 보드, 녹화, 채팅이 가능하다. 웹엑스의 경우 투표 기능, 개인룸 잠금 기능을 제공하며, 줌은 가상 배경 설정과 내 모습 수정 필터 기능, 소그룹 회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줌의 특징이다.

이들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교수, 학습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썩 높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회의를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언어 수업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김가람(2020:538)에서는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줌의 한계로 2차원 평면의 화면 구현으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수업의 실재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 학습자의 참여나 상호작용, 학습 상태 점검과 피드백을 지원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실시간 수업 접속에 사용하는 장비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조인옥(2020:250)의 조사에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66.3%,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경우가 16.4%로 나타났다면, 최정선 외(2020b)에서는 절반 이상인 58.3%의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수강하며 데스크탑과 태블릿PC를 이용하는 학생은 각각 4.2%,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수업 방식

1) 수업 자료

94) 그밖에 구글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라인 워크스(Linewalks)와 같은 플랫폼은 집합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그룹 토론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면 수업의 교재를 그대로 교수·학습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교재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 기능으로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PPT의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대면 수업에서 사용하던 기존의 PPT, 음원, 동영상 등의 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민 2020:191). 판서의 경우 공유된 PPT에 메모하는 방식이나 줌의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 판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조인옥 2020:248). 부교재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서처럼 학습자에게 적시에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린터가 없거나 시간적 여유 등의 문제로 학습자가 자료를 인쇄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교수자가 자료를 인쇄하여 학습자에게 발송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김혜민 2020:191). 이 때문에 학습자들은 수업 자료에 대한 불편이 수업 내용 이해의 원인이라 응답하는가 하면 전체 학습 자료를 개강 전에 미리 전달 받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인옥 2020:253-254).

그 외에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 부족에 대한 불만과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팟 캐스트나 KMOOC 등의 보충 학습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조인옥 2020:245).

살펴본 연구들을 통해 모든 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 방식이 급작스럽게 전환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능한 대면 수업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수업 자료 준비 역시 종이 교재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등의 매체 형식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기기의 문제로 인한 교사와 학습자 음성 전달의 문제라든지 소리 겹침이 허용되지 않아 실시간 상호작용이 일대일로 제한되는 문제 등 비대면 수업 환경의 한계로 인해 정해진 수업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수행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의 줌 수업 경험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면 수업에 맞게 제작된 수업 자료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그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교육 자료의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만을 위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최정선 외 2020a:162).

2) 수업 활동

현행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은 수업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업 활동 역시 대면 수업과 최대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의 전환을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혜민 2020:189). 조인옥(2020:245)에 따르면 사실상 교육 기관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대면 수업 환경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며, 수업 활동 역시 줌의 기능을 활용해 최대한 교실 수업과 다름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는 특히 말하기 수업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는데, 최정선 외(2020a)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비언어적 요소로 소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충분한 연습이 어렵다는 점, 일방향 수업에 더 적합하다는 점 때문에 대면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말하기 수업은 대면 수업과 다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수업에 적절한 분량과 과제가 따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경험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을 매우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마이크나 스피커, 인터넷 연결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발화 빈도가 낮아지고, 일부 학생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기도 하므로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과 질문 위주의 교사 중심 발화 구조로 수업이 구성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가람 2021:534). 즉,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대면 수업과 동일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그 구조가 제시와 연습 단계에만 치중되어 대면 수업에서와 같이 활용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습한 언어 지식을 내재화하는 데 활용 단계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언어 수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김혜민 2020:189).

3) 상호작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다양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의 부재이다(이은성 2020; 조인옥 2020; 최정선 외 2020a; 김혜민 2020). 온라인 플랫폼은 애초에 회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히 상호작용을 핵심적인 요소로 하는 언어 수업에서 이 같은 점은 매우 치명적이다. 우선 한국어 수업에서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교사와 교사가 지목한 학생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만이 원활하고 교실 수업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대다의 상호작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가람 2021:529). 이는 여러 명의 학습자가 동시에 말하는 경우 음성이 울리거나 충돌하여 알아들을 수 없어 누가 어떤 대답을 했고 제대로 발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줌의 소그룹 회의실 기능을 통해 짝활동이나 그룹 활동과 같은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학습자 간의 친밀감의 부재로 발화 비중이나 상호작용의 복잡성 면에서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람 2021:535).

3) 피드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과제에서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조인옥 2020; 김가람 2021; 김지현 외 2021; 최정선 외 2020a). 쓰기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서의 쓰기 역시 시차를 두고 서면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체의 변환과 시차를 동반하기 마련인 비대면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쓰기 피드백은 학습자가 쓰기 과제를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면 교수자가 이를 출력해 피드백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쓰기 과제 자체를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수행하고 이를 교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교사가 역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말하기의 경우는 대체로 즉각적인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인터넷과 마이크나 스피커 기기 등의 문제로 인해 음성적으로 정확한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므로 교사가 학습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엉뚱한 피드백을 주거나, 학습자가 반복 요구나 명료화 요구와 같은 교사의 피드백을 잘못 이해하여 피드백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최정선 외(2020a:158)의 조사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말하기 피드백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19.1%)보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36.2%)이 더 많았다.

짝활동이나 그룹 활동에서도 교사의 피드백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음성이 충돌하고 누가 발화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그룹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교사는 소회의실을 오가며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데, 소회의실을 방문해야만 피드백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 시간 비용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다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사의 피드백을 참고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문제를 가진 학습자마다 피드백을 반복해야 하므로 피드백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 피드백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교수자가 줌에 접속해 있으면 원하는 학생들이 접속해 면담을 하거나(김혜민 2020:190), 수업 중에 학습자들이 말하기 활동을 녹음하여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전체 학생들과 함께 들으면서 교사, 동료, 자가 피드백을 실시하는 방식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지현 외 2021:28).

4) 평가

형성 평가나 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는 지필고사의 경우 시험지에 인쇄하던 문제를 워드 프로세서나 PPT에 작성해 화면 공유를 하고, 학생들이 답안지를 종이에 작성하면 이를 촬영해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 또는, 기관의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제공하는 퀴즈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말하기 평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모두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뢰도의 문제가 이슈가 될 뿐 아니라 과연 이러한 평가 방식이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인가라는 점에서 타당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험 방식이 낯설어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⁹⁵⁾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화면의 텍스트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휴대 전화로 디지털 시험에 응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어휘, 문법, 읽기 시험에서는 지필 시험에서와 같이 텍스트에 표시하거나 메모하는 등 읽기 전략을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전 연습을 충분히 실시하고, 김혜민(2020:192)에서 실시한 대로 시험 문항의 수를 줄이고 시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방식을 전환하여 퀴즈 등의 수시 평가나 포트폴리오 등 수행 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행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과 최대한 유사한 교수 학습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급격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발음, 어휘, 문법, 문화 등의 내용 수업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지만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4. 만족도 및 성취도

그렇다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과 최대한 유사한 교수·학습 상황으로 한국어

95) 최정선 외(2020b:266)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에서 21.9%의 학습자가 중간시험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를 평가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점으로 보고 있다.

수업을 실시한 결과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초, 중등 학생들의 학업 부진은 학력 평가로 가시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는 대면 수업 대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수업 시수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금, 여기의 맥락이 아니고서는 집중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습 실재감이 떨어지는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탈맥락화가 가능한 성인이고 수업 결손 없이 대면 수업 시와 동일한 시수를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과는 경우가 다르므로, 대면 수업과 유사한 교수·학습 상황으로 실시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효과는 기존의 대면 수업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의 교과목과 달리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한 학습의 요소이자 학습 목표로 하는 언어 수업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훌륭한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어려운 온라인 수업은 그 학습 효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학습 효과를 만족도와 성취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 만족도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데, 연구들을 살펴보면 만족도가 대체로 높지 않고 대면 한국어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옥(2020:254)의 조사에서는 줌을 사용한 교수자의 64.6%, 학습자의 3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최정선 외(2020b:152)에서는 웹엑스를 사용한 교사의 27.9%, 최정선 외(2020a:259)에서는 학습자의 36.5%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성(2020:284)에서는 학습자 만족도를 전반적 만족도, 매체 만족도, 의사소통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모든 영역에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만족’에 근접하여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은성 2020; 조인옥 2020; 최정선 외 2020a; 김혜민 2020), 그밖에 인터넷과 기기의 안정성 문제(조인옥 2020; 최정선 외 2020a; 김혜민 2020),⁹⁶⁾ 수업 내용 이해 정도 확인의 어려움(김가람 2021; 최정선 외 2020a)⁹⁷⁾과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조인옥 2020; 김가람 2021; 김지현 외 2021; 최정선 외 2020a; 김혜민 2020), 수업 집중의 어려움(김혜민 2020)을 꼽았다.

한편,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장소에 관계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수업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소극적인 학습자들도 수업 참여도가 높다는 점 등이었다(조인옥 2020:256).

2) 성취도

기존의 실시간 비대면 수업 및 혼합형 수업의 성취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대면 수업과 성취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남옥 2014; 이옥형 2008) 한국어 수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검증이 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중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96) 최정선 외(2020a)에서는 교수자에게 듀얼모니터와 전자필기시스템이, 학생에게도 적절한 기자재가 필요하며 기기의 성능이 좋아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상에서는 판서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온라인 수업 환경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97) 최정선 외(2020a)에서는 학생의 표정을 통해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끄거나 해상도의 문제로 표정을 자세히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국어 수업의 학업 성취도를 연구한 이은성(2020:283)이 유일하는데, 대면 수업을 진행한 2019년도 학습자 집단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2020년도 학습자 집단에 대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학업 성취도의 측면에서 동질 집단으로 검증된 두 집단의 두 차례의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앞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뿐 아니라 비실시간 수업과 실시간과 비실시간 혼합형 수업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교육 효과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각 유형별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 방법 개선 및 교수·학습 목적에 따른 효율적인 수업 방식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운영 원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운영 원리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에 대한 실재감을 높여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를 토로하였다(김혜민 2020:195).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환경 자체를 가상공간으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현재 놓인 물리적인 실제 세계에 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수업에의 집중 및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이영희 외 2020; 임지은 외 2020; 박효성 2021). 이러한 점은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자들의 실시간 비대면 수업 참여도와 발화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다(최정선 외 2020b:266-267). 학습에 대한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학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과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공간에 혼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극복하고 나의 발화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자의 개별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의 통로, 학습자 간 교류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데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채팅 기능이나 별도의 SNS나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 간의 친밀도를 향상시켜 학습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교사와 개별 학생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 외에는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학습자 집단의 유대감을 높일 뿐 아니라 학습한 언어를 내재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줌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도 학습자들 간의 친밀도가 부족하여 학습자들의 발화량이 부족하고 상호작용이 매우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친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철일 외(2013)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공유하는 방법을, 안재린 외(2018)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 SNS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실시간 비대면 수업 환경에 적합한 교수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급작스럽게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대면 수업에 맞추어 제작된 수업 자료를 그 형식만 바꾸어 비대면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으로 대면 수업 자료의 모든 활동을 비대면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고, 인터넷과 기기의 문제로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교사의 피드백에

도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핸드아웃과 같은 부교재 공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 비대면 환경에 적절한 활동과 분량, 형식으로 수업 자료를 재·제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화되는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교수자와 다른 학습자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혼자 학습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실제적인 학습 환경으로 인식하고 수업에 몰입하는 데에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가 유리하다. 김혜민(2020:19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 수업과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에 대해 문항 수가 줄었음에도 어려웠다는 응답이 있었고, 수업 속도에 대한 반응에서 너무 빠르다는 응답부터 느리다는 응답까지 그 편차가 큰 점을 두고 학습자 간의 학습 능력의 차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습이 부진한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 외에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여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학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가 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는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자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업 시간만으로 부족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는 인터넷과 기기의 문제, 학습자들의 소극적인 참여,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업 구성이 교사 주도의 제시와 연습 단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면 활용 단계까지 충실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학습자 변인으로 인한 참여도는 교사의 수업 설계만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려우니만큼, 수업 시간 외에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숙제 부과, 동아리 개설, 언어 교환 주선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4. 결론

이 연구는 급작스럽게 시작되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주어진 기간과 방학 중이라는 한계 때문에 직접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고, 2020년 이후 연구된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하여 현황 분석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가 많지 않아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실시간 비대면 수업은 아무리 그 환경을 비슷하게 하여도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 희미해 보이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윤곽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점점 뚜렷한 실체가 되어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에 한 발자국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남옥(2014), 온-오프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학 개론> 강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1), 우리말교육현장연구학회, 181-210쪽.
- 강정림(2021), 실시간 원격화상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온라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일상·최수정·정경호(2006), 웹 기반 원격교육에서 학습자 몰입의 영향요인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6(1), 83-108쪽.
- 김가람(2021),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상호작용 특성 연구-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수업을 대상으로-, 한글 82(2), 한글학회, 519-545쪽.
- 김동심, 이명화, 이영선 (2018), 고등교육에서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공학연구 34(4), 901-927쪽.
- 김보영·한승우(2020),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연구, 교양학연구 13,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7-31쪽.
- 김지현·조희영(2021), 피드백을 활용한 비대면 한국어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 교사교육연구 60(1),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1-36쪽.
- 김현주(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인문사회 21(5),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679-1692쪽.
- 김혜민(2020), 독일 대학 교육에서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 운영 사례와 시사점-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73-207쪽.
- 김희선(1984),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에 관한 문헌 연구: 현황 및 매체활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훈·김은협·김태우·유미경·양선환 (2020), 원격수업 실행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안재린·심윤진(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스타그램 활용 가능성 탐색-미국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5~92쪽.
- 이영희·박윤정·윤정현(2020), COVID-19 대응 대학 원격강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 탐색, 열린교육연구 28(3), 한국열린교육학회, 211-234쪽.
- 이옥형(2008), 블렌디드 러닝과 면대면 수업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15(1), 한국청소년학회, 1-27쪽.
- 이은성(2020), 실시간 온라인 화상 수업 효과 연구-한국어 학업 성취도와 학습자 만족도를 기준으로-이중언어학 81, 269-287쪽.
- 임지은, 이민혜 (2020), 온라인 학습자가 인식하는 실재감이 자기조절효능감과 주도적 참여를 매개로 성취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2, 461-485쪽.
- 임철일·김혜경·김동호(2012), 글로벌 공학교육의 원격화상강의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분석,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5(4), 66-75쪽.
- 전미숙, 김동휘(2003), 실시간 원격화상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 14(3), 13-28쪽.
- 조인식(2020),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조인옥(202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와 개선 방향-한국어 교육기관의 전면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 241-265쪽.
- 최정선·권미경·최은경(2020a),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81, 동악어문학회, 135-168쪽.
- 최정선·권미경·최은경(2020b),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7(2), 247-278
- 한태인(2014), 이러닝산업 유통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 83-94쪽.
- Moore, M. G., & Kearsley, G. G. (1996), Distance education: A system view, Wadsworth.

[주제토론] “실시간 비대면 한국어 수업의 운영 원리 고찰”에 대한 토론문

이연정(서원대학교)

이 발표문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 운영 방법 등에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대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및 수업의 운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학습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들 간의 소통 및 그들 간의 친밀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수업에서 사회의실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사회의실 운영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습자 개인 성향에 따라 사회의실 운영을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의실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 교수자가 모든 학습자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멘티미터(mentimeter)’라든가 ‘패드렛(padlet)’ 등을 줌 수업에서 병행하여 활용하는 교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 솔루션에 대한 자료는 온라인 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 비대면 수업의 평가 방식에 대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 및 개선 문제는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발표문에서 간단히 언급하셨습시다만, 학습자의 성취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하면서 교수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발표자만의 평가 방식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비대면 수업의 진단과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그 점에서 본 발표가 가지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것, 이를 수업에 적용해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수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에 대하여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 고전문학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해석한 황진이 문학과 캐릭터 연구

◇ 현대문학

정미경 소설 연구를 위한 초석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

◇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정 발화 비교
-기쁨 발화, 음성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국어학]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에 대하여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에 대하여

도재학(경기대)

1. 서론

- 연구 목표: 1930년대까지만 해도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를 공히 가리키기도 했던 ‘로맨스, 낭만, 로망’의 개별적 의미 특성과 분화의 맥락 조사
 - 분화된 의미가 두드러지는 맥락은 무엇인가
 - 분화된 의미가 보편화/일반화되는 대략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단어의 성립 과정 및 최초 용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연구 배경: 동의 충돌 혹은 유의 경쟁의 결과 현재는 의미 영역이 달라졌는데, 의미가 분화되기 전의 모습, 즉 각 단어의 다의성과 의미가 중첩되었던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함.
 - ‘낭만 로맨스의 로망’ / ‘로맨스의 낭만에 대한 로망’
(※ 위 표현들이 ‘역전 앞에서 보자’, ‘공이 라인 선상에 떨어졌다’ 등의 표현처럼 동의 중복지럼 이해되는가? 발표자에게는 아닌 듯함. 분명 현대국어에서는 낭만, 로맨스, 로망이 서로 다른 개별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 이것이 연구의 출발점)
 - ① 로맨스: 연애 사건, 사랑 이야기. 영어 romance의 음차어
 - ② 낭만: 감상적인 분위기. 영어 romanticism을 낭만주의, romanticist를 낭만파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것으로, 2음절 한자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명사 어근으로 재분석된 형태로 추정(도재학 2020: 219-220)
 - ③ 로망: 소망, 이상, 동경. 명사 어근으로 재분석된 ‘浪漫’의 일본어식 독음 ‘ロマン’을 그대로 표기한 것(박효경 2019: 29; 도재학 2020: 229-230)
- 연구 방법
 - 동아일보 1920년 3월 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
 - ① 1920~1950년: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검색 결과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자료
 - ② 1946~2014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인문학센터에서 구축한 <동아일보 코퍼스>와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 및 용례
 - <동아일보 코퍼스>의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를 통해, 문장 단위에서 공기어를 추출함. 즉, ‘로맨스, 낭만, 로망’이 포함된 문장에서 확인되는 실사(實辭), 그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뽑은 것
 - <소년>(1908-1910), <청춘>(1914-1918), <창조>(1919-1921), <백조>(1922-1923), <페

허> 및 <폐허이후>(1920-1924)의 글이 포함된 <한림대 근대 문예지 코퍼스>

2. 본론

2.1. ‘로맨스’의 시기별 용례와 특징

2.1.1. 1920년대~1940년대 용례 분석

- 총평: 1920년대에 이미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고, 더러 ‘낭만 혹은 낭만주의’로 해석되는 용례들이 보임
 - ‘애정담, 무용담을 중심으로 하는 통속 소설’의 용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통속적 이야기’라는 뜻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듯함
 - 그런데 그 통속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남녀인 경우 그 의미의 범위가 연애 사건 혹은 사랑이야기로 제한되는 것
 - 1938년 2월 9일 ‘코메디·로맨스物’ 및 1939년 1월 22일 ‘로맨스 映畵’ 등 ‘로맨스 OO’이라는 구성에서 장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로맨스’가 확인됨
- 수집한 총 용례 153개
 -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맨스’ 제2번 F 장조 작품 50은 제외
 - 화재가 발생한 가게 이름에 사용된 ‘로맨스’는 제외

구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용례 수	39개	106개	8개
의미	통속적 이야기 23개(59%)	통속적 이야기 47개(44%)	통속적 이야기 1개(12%)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 16개(41%)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 52개(49%)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 7개(88%)
	낭만, 낭만주의 0개	낭만, 낭만주의 4개(4%)	낭만, 낭만주의 0개
		중의적(낭만주의와 통속적 이야기) 3개(3%)	

- 1920년부터 1940년까지 30년 사이에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는 있을 듯함. 아래 통속적 이야기 부분의 [참고]
- 1940년대 이후에는 낭만 및 낭만주의로 쓰인 용례는 보이지 않음. 즉 로맨스는 1930년대에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통속적 이야기

- ① 법정 로맨스, 상표의 로맨스, 산해(山海) 로맨스, 야구 로맨스, 바다의 로맨스
- ② “이番 바다와山の 『로맨스』를 募集한結果 應募된原稿의 數가만키는하였습니다 만은 대개는 『로맨스』라는 뜻을잘못알으시고 山과바다의風景에對한原稿를 보내였습니다 다시말하자면 山과바다의傳説과 情話였습니다.” (1924년 8월 11일. 山海로맨스發表【其一】)
- ‘전설’과 ‘정화’((남녀가)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 즉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진 이야기를 가리키기 위해 ‘로맨스’라는 단어를 썼음이 확인됨

[참고] “로맨스(Romance) 라면 요사이는 흔히戀愛에 關한 情話같은것에만 局限되어 쓰이는모양이나 本來의 意味는 決코 이런 것이 아니다. 傳說같은 奇想天外하고 武勇談같이 莊嚴한情熱的이고 繪畫처럼 華麗한것 等等이야말로 로맨스의本來의 意義 일것이다.戀愛가로맨스性을 가지는것도 이러한것들의한 屬性으로서뿐 可能한것일 것이다. 따라서 로맨스는一般的意味로보면 “情熱的인이야기”라할수있다. 同時에 이것에는 空想도多分히內包되지만 情熱이 高調에達하면 空想도안생길수가 없는것이다” (1934년 11월 30일. 浪漫과寫實)

※ 위의 1924년 ②번 예와 비교해 보면,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의미가 ‘전설’보다는 ‘정화’에 국한되어 쓰이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

- ① “어엿분녀자에게 흔히잇는 **로맨스**는 그에게도업지못하였스며 그의뒤를따르는 남자가 만헛섯다” (1926년 1월 22일. 반복창씨부인 김후동씨)
- ② “『썸·썸』 中에는 『타이피스터』인一女性과『레디오』職工인一男性間에 發生한『**로맨스**』—同棲—生男의經過를 그들이呼吸하며 生活하는바社會와世界를背景으로 表現하였다” (1931년 7월 27일. 『썸·썸』이란무엇?)
 - 통속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남녀인 경우 그 의미의 범위가 연애 사건 혹은 사랑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낭만, 낭만주의

- ① “휴머니즘의精神에依한 크래식칼한 人間타입이追求되든時代 文學에잇어는 **로맨스**文學에 依하여 近代의散文文學이 發芽되려는 時代이후의 모든作家에잇어 그들의優秀한作品들의 共通된 性格이아니엇든가한다” (1934년 5월 30일. 人間探求의 途程)
 - ‘근대의 산문문학의 발아’라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로맨스문학은 낭만주의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로맨스 OO’이라는 구성이 주목됨. 나중에 장르 명칭을 표시하는 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됨
- ② “亦是 外部의 迫害에藝術을 破滅當한 한詩人의 悲慘한 追憶을말하야 **로맨스**와 現實의綜錯과 靈과肉에서 分裂되는 生活의苦惱를 表現하랴한 作品이다.” (1935년 11월 23일. 現代中國受難期의 劇作家 田漢과그의戲曲을論함)
 - 서로 대비되는 낭만주의와 현실주의가 착종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면 로맨스는 낭만주의로 볼 수 있음
 - 혹은 문예사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상(感傷)(혹은 이상(理想))과 현실을 대비한 것으로 보아 낭만으로 볼 수도 있음

③ “『大金剛山譜』는 우리가갓인 世界的舞姬崔承喜女史를主演으로하여 朝鮮의 風土의 美麗色을 背景으로崔女史의獨特한 藝術性和 **로맨스**를 描寫한 作品으로 米리부터 一般팬들에게 一大썸세이썸을 일으키고잇든 作品이다”(1938년 1월 26일. 崔承喜女史의主演인 大金剛山譜)

- 예술성과 로맨스가 함께 거론되었음. 대금강산보가 조선을 대표하는 주요 장소를 배경으로 두고 최승희의 춤을 담은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속적 이야기로 해석되는 않음. 예술성과 대비되는 것으로는 서정성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낭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④ “썸 프손夫人이 四十의 老齡의 몸으로 世紀의 戀愛에成功하면서 부터서는 『人生의 **로맨스時代**』라는것이 四十代라고하게 되고말었다”(1938년 1월 27일. 女優들을늘게 맨든 썸프손夫人)

- 1937-1940년 사이, ‘낭만시대’라는 표현이 더러 등장함. 로맨스시대는 낭만시대로 이해해도 될 듯함.
- 여기서도 ‘로맨스 OO’이라는 구성이 주목됨

참고1. “일즉이 浪漫時代라는것이 잇엇다고 하드라도”(1937년 7월 10일. 文藝時感)

여기서 ‘낭만’은 ‘낭만주의’의 의미

참고2. “나는 내대로의 浪漫時代가 잇엇으니”, “나의 浪漫時代가 아닐까 한다”, “나는 나의 浪漫時代를 이글을 쓰려고 回想하매”(1937년 8월 13일. 나의 修業時代)

여기서 ‘낭만’은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

참고3. “映畵의 浪漫時代”(1939년 3월 28일. 草創期の 秘話 映畵篇)

여기서 ‘낭만’은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

참고4. “여성의二十대란 감격의 낭만시대(浪漫時代)이지만”(1940년 4월 2일. 스물때를 말하는 金活蘭氏)

여기서 ‘낭만’은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

• 낭만주의와 통속적 이야기의 중의성이 간취되는 예문

- 문학 작품이나 문단에 대한 평론 성격의 글에서, 문예사조를 대비하는 데에 쓰인 ‘로맨스’가 더러 낭만주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즉, 통속적 혹은 사랑 이야기의 의미로 이미 널리 쓰이던 로맨스는 상당히 제한적인 레지스터에서 낭만주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듯함

① 『안도니·애드버스』는 昨年度最大收穫의 하나라는 評을 듣는 千二百頁 五十萬語의 大作이다. 이것은 中世期末의 伊太利를 背景으로한 『안도니』의 어머니의 戀愛譚으로 시작되어 時代는 佛蘭西革命, 나폴레옹을 거쳐 부르조아民主主義時代의 初期에까지

미치고 舞臺는 歐羅巴, 亞弗利加, 米大陸에 亘한 浩瀚龍大한 冒險談으로 **로맨스**의 興趣와 리얼리즘의 事實感이 破綻없이 結合된 佳作이라한다.

- ‘로맨스의 흥취와 리얼리즘의 사실감’이라는 구성에서, 낭만주의 對 리얼리즘의 대비를 떠올릴 수 있음
- 한편 ‘안도니의 어머니의 연애담으로 시작되어’라는 내용을 통해 사랑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음

② “相對便이없고서는 싸움할 수가 없는것과같이 相對者가없고서는『古典的』藝術作品的生産도 不可能한 것이다. 藝術家 혼자만 으로는 不充分하다. 그러므로 自由奔放했던 『로맨스』의世紀—로맨스 의『懊惱』—를 經過한今日の 一般公衆의現狀을 불진댄 가장 寬大하게말해서 『古典主義』는 遲遲한 『便秘的』生長에 不過하다는 事實 에 누가 새삼스럽게 놀래겠느냐?” (1934년 12월 18일. 英國에잇어서의 古典主義復興)

- 글 전체에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를 대비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로맨스의 세기를 거쳐 고전주의가 다시 부흥된다는 맥락을 볼 때 ‘로맨스’가 낭만주의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글 전체에서 ‘낭만주의, 낭만적’ 등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로맨스’를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의 ‘고전적 예술작품’과 ‘자유분방했던 로맨스’가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면 통속적 이야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

2.1.2. 1950년대 이후 시기별 공기어 특성 분석

- 총평: 1950년대 이후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가 상당히 일반화된 듯하고, 영화, 드라마, 소설 등 장르를 구분하기 위한 용법도 확립됨. 특히 장르 구분의 용법은 1980년대 이후 명확해짐.

- ‘OO의 로맨스’이면 연애 혹은 사랑의 의미, ‘로맨스 OO’이면 장르의 의미
- 공기어의 수요의 증감이 있음(연대별로 17-17-15-14-22-24-19)
(이에 비하면 낭만은 쑥 증가하는 경향. 연대별로 11-16-21-24-25-26-25)
- 공기어의 목록 또한 많이 바뀜.

① 모든 시기에 걸쳐서 공기어 목록에 포함된 경우는 ‘결혼, 사랑, 영화, 이야기, 작품’ 등 5개 뿐(총 31개 중 16%)

② 공기어 목록에 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감독, 대령, 드라마, 러브, 밤, 배경, 세기, 시리즈, 여성, 영국, 영화제, 작가, 주인공, 출연’ 등 14개(총 31개 중 45%).

③ 공기어 목록에 포함되는 시기가 3개 이하인 경우가 ‘공주, 남, 남자, 대령, 불륜, 빠빠, 시리즈, 아거리트, 영화제, 청소년, 하이틴’ 등 11개(총 31개 중 35%)

- ‘로맨스’와 관련하여 관심 혹은 주목을 받은 것이 꾸준히 바뀌어 왔다는 것. 모든

시기에 걸쳐 공기어 목록에 포함된 경우 중 ‘결혼, 사랑, 이야기’는 ‘로맨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화, 작품’은 장르 구분의 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모든 시기에 등장하는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결혼	[5위] 3.343	[11위] 2.647	[4위] 4.005	[7위] 3.016	[11위] 3.070	[16위] 3.383	[17위] 2.538
사랑	[8위] 2.848	[6위] 3.973	[1위] 4.995	[2위] 4.463	[2위] 7.458	[2위] 8.644	[3위] 7.049
영화	[4위] 3.770	[2위] 4.958	[3위] 4.009	[6위] 3.072	[1위] 8.407	[1위] 11.411	[2위] 7.890
이야기	[14위] 1.902	[7위] 3.675	[11위] 2.735	[11위] 2.277	[16위] 2.638	[9위] 4.643	[14위] 3.146
작품	[15위] 1.774	[12위] 2.486	[10위] 2.889	[12위] 2.202	[10위] 3.158	[14위] 3.880	[11위] 3.837

- 꾸준히 상위에 있는 공기어는 ‘영화’와 ‘사랑’뿐. 영화에서 다루어진 소재로서 혹은 장르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 ‘로맨스’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사랑’은 ‘로맨스’의 대표적인 표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결혼’은 1990년대 이후로 하락 추세를 보임. 로맨스의 귀결이 결혼이 아니게 된 경향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로맨스’와 관련하여 ‘결혼’이 덜 현저한, 관심사가 적어진 개념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음
- ‘이야기, 작품’은 꾸준하기는 하나 공기어 순위로 보면 비교적 낮은 순위로 지속됨. ‘사랑’ 및 ‘영화’와 함께 연상되고 부차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감독’은 공기어 순위가 연대별로 7-3-9-0-6-10-15위, ‘작가’는 공기어 순위가 연대별로 13-15-0-0-8-11-6위로 비교적 꾸준한 편. 이 또한 ‘이야기, 작품, 영화’와 함께 연상되는 것으로서 ‘로맨스’의 장르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장르를 가리키는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드라마	[10위] 2.631	[9위] 2.946	0	[8위] 2.738	[15위] 2.684	[4위] 7.016	[4위] 6.506
소설	0	0	0	[1위] 5.596	[4위] 6.634	[3위] 7.980	[1위] 9.218

- ‘영화, 드라마’라는 영상 중심의 장르의 내용적 특징을 가리키던 것이 1980년대 이후에는 활자 중심의 ‘소설’의 특징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그 순위와 관련성의 강도(t-score)도 상당히 높음

• 특징적인 공기어

- 1980년대 ‘청소년’이 3위(4.448), ‘하이틴’이 4위(3.872)로 반짝 등장. 당시 청소년들의 ‘하이틴 로맨스 소설’의 소비가 사회적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이후 꾸준히 확인되는 ‘남, 불륜’도 흥미로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함

2.2. '낭만'의 시기별 용례와 특징

2.2.1. 1920년대~1940년대 용례 분석

- 총평: 1920년대부터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낭만주의'를 가리키는 용례도 상당히 많이 확인됨. 1940년대까지 두 의미의 중의적인 맥락도 소수이지만 확인됨
 - 형태는 낭만 단독형, '낭만 OO' 구성, 형용사 낭만하다가 보임. 단독형과 '낭만 OO' 구성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형태. 낭만하다는 잠시 쓰이다가 쇠퇴한 것으로 추정
 - 주로 문예를 다루는 기사에서 쓰였는데, 1934년 이후 기행문에서 개인의 심경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낭만'이 더러 사용되고, 그 이후 문예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 듯함
- 낭만이 하나의 자립 명사로서 사용된 용례(도재학 2020: 227)
 - 1922년 <백조> 제2호 박종화의 月評에 나온 회월 박영희의 시 '微笑의 虛華市'에 관한 평가 중 "빈 틈 없이도 잘 조화된 **낭만**과 상징의 노래이리라 하였다."
 -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약어로 사용된 '낭만'과 '상징'이며, 의미도 문예사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러나 여기서 '낭만'은 하나의 자립 명사로서 '감상적인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이 있음
 - 이후의 모든 용례들이 낭만주의의 약어로서의 낭만이거나, 혹은 감상적인 태도/분위기를 표시하는 것임
- 수집한 총 용례 127개
 - 낭만주의, 낭만적, 낭만파, 낭만좌(극단)은 제외하였음

구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용례 수	9개			97개			21개		
의미	감상적 태도/분위기 7개(78%)			감상적 태도/분위기 44개(45%)			감상적 태도/분위기 11개(52%)		
	낭만주의 2개(22%)			낭만주의 49개(51%)			낭만주의 9개(43%)		
				중의적(낭만주의와 감상적 태도/분위기) 4개(4%)			중의적(낭만주의와 감상적 태도/분위기) 1개(5%)		
형태별 의미	단독형	전체	7개(78%)	단독형	전체	50개(52%)	단독형	전체	6개(29%)
		감상적 태도/분위기	6개		감상적 태도/분위기	28개		감상적 태도/분위기	3개
		낭만주의	1개		낭만주의	18개		낭만주의	2개
	'낭만 OO' 구성	전체	2개(22%)	'낭만 OO' 구성	전체	45개(46%)	'낭만 OO' 구성	전체	11개(52%)
		감상적 태도/분위기	1개		감상적 태도/분위기	14개		감상적 태도/분위기	4개
		낭만주의	1개		낭만주의	31개		낭만주의	7개
				낭만하다			낭만하다		
				감상적 태도/분위기 2개(2%)			감상적 태도/분위기 4개(19%)		

- 1920년부터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음
- 1940년대까지도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와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중의성이 확인되는 듯함. 중의성은 단독형으로 쓰였을 때만 확인됨. '낭만주의'의 약어로서 낭만이

쓰였다는 것을 보여줌. 1922년 <백조>의 맥락과 동귀.

- 낭만시, 낭만거장, 낭만경향, 낭만문학, 낭만부대, 낭만시기 등 ‘낭만 OO’의 단어 혹은 구 형태가 다수 보이고, 낭만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듯함. 그러나 어느 한 의미와의 관련성이 특별하게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 현대국어의 ‘낭만적이다’ 정도로 해석되는 ‘낭만하다’가 소수 보이는데 이 시기 잠시 등장했다가 세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감상적 태도/분위기

- 거의 대부분이 아래 ①과 같은 문예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임
 - 그런데 ②(동해 갈마반도), ③(송전해변), ④(금강산) 등과 같은 기행문에서 개인의 심경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낭만’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이하게 주목됨. 1940년대가 되면 ⑤(봄철 창경원 벚꽃놀이) 등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서술하는 데에도 쓰임. 추경건대, 기행문으로부터 촉발하여, 소설, 수필, 시, 봄풍경 보도 등으로 장르가 다양화된 것으로 보임
 - ⑥과 같이 문예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기사에 쓰이는 것도 주목됨
- ① “이近來新文藝의傾向으로는 形式보다內容, 浪漫보다現實, 人工보다自然을, 重히ניה고 힘쓴다” (1926년 12월 5일. 時調란무엇인고)
 - ② “하늘과바다가 한개의線으로 어울린곳에서 갈매기가 날아올때푸름을 먹고사는이浪漫의새 보라!” (1934년 7월 19일. 東海葛麻半島의하로)
 - ③ “그神秘的인 하—모니—에서 바다松田은 文字 그대로의 浪漫을 永遠의彼岸으로 寫實하고 잇었다” (1937년 7월 29일. 避暑地通信 松田海邊)
 - ④ “이밤같이 現實에對한 浪漫的 抗爭이甚한때를 나는 일즉이 가져보지못하고 잇다” (1937년 11월 11일. 金剛紀行)
 - ⑤ “높고푸른창공에는 구름떼가 여기저기만보(漫步)하고낭만(浪漫)에취한 봄바람은꽃그늘과 “스카—트”자락에서허덕허덕호흡(呼吸)한다” (1940년 4월 22일. 벚꽃昌慶苑은人波萬波!)
 - ⑥ “各委員으로부터 自由 討議에依하여 各委員의 意見開陳等 勸馬聲이 方高. 然이나 그들委員에는 亦是 政友라 民政이라하는 褪色한 政黨의 浪漫子孫이오 (1937년 7월 1일. 횡설수설)

• 낭만주의

- ①단독형이기는 하지만 ‘고전낭만자연주의’라는 나열 구성에서 낭만주의로 해석되는 예, ②단독형으로서 문예사조적으로 대비되는 사실주의의 ‘사실’과 함께 제시되고, 부제를 통해 문예사조임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예, ③‘낭만 OO’의 구성으로서 낭만주의로 해석되는 예 등이 다양함. 형태적 특성과 의미가 현저한 대응 관계를 보이

지는 않는 듯함

- ① “우에말한바와갓치過去의藝術即古典浪漫, 自然主義의藝術이다” (1927년 10월 26일. 文藝管見)
- ② “**낭만**과 사실. 로맨티시즘과 리얼리즘의 조화를 위하여(1)” (1934년 11월 30일. 기사 제목)
- ③ “『썬스피어』 『빠르삭크』는 形式主義를 發見키에는 넘으나 困難한 事實性에 섰는 것이며 同時に 前方에의 『浪漫精神』을가지고 裝備되었었다” (1936년 1월 31일. 文學의 非規定性的問題)

• 낭만주의와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중의성이 간취되는 예문

- 문예적 성격의 글에서 중의성이 간취되는 예문들이 보임. 그러나 로맨스와는 분명 다른 것이, 낭만이 약어로서 낭만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인 것은 아님

- 형태적으로는 모두 단독형. ‘낭만 OO’ 구성으로서 중의성을 보인 예는 없었음

- ① “그것은 大略綜合的方法 卽 感情(浪漫)과 理智(레아르)를 調和한 『크라시클·메소드』일것이며 政治的으로는 國家와國家, 民族과 民族의 衝突이 지내간 暴風直後의 (후략)” (1935년 11월 1일. 朝鮮文學主流問題 <二>)
- ② “作品論에 있어서도 內容과形式의調和與否를 論述하게되고浪漫과寫實의 長點을 具備하는데— 大部分鑑賞의 滿足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1935년 11월 6일. 朝鮮文學主流問題 <完>)
- ‘감정과 이지’를 대비한 것을 보면 문예사조를 연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글 전체가 세계문학사조의 전개 과정과 비교하여 조선 문단에 대해 시평하는 것이므로 ‘낭만과 레아르’에서 문예사조적 의미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음
- ②는 ①과 같은 맥락
- ③ “文學이 自然主義 以後에잇어浪漫으로부터 寫實로 變하였다면童話文學도 天國의 描寫로부터現實의 描寫로 變化의길을 거러왔다” (1939년 6월 30일. 創作童話의傾向과 그作法에對하야)
- 낭만과 사실의 대비만 보면 감상적 태도/분위기이겠으나, 바로 앞에 ‘자연주의 이후’라는 표현을 함께 고려하면 낭만주의, 사실주의와의 관련성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음
- ④ “새로운 流派라는것은 過去의寫實主義와 比하야 리알의 究極을말할 푸로벨의 寫實態度的 藝術性을 高度化하게 말한것이다. 寫實과 浪漫的 究極이同一하다는것은 오로지 푸로벨을가르켜말한것이 아닌가한다” (1939년 9월 12일. 플로베르의 藝術)
- 이 또한 낭만과 사실의 대비만 볼 수도 있지만, 앞 문장에서 사실주의를 언급한 것

을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음

2.2.2. 1950년대 이후 시기별 공기어 특성 분석

- 총평: 1950년대까지는 낭만주의 문예사조와 비교적 더 큰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960년대 이후 점차 감상적인 태도/분위기로 집중되는 경향
 - 1950년대에 11개이던 공기어가 2000년대에 26개, 2010년대 25개로 늘어남
 - ‘낭만’의 원천이거나 대상인 것들이 조금씩 부침을 겪으면서도 증가해 온 것

- 꾸준히 상위에 있는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꿈	[8위] 2.588	[1위] 4.130	[1위] 6.125	[2위] 6.846	[2위] 7.201	[4위] 5.670	[17위] 3.177
사랑	[7위] 2.717	[2위] 3.820	[10위] 3.017	[16위] 3.347	[6위] 5.099	[2위] 6.133	[12위] 3.833

- ‘낭만’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것
- ‘꿈, 사랑’은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나 심리, 분위기를 자아내는 전형

- 순위가 점점 증가하는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추억	0	0	0	[18위] 2.951	[9위] 5.030	[1위] 7.273	[1위] 7.080
문화	0	0	0	[20위] 2.789	[21위] 3.322	[16위] 3.626	[2위] 6.247
여행	0	[15위] 1.946	[20위] 1.904	[17위] 3.154	[8위] 5.032	[7위] 5.427	[3위] 5.718
공연	0	0	0	0	[23위] 2.376	[14위] 4.287	[4위] 4.911

- ‘낭만’과의 관련성이 더 커지는, 새로운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 2000년대, 2010년대에 ‘추억’이 1위가 된 것은 꽤 주목됨. ‘꿈’에서 ‘추억’으로, 낭만이 과거 지향적인 개념이 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대학	0	[3위] 3.488	[5위] 3.842	[1위] 7.358	[1위] 7.440	[23위] 2.655	[14위] 3.631
대학생	0	0	[16위] 2.175	[4위] 5.314	[19위] 3.494	[26위] 2.148	[24위] 1.772
젊음	0	[6위] 2.803	[2위] 4.970	[7위] 4.866	[7위] 5.067	[12위] 4.770	[15위] 3.293

- 대학생살의 낭만, 젊음의 낭만이 부각되었던 것은 1990년대까지
- 순위가 점점 증가하는 공기어와 대비하였을 때, ‘낭만’이란 정서를 담지하는 것이 시공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젊음,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위인 ‘여행, 공연, 축제’ 등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꾸준히 나타나는 공기어

- ‘낭만’의 원천이거나 대상인 것

- 거리, 도시, 바다, 생활, 시절, 음악, 축제 등

- 순위가 하락하는 것이 특징적인 공기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시인	[1위] 4.387	[7위] 2.741	[17위] 2.101	[19위] 2.910	[24위] 2.082	[21위] 3.182	[21위] 2.266
작품	[2위] 3.690	[10위] 2.404	[6위] 3.617	[23위] 1.788	[20위] 3.383	[20위] 3.185	[19위] 2.778
시	[4위] 3.387	[16위] 0.641	[21위] 0.735	[21위] 2.627	[25위] 2.033	[24위] 2.487	[25위] 0.699
송고	[3위] 3.462	0	0	0	0	0	0

- 50년대에 1위 ‘시인’, 2위 ‘작품’, 3위 ‘송고’, 4위 ‘시’는 이후 대부분 주요 공기어가 아니게 됨
- ‘시인, 작품, 시’는 큰 순위로 하락함. 특히 ‘시’는 1970년대, 1990년대, 2010년대의 최하위 공기어임
- ‘송고’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부터는 공기어로 나타나지도 않음
- ‘시인, 작품, 송고, 시’는 ‘낭만’이 낭만주의의 약어(略語)로 쓰이거나 혹은 낭만주의 문예사조를 서술하는 맥락에서 함께 사용된 것
- 이를 통해 1950년대 이후에는 ‘낭만’이 감상적 태도/분위기의 의미로 더 널리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3. ‘로망’의 시기별 용례와 특징

2.3.1. 1920년대~1960년까지의 용례 분석 (용례가 너무 적어 1960년까지 조사했습니다)

- 총평: ‘소망, 이상, 동경’의 의미로 쓰인 예가 1930년대부터 꾸준히 확인됨. 용례가 적어 어떤 경향을 따지기는 어려울 듯함
- 1920년대에는 용례가 없음. ‘로망’이 명사 어근으로 재분석된 ‘浪漫’의 일본어식 독음 ‘ロマン’을 그대로 표기한 것임을 고려하면, 일본어에서도 낭만에 비해 성립이 늦었을 것이고, 한국어에 유입되어 쓰이는 시기도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음
- 1940년대에 용례가 없는 것은 동아일보만 보았기 때문. 조선일보 1940년 5월 28일 등의 기사에는 석간소설 광고 기사에서 김사량을 소개하면서 “『로망』작가”라는 표현을 쓴 것이 확인됨(여기서는 ‘소설’의 의미)
- ‘소망, 이상, 동경’의 의미는 ‘OO의 로망’이라는 구성을 통해 드러남
- ‘낭만 혹은 낭만주의’의 의미는 ‘리얼, 상징’ 등의 단어와 대비되거나 문예사조를 따지는 맥락에서 드러남
- ‘감상적 분위기’의 의미는 ‘광고’에서 주로 ‘一大로망’의 구성으로 드러남
- ‘소설’의 의미는 소설제목이나 장편, 전집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됨

• 수집한 총 용례 19개

구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1960년까지
용례 수	없음	5개	없음	13개
의미		소망, 이상, 동경 2개(40%)		소망, 이상, 동경 4개(30%)
		낭만, 낭만주의 2개(40%)		낭만, 낭만주의 2개(16%)
		감상적 분위기 0개		감상적 분위기 5개(38%)
		소설 1개(20%)		소설 2개(16%)

- 1930년대에 이미 현대국어와 같은 ‘소망, 이상, 동경’의 의미로 쓰인 예가 여럿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
- 낭만 혹은 낭만주의, 감상적 분위기, 그리고 소설을 가리키는 예도 있었음

• 소망, 이상, 동경(6개 용례 모두 제시)

- ① “이들 아모에게서도 夢想的 『로망』은 價値적은것이고, 그色彩는稀薄해지고 있다” (1936년 1월 3일. 偉大한浪漫의精神(中))
 - 실현성이 없는 생각에 관한 소망이나 동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됨
 - ‘몽상의 로망’, 즉 ‘OO의 로망’이라는 구성이 주목됨. 이 구성을 통해 의미가 전형적으로 드러남
- ② “本來의理想,即 現代文學이그 『로망』으로만 自己의藝術가운데” (1936년 1월 4일. 偉大한浪漫의精神(下))
 - ‘본래의 이상’과 동격으로 제시된 것이 로망
- ③ “남아로서 지상의 활무대였던 바다는 청춘의 로망과 피로 아롱졌었다” (1955년 2월 6일. 兄弟는 勇敢하였다)
 - 청춘의 로망, 즉 ‘OO의 로망’이라는 구성
- ④ “자기라는 인간한테는꿈도없고로망도없고오직사막길을걷도록운명지어져 있었드니라한 박사 였다.” (1959년 1월 18일. 季節의 風俗圖(73))
 - ‘꿈도 없고 로망도 없고’라는 대비 구성에서 ‘꿈’의 유의어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⑤ “정말 상상해보지도못한 입술의로망이었고현혹이었다” (1959년 1월 19일. 季節의 風俗圖(74))
 - 입술의 로망, 즉 ‘OO의 로망’이라는 구성
- ⑥ “목 늘어 기다렸던 로망은 쉼 냄새 풍기고” (1959년 9월 14일. 詩 알로하튜어리스트)

- ‘기다렸던 로망’, 즉 기다림의 대상이므로 이상, 동경의 의미

• 낭만 혹은 낭만주의(4개 용례 모두 제시)

① “本格小説, 다시말하면 大『로망』의建築을 爲하여서는 무엇을 할것인가?” (1938년 8월 24일, 作家에의 進言狀)

- 본격소설은 일상적인 사소한 사건의 외부적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행동원인을 심리적으로 깊이 추구하여 인생의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가리킴 (국어국문학자료사전 ‘본격소설’ 항목). 즉 인간 내면의 심리, 정서, 감상의 측면을 다루는 본격소설에 대해 ‘로망의 건축’이라고 하였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낭만’인 듯함

② “그 재능과 교양에 흠하고 만다. 언제나 “리얼”하면서도 “로망”의 향기가 풍기고 있다.” (1939년 11월 30일 및 12월 1일, 長篇小説 華想譜 連載豫告)

- 유진오의 장편소설 화상보의 연재 예고 기사. 리얼과 로망이 대비되는데, 이 대비는 낭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임

③ “우리나라新文學의濫觴은 그후 『創造』派의 殘壘와『廢墟』派의 殘壘, 『白潮』派의 殘壘, 그리고 『開闢』誌中心의 新傾向派, 『金星』誌가 梁柱東, 柳葉등의 浪漫的 상징的인 詩文學 中心에다, 그밖에는 高漢谷, 林和 등의 다다派등 六分派의활동이 오늘날의 發展에 寄與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1958년 10월 8일, 新文化黎明 夜話)

- 로망과 상징이 대비되고, 맥락상 문예사조의 흐름을 짚고 있으므로, 낭만 혹은 낭만주의로 해석됨

④ “그리고 各誌가 기치를 내 보이는 文學上理念의 차이란 거의 共通 적인 人道주의적 理想주의 적인 것이었는데, 억지로 그것을결과적으로 따진다면 『創造』의 寫眞주의, 『廢墟』의 仁道, 理想주의, 『白潮』의 新로망주[의]로분간할 수 있다” (1958년 10월 10일, 新文化黎明 夜話)

- 맥락상 낭만주의를 가리키기 위해 로망주의를 쓴 것.

• 감상적 분위기(5개 용례 모두 제시)

- 감상적 분위기의 의미는 ‘광고’에서 주로 ‘一大로망’의 구성으로 사용됨

- 특히 ①의 ‘사랑과 칼이 비저내는 로망’ ②의 ‘전 여성 동경의 일대로망’에서 ‘로망’은 사랑과 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자, 모든 여성이 동경하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음. ①에서 로망은 도구, 수단으로서의 사랑과 칼이 연출해 내는 극적인 감정 혹은 분위기로 이해됨. ②의 ‘숙명적 사랑, 여성 동경의 로망, 최고최대의 로맨스’에서 ‘사랑, 로망, 로맨스’는 서로 관련되지만 대비되는 요소이며 ‘여성 동경의 로망’에서 동경과 로망은 동의적이지 않음. 즉, 여기서의 로망은 감상적 분위기로 이해하

는 것이 자연스러움(도재학 2020: 231-232)

- ① “哀怨!華麗한사랑과 칼이 비저내는 **로망**의 極致!” (1954년 6월 7일. 광고)
- ② “伯爵令嬢과密獵者の宿命的의사랑!全女性憧憬의一大**로망**, 최고 최대의 로맨스” (1954년 12월 23일. 광고)
- ③ “東洋中國에展 하는壯大美麗의一大**로망**!!” (1955년 5월 10일. 광고)
- ④ “美女「黒장미」의傳説의一大**로망**!” (1955년 5월 13일. 광고)
- ⑤ “戰禍속에피어난젊은이의아름다운꿈과 사랑의大**로망**!” (1960년 6월 20일. 광고)

• 소설작품(3개 용례 모두 제시)

- ① “그러나 그는 끝끝내 싸람보와 같은 浪漫的 抒情的의 **로망**을 완성하고야 만 것이다” (1939년 9월 8일. 플로베르의 藝術)
 - 싸람보와 같은 로망에서 소설작품임을 알 수 있음
 - 살람보: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가 지은 역사 소설. 포에니 전쟁을 무대로 하여, 카르타고의 용장(勇將)의 딸 살람보와 반란군의 지휘자의 비극적 사랑을 그렸다. (표준국어대사전)
- ② “더우기 그런式의 私小説로 기울어지는 風은 이렇다할 本格的인 **로망**(長篇)이 生産되지 있지 않은 우리文學에 있어서는 큰길을 向하여 걸어 나가는것이 아니라, 골목길, 좁은길로 우리文學을 몰아넣는 格도 되는것이다” (1958년 12월 28일. 私小説의限界)
 - 괄호 속에 ‘장편’이라 하여 소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됨
- ③ “最高의內容을 最低의廉價로 世界大**로망**全書. 世界各國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팔린 驚異와 興味の 大小說全集 드디어 出刊!” (1960년 2월 17일. 광고)
 - 소설전집광고이므로 소설작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음

2.3.2. 1950년대 이후 시기별 공기어 특성 분석

- 총평: ‘그레코로망형(레슬링), 누보로망(신소설), 앙띠로망(반소설), 로망로랑(인명)’ 등 동형어의 개입으로 공기어 특성이 잘 보이지는 않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공기어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임. ‘남성, 남자, 여성, 여자의 로망’이라는 구 구성이 확립된 것이 확인됨
 - 공기어의 수가 적음(연대별로 0-15-12-8-7-8-10). 이는 ‘로망’이 사용되는 맥락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것, 곧 의미 영역이 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나마도 공기어의 대다수가 동형어의 공기어라는 점도 고려 대상
 - 어떤 경향을 말하기는 어려움
- 2000년대 상위 공기어

- 성별어: 여성(3.732), 남자(3.619), 남성(2.905), 여자(2.015)
 ‘남성, 남자, 여성, 여자의 로망’이라는 구 구성의 확립
- 영화(3.157), 작품(2.396)
- 영원(2.433), 사랑(2.404)
 ‘영원한 사랑에 대한 로망’과 같은 식의 관용적 표현
- 2010년대 상위 공기어
 - 성별어: 남자(6.341), 여성(5.788), 여자(4.029), 남성(3.691)
 - 사랑(2.790), 영원(2.205)
 - 프랑스(1.845), 작가(1.837), 세계(1.115)

2.4.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

- 로맨스, 낭만, 로망은 1920년대에 이미 각자의 의미 영역을 비교적 확실히 하고 있었으면서도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를 공히 가리킬 수 있었음. 그러나 그 맥락과 특성은 조금씩 달랐음
 - 로맨스의 경우, 낭만주의를 표시하는 빈도가 매우 적고, 1940년대 이후에는 쓰이지 않게 된 듯함. 문학 작품이나 문단에 대한 평론 성격의 글에서, 문예사조를 대비하는 데에 쓰인 ‘로맨스’가 더러 낭만주의의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미 통속적 혹은 사랑 이야기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레지스터에서 낭만주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듯함
 - 낭만의 경우, 낭만주의를 표시하는 빈도가 용례의 절반 가까이 됨. 문예적 성격의 글에서 중의성이 간취되는 예문들이 보이는데, 약어로서 낭만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음
 - 로망의 경우, 로맨스와 마찬가지로 낭만주의를 표시하는 빈도가 매우 적음.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도 예시가 확인됨. 낭만주의의 의미는 문예 기사에서 ‘리얼, 상징’ 등의 단어와 대비되거나 문예사조를 따지는 맥락에서 드러남. 역시 상당히 제한적인 레지스터에서만 낭만주의를 표시할 수 있었음
 - 요컨대, 낭만주의라는 좁게는 문예사조적, 넓게는 사상적 기반 위에서 로맨스, 낭만, 로망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한된 레지스터에서 서로 교체가 가능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음. 전체적으로는 1920년대 이미 확립되어 쓰이던 의미가 지금까지 유지,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고, 각 단어들은 의미 영역의 축소를 겪어오면서 결국 공통배경이었던 ‘낭만주의’와는 결별하게 되었음. 문예사조의 쇠퇴가 이들의 위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됨

- 로맨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 로맨스는 ①통속적 이야기, ②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 ③낭만 혹은 낭만주의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던 것임
 - 1938년 2월 9일 ‘코메디·로맨스物’ 및 1939년 1월 22일 ‘로맨스 映畵’ 등 ‘로맨스 OO’이라는 구성에서 장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로맨스’가 확인됨
 - 1950년대 이후 ‘연애 사건 혹은 사랑 이야기’라는 의미가 상당히 일반화된 듯하고, 영화, 드라마, 소설 등 장르를 구분하기 위한 용법도 확립됨. 특히 장르 구분의 용법은 1980년대 이후 명확해짐
- 낭만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 낭만은 ①감상적 태도/분위기, ②낭만주의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이며 간혹 중의적인 용법이 확인됨
 - 주로 문예를 다루는 기사에서 쓰였는데, 1934년 이후 기행문에서 개인의 심경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낭만’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특이하게 주목됨. 1940년대가 되면 봄철 창경원 벚꽃놀이 등 사람들의 여가생활을 서술하는 데에도 쓰임. 추정컨대, 기행문으로부터 촉발되어, 소설, 수필, 시, 봄풍경 보도 등으로 사용 영역이 다양화된 것으로 보임
 - 1950년대까지는 낭만주의 문예사조와 비교적 더 큰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960년대 이후 점차 감상적인 태도/분위기로 집중되는 경향
- 로망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 로망은 ①소망, 이상, 동경, ②낭만 혹은 낭만주의, ③감상적 분위기, ④소설의 네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었던 것임
 - 용례가 적어 어떤 경향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레지스터 및 구성을 달리하여 개별적인 의미가 공존하고 있었던 듯함
 - ‘소망, 이상, 동경’의 의미는 ‘OO의 로망’이라는 구성을 통해서, ‘낭만 혹은 낭만주의’의 의미는 ‘리얼, 상징’ 등의 단어와 대비되거나 문예사조를 따지는 맥락에서, ‘감상적 분위기’의 의미는 ‘광고’에서 주로 ‘一大로망’의 구성으로, ‘소설’의 의미는 소설제목이나 장편, 전집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것이 확인됨
 - 단언하기 어려우나 1990년대 이전에 ②, ③, ④의 의미는 점차 사라진 듯함. 1980년대까지는 각 용례들이 확인됨

[참조1] ‘낭만’의 예

많은 여성들은 멋진 로망을 동경한다 (1984.08.24. 간통의 불평등)

[참조2] ‘감상적 분위기’의 예

경찰 출신인 「로제 보르니 슈」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물씬 풍기는 로망과 차디찬 결전의 장면들이 설새없이 뒤섞이며 숨을 죽이게 한다 (1980.11.15. 레깅 프랑스 암가의 애환그려)

[참조3] ‘소설’의 예

가령 「펠 벅」의 「대지」는 어디까지나 땅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처절한 로망이다 (1984.07.11. 황철수설)

3. 결론

연구 내용 요약은 생략

이 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

① 동아일보 자료를 위주로 보았고, 그 외의 텍스트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함. 특히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함께 검색가능한 조선일보를 왜 보지 않았는가.

→ 필요에 따라 일부 조선일보의 용례도 검토는 하였으나, 조선일보의 용례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보아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았음.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물론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

→ 동아일보 텍스트를 창간호부터 2014년까지 쭉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소위 룡대 이터로서의 동아일보 텍스트에 집중하여 검토한 것. 물론 이것이 납득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못 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② 로맨스 153개, 낭만 127개, 로망 19개가 전부인가.

→ 아님. 기사 검색을 하고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수작업으로 모은 것. 어떤 기사에는 같은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놓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똑같은 용법이 맥락의 차이 없이 반복된다고 생각한 몇몇 용례는 빼기도 하였음.

→ 이 때문에 연대별로 용례의 수가 변하거나, 의미의 비중이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화한 기술을 하지 않고자 하였음. 가급적 개별적 의미 특성과 분화의 맥락을 살피는 데에 집중하였음

③ 1940년대까지는 수작업으로 예문을 검토하고, 1950년대 이후는 코퍼스 공기어와 관련성의 정도(t-score)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음. 이질적이지 않은가.

→ 이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5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용례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음

→ 수많은 예문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 오직 공기어만 검토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예문을 직

접 보고 내용 검토를 병행하였음.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인문학센터, 『동아일보 코퍼스』 및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김일환(2017), 「디지털 자료와 의미 연구의 다양성」, 『한국어 의미학』 56, 한국어 의미학회, 89-109.
김일환(2019), 「인문학을 위한 신문 빅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어문론집』 78, 중앙어문학회, 41-6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도재학(2020), 「근대어 ‘낭만(浪漫)’의 성립」, 『형태론』 22(2), 형태론 편집위원회, 214-235.
박효경(2019), 「일본어 ‘ロマン(浪漫)’의 성립과 변천에 대하여」, 『동서인문학』 56, 계명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7-37.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http://www.bigkinds.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림대 근대 문예지 코퍼스』.

[부록1] ‘로맨스’의 시기별 상위 공기어(10개, t-score순 정렬)

순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	대령(4.577)	빠빠(6.244)	사랑(4.995)	소설(5.596)	영화(8.407)	영화(11.411)	소설(9.218)
2	공주(4.100)	영화(4.958)	그레이(4.794)	사랑(4.463)	사랑(7.458)	사랑(8.644)	영화(7.890)
3	러브(3.871)	감독(4.659)	영화(4.009)	청소년(4.448)	세기(7.178)	소설(7.980)	사랑(7.049)
4	영화(3.770)	러브(4.356)	결혼(4.005)	하이틴(3.872)	소설(6.634)	드라마(7.016)	드라마(6.506)
5	결혼(3.343)	영화제(4.073)	아거리트(3.602)	시리즈(3.826)	밤(5.797)	남자(6.256)	남(5.854)
6	감독(3.182)	사랑(3.973)	공주(3.580)	영화(3.072)	감독(5.430)	남(6.188)	작가(5.744)
7	세기(3.084)	이야기(3.675)	영국(3.529)	결혼(3.016)	그레이(3.736)	불륜(6.067)	불륜(5.465)
8	사랑(2.848)	그레이(3.460)	대령(3.126)	드라마(2.738)	작가(3.716)	주인공(5.481)	여성(4.497)
9	배경(2.774)	드라마(2.946)	감독(2.947)	영국(2.725)	주인공(3.271)	이야기(4.643)	주인공(3.882)
10	드라마(2.631)	배경(2.751)	작품(2.889)	그레이(2.643)	작품(3.158)	감독(4.481)	남자(3.877)

[부록2] ‘로맨스’의 공기어별 t-score 변화 추이

단어	1950년대 t-score	1960년대 t-score	1970년대 t-score	1980년대 t-score	1990년대 t-score	2000년대 t-score	2010년대 t-score
감독	3.182	4.659	2.947	0	5.430	4.481	2.970
결혼	3.343	2.647	4.005	3.016	3.070	3.383	2.538
공주	4.100	2.190	3.580	0	0	0	0
그레이	0	3.460	4.794	2.643	3.736	3.142	3.589
남	0	0	0	0	2.878	6.188	5.854
남자	0	0	0	0	1.397	6.256	3.877
대령	4.577	0	3.126	0	0	0	0
드라마	2.631	2.946	0	2.738	2.684	7.016	6.506
러브	3.871	4.356	0	0	2.974	2.756	0
밥	1.239	1.204	2.485	0	5.797	1.584	0
배경	2.774	2.751	0	0	2.300	3.353	3.754
불륜	0	0	0	0	2.424	6.067	5.465
빠빠	0	6.244	0	0	0	0	0
사랑	2.848	3.973	4.995	4.463	7.458	8.644	7.049
세기	3.084	0	2.075	2.116	7.178	3.958	0
소설	0	0	0	5.596	6.634	7.980	9.218
시리즈	0	0	0	3.826	0	1.683	2.063
아거리트	0	0	3.602	0	0	0	0
여성	0	2.092	0	1.624	2.401	3.176	4.497
영국	2.571	0	3.529	2.725	1.362	3.921	2.166
영화	3.770	4.958	4.009	3.072	8.407	11.411	7.890
영화제	0	4.073	0	0	0	1.980	0
이야기	1.902	3.675	2.735	2.277	2.638	4.643	3.146
작가	2.014	1.909	0	0	3.716	4.117	5.744
작품	1.774	2.486	2.889	2.202	3.158	3.880	3.837
주인공	0	0	2.179	0	3.271	5.481	3.882
청소년	0	0	0	4.448	0	0	0
출연	2.394	0	2.520	0	2.840	3.134	2.616
하이틴	0	0	0	3.872	2.446	3.740	0

[부록3] ‘낭만’의 시기별 상위 공기어(10개, t-score순 정렬)

순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	시인(4.387)	꿈(4.130)	꿈(6.125)	대학(7.358)	대학(7.440)	추억(7.273)	추억(7.080)
2	작품(3.690)	사랑(3.820)	젊음(4.970)	꿈(6.846)	꿈(7.201)	사랑(6.133)	문화(6.247)
3	송고(3.462)	대학(3.488)	생활(4.352)	명동(5.322)	거리(5.619)	고양이(5.695)	여행(5.718)
4	시(3.387)	노래(3.448)	시대(4.071)	대학생(5.314)	음악(5.413)	꿈(5.670)	공연(4.911)
5	음악(3.352)	시대(2.860)	대학(3.842)	멋(5.152)	도시(5.115)	시대(5.570)	거리(4.812)
6	생활(2.961)	젊음(2.803)	작품(3.617)	축제(4.977)	사랑(5.099)	축제(5.507)	음악(4.704)
7	사랑(2.717)	시인(2.741)	노래(3.245)	젊음(4.866)	젊음(5.067)	여행(5.427)	예술(4.303)
8	꿈(2.588)	생활(2.638)	시절(3.180)	거리(4.653)	여행(5.032)	바다(5.383)	도시(4.252)
9	고전(2.422)	예술(2.595)	바다(3.098)	도시(4.121)	추억(5.030)	거리(5.297)	시대(4.236)
10	시절(2.208)	작품(2.404)	사랑(3.017)	생활(3.997)	시절(4.989)	음악(4.951)	축제(3.962)

[부록4] ‘낭만’의 공기어별 t-score 변화 추이

단어	1950년대 t-score	1960년대 t-score	1970년대 t-score	1980년대 t-score	1990년대 t-score	2000년대 t-score	2010년대 t-score
거리	0	2.229	1.912	4.653	5.619	5.297	4.812
고양이	0	0	0	0	0	5.695	0
고전	2.422	0	2.854	3.480	4.891	3.566	2.869
공연	0	0	0	0	2.376	4.287	4.911
꿈	2.588	4.130	6.125	6.846	7.201	5.670	3.177
노래	0	3.448	3.245	2.136	4.748	4.831	2.386
대학	0	3.488	3.842	7.358	7.440	2.655	3.631
대학생	0	0	2.175	5.314	3.494	2.148	1.772
도시	0	2.299	2.072	4.121	5.115	4.717	4.252
멋	0	0	2.400	5.152	3.810	3.094	2.169
명동	0	0	0	5.322	3.910	3.215	2.142
문화	0	0	0	2.789	3.322	3.626	6.247
바다	2.160	0	3.098	3.401	4.886	5.383	3.254
사랑	2.717	3.820	3.017	3.347	5.099	6.133	3.833
생활	2.961	2.638	4.352	3.997	4.863	2.256	3.638
송고	3.462	0	0	0	0	0	0
시	3.387	0.641	0.735	2.627	2.033	2.487	0.699
시대	0	2.860	4.071	1.753	4.570	5.570	4.236
시인	4.387	2.741	2.101	2.910	2.082	3.182	2.266
시절	2.208	2.362	3.180	3.758	4.989	3.915	3.873
여행	0	1.946	1.904	3.154	5.032	5.427	5.718
예술	0	2.595	2.483	3.819	2.750	3.607	4.303
음악	3.352	2.252	2.940	3.864	5.413	4.951	4.704
작품	3.690	2.404	3.617	1.788	3.383	3.185	2.778
젊음	0	2.803	4.970	4.866	5.067	4.770	3.293
추억	0	0	0	2.951	5.030	7.273	7.080
축제	0	0	2.748	4.977	3.566	5.507	3.962

[부록5] ‘로망’의 시기별 상위 공기어(10개, t-score순 정렬)

순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	없음	그레코(8.365)	형(4.908)	누보(6.480)	누보(5.657)	여성(3.732)	남자(6.341)	
2		앙띠(7.999)	선수(4.482)	소설(4.531)	프랑스(4.379)	남자(3.619)	여성(5.788)	
3		선수(7.153)	자유형(4.113)	작가(3.886)	소설(4.197)	영화(3.157)	여자(4.029)	
4		형(7.046)	문학(3.904)	시몽(3.605)	작가(3.919)	남성(2.905)	남성(3.691)	
5		레슬링(6.610)	작가(3.884)	작품(3.381)	작품(2.994)	영원(2.433)	사랑(2.790)	
6		소설(6.261)	레슬링(3.847)	기수(2.635)	기수(2.821)	사랑(2.404)	영원(2.205)	
7		급(6.122)	소설(3.554)	문학(2.317)	영화(2.573)	작품(2.396)	프랑스(1.845)	
8		작가(5.535)	프랑스(2.924)	프랑스(2.224)	없음	여자(2.015)	작가(1.837)	
9		자유형(5.085)	급(2.462)	없음		없음	없음	세계(1.115)
10		대회(4.582)	대회(2.277)					없음

[부록6] ‘로망’의 공기어별 t-score 변화 추이

단어	1950년대 t-score	1960년대 t-score	1970년대 t-score	1980년대 t-score	1990년대 t-score	2000년대 t-score	2010년대 t-score
그레코	0	8.365	0	0	0	0	0
급	0	6.122	2.462	0	0	0	0
기수	0	0	0	2.635	2.821	0	0
남성	0	0	0	0	0	2.905	3.691
남자	0	0	0	0	0	3.619	6.341
누보	0	0	0	6.480	5.657	0	0
대회	0	4.582	2.277	0	0	0	0
레슬링	0	6.610	3.847	0	0	0	0
문학	0	3.431	3.904	2.317	0	0	0
불란서	0	4.374	0	0	0	0	0
사랑	0	0	2.079	0	0	2.404	2.790
선수	0	7.153	4.482	0	0	0	0
세계	0	3.303	1.944	0	0	0	1.115
소설	0	6.261	3.554	4.531	4.197	0	0
시몽	0	0	0	3.605	0	0	0
양띠	0	7.999	0	0	0	0	0
여성	0	0	0	0	0	3.732	5.788
여자	0	0	0	0	0	2.015	4.029
영원	0	0	0	0	0	2.433	2.205
영화	0	0	0	0	2.573	3.157	0
자유형	0	5.085	4.113	0	0	0	0
작가	0	5.535	3.884	3.886	3.919	0	1.837
작품	0	3.204	0	3.381	2.994	2.396	0
프랑스	0	4.213	2.924	2.224	4.379	0	1.845
형	0	7.046	4.908	0	0	0	0

토론: ‘로맨스, 낭만, 로망’의 의미 분화에 대하여

김현주 (공주교육대학교)

이 글은 어원을 공유하는 ‘로망’, ‘로맨스’, ‘낭만’ 등 세 차용어가 개념 영역을 어떻게 분할해 왔는지 탐색한 것입니다. 이는 크게 보아서 개념사적으로, 좁게는 국어의 어휘사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논의의 구성이나 방법론 등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글을 읽으며 가지게 된 의문의 대부분은 필자 스스로가 결론에 적고 그에 대한 답변을 달아 놓았기에 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발표자 스스로 언급해 둔바, 자료의 범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표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코멘트로 토론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국어사연구자들 사이에서 20세기 전반기 신소설, 현대소설 코퍼스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 코퍼스를 깜짝새 같은 문맥검색기로 살피면 수고를 많이 들이지 않고 ‘로망’, ‘낭만’, ‘로맨스’가 들어간 문례 자료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낭만’의 공기어로 ‘대학’, ‘청춘’ 등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IMF 이후 대학이 취업 준비 공간으로 변모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웬만한 4년제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대기업 취직이 보장되던 시절이 IMF와 함께 끝났기에 대학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낭만’을 찾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3. 이 세 어휘가 가리키는 바를 개념지도의 방식으로 시각화해 보면 좋을 듯하다. 통시적으로도 보고, 일본어와 중국어에서의 유관 어휘도 함께 보면 매우 명료하게 주장하려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박미은(대진대, 강사)

-목차-

1. 서론
2. 동격 명사구 구성의 개념
3.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을 분류하고 기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격 구성은 대체로 (1ㄱ)과 같이 동일한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두 개의 명사구가 인접하여 분포하는 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⁹⁸⁾⁹⁹⁾ 인접한 두 명사구 사이에는 (1ㄴ)과 같이 두 명사구가 동일 지시대임을 가리키는 표지가 수의적으로 개재할 수 있다.¹⁰⁰⁾

- (1)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곧/즉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한편,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두 명사구가 인접하여 출현하는 형식으로는 (2ㄱ)와 같은 구성도 관찰된다.

- (2)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배우에게 폭 빠졌다.

이 구문은 통사적인 측면보다는 담화 내에 새로운 실체를 도입한다는 담화 기능면에서 더 주목을 받아 왔다.¹⁰¹⁾ (2ㄱ)은 두 번째 명사구가 고유명사인 경우이고 (2ㄴ)은 일반명사인 경우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다. (2)에 쓰인 ‘(이)라는’은 기존의 논의에서 동격을 나타내는 표지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지시되는 인접한 명사구 사이에 개재하였다는 점에서 (1ㄴ)에 쓰인 ‘곧’과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선행 명사구에 명사절 상당구성까지 포함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성도 앞서 살핀 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 범주가 인접하여 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98) 기술의 편의상 ‘동격 구성’이라고 지칭한다. 김영희(1988)에서 동일한 형태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여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동격 구성은 명사구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동격 구성’으로 지칭하여도 무방할 듯싶다.

99) Bloomfield(1933), Quirk. et al(1985), 서정수(1995), 김영희(1998), 이선웅(2005), 김인균(2009), 서반석(2012), 홍용철(2016), 최웅환(2016) 등.

100) 이선웅(2007)과 김인균(2009)은 동격을 나타내는 표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101) 최윤지(2019)에서는 청자에게 표상되지 않은 새로운 실체를 도입할 때 사용되는 구문이라고 하였고, 박미은(2021)에서는 ‘대상 환기 구문’이라 명명하고, 청자가 생소하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앞선 연구와 궤를 같이 하였다.

(3) 다혜가 요즘 송중기한테 폭 빠졌다 이거지?

(3)의 ‘다혜가 요즘 송중기한테 폭 빠졌다’는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절에 해당하는데,¹⁰²⁾ ‘이것’과 동지시되고 직접 인용 구문의 피인용절과 같이 상위언어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명사구 상당어가 되기 때문이다.¹⁰³⁾

본고는 앞서 보인 바와 같이 두 개의 명사구(상당어)가 나란히 분포하며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구성들의 유형을 망라하고 기능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논의에 기대어 동격 구성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전형적인 속성을 밝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개별 구문으로 논의되었던 구문 중에서 동격 구성으로 파악될 만한 유형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기능을 고찰해 볼 것이다.

2. 동격 명사구 구성의 개념

이 장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기대어 동격 구성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전형적인 속성을 밝힌다. 동격 구성의 개념은 라틴 문법에서 The city of Rome과 같은 표현을 동격적 소유(appositional genitive)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였고 Jespersen이 이 용어를 이어받으면서 of의 필수성을 보였다고 한다(서반석 2012:3). 이후 Bloomfield(1933:314)에서 ‘병렬적으로 결합된 형식들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경우’라고 문법적인 관계가 정의되었고,¹⁰⁴⁾ Quirk. et. al(1972, 1973, 1985)에서 명사구가 동일지시의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적인 조건이 도입되었다. Quirk. et. al(1985)에서는 동격을 명사구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고 한 명사구에 다른 명사구가 인접(바로 옆, 병렬)해서 두 명사구가 동일지시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영어 전통 문법의 논의들은 대체로 국어 연구에서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ㄱ. 김영희(1998): 동일한 형태 범주에 속하면서, 동일한 의미 기능(명사의 경우 동일 대상 지시)과 동일한 통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나란히 선 것.

ㄴ. 서정수(1995:576-81): Quirk. et. al(1985)를 수용, 한 명사구가 동일 지시 관계에 있는 단 명사구를 한정하는 것.

ㄷ. 이선웅(2007): 언어 외적으로 동지시적인 둘 이상의 명사구가 각 명사구의 중간에 아무런 언어 형식을 개입시키지 않는 순수하게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현상.

① 동격구성(=동격명사구): 동격을 통해 이루어진 명사구 성분

② 동격어: 동격 구성 내부에 있는 각 명사구

ㄹ. 김인균(2009): 나란히 나타나는 동일한 두 형태(통사) 범주 명사구가 하나의 개체를

102) 박미은(2021)에서는 이와 같은 구성을 간접 인용명사 구문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내용절을 피인용절로 파악하였다.

103) 이선웅(2005: 60-73)에서는 명사구 상당어를 명사구와 배타적 관계에 있는 구 범주가 외부적으로 명사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것을 가리켜 명사구 상당어라고 하고, 간접의문절과 직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 대구적 구성 등의 예를 보인 바 있다.

104) 최현배(1937)에서는 한 줄 가운데 한가지의 조각이 여럿이 같은 자격(資格)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여 나란히 서는 것을 같은 자리(同位), 同格)를 잡았다 하며, 그 같은 자리를 잡은 말을 같은자리말(同位語, 同格語)이라 한다.

지시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면서 같은 자격을 가진 구성.

① 명시적인 표지가 개입된 구성은 동격 명사구가 아니다.

②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를 수식·한정하는 관형구성, 관형명사 구성으로 문법 내적 의미가 없음.

□. 서반석(2012): 둘 이상의 NP가 갖는 관계.

①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격구성은 문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각 요소는 동일한 통사적 기능을 나타내며 이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동격구성 역시 이들과 동일한 기능을 나타낸다.

② 동격 관계에 있는 NP들은 동일한 지시를 갖는 동시에 서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

③ 동격 확인 요소를 가질 수 있다.

앞선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는 동격 명사구의 조건으로는 (4ㄱ), (4ㄴ)에서 언급된 ‘동일한 형태(통사) 범주’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사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동격 구성을 판별했던 Bloomfield(1933:314)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나란히 놓인 두 요소가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5=1)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_{NP1}, 송중기_{NP2}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_{NP1}, 곧/즉 송중기_{NP2}에게 폭 빠졌다.

(5)와 같이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모두 명사(구)라는 동일한 문법 요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희(1998)에서는 명사(구)가 아닌 다른 동격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후행 요소는 같은 형태 범주에 속해야 한다. 가령, (6ㄱ)의 ‘밝은’과 ‘아주 밝은’은 동일하게 관형사구 범주에 속하고 (6ㄴ)의 ‘천천히’와 ‘매우 천천히’는 동일하게 부사구 범주에 속하며 나란히 분포하고 있다.

(6) ㄱ. 그 애는 밝은, 아주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ㄴ. 사내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다가 왔다.

(김영희 1998: 329)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통사적인 특성은 나란히 오는 두 요소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두 요소가 나란히 위치한다는 분포 특성은 (4ㄱ), (4ㄴ), (4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의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과 ‘송중기’가 나란한 분포를 보이는 것과 같다.

(4ㄱ), (4ㄴ), (4ㄷ)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명사구의 구조를 복합 명사구로 파악하든지, 분립된 구조로 파악하든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문장 내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명사구 사이에 어떤 요소가 개입하더라도 문장 내에서는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ㄷ)의 서반석(20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동격어가 이룬 최종적인 동격 구성은 각 동격어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7)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를 좋아한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곧/즉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7')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을, 송중기를 좋아한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에게, 곧/즉 송중기에게 푹 빠졌다.

예컨대 (7)의 선행 명사구에는 (7')와 같이 후행 명사구에 결합된 조사와 동일한 조사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장 내에서 두 개의 명사구가 다른 문법 역할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곧, (7'ㄱ)과 (7')의 밑줄 친 부분 전체가 '좋아하-'와 '빠지-'의 두 번째 논항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의미적으로 동일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4ㄱ), (4ㄴ), (4ㄷ), (4ㄹ)에서 알 수 있다. 곧, 두 개의 요소가 나란히 분포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고 두 요소는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한편, 동격표지의 개입과 관련하여서는 이견이 있어 왔다. 동격표지는 (1ㄴ)의 두 명사구 사이에 출현하는 '곧'이나 '즉'과 같은 요소를 이르는데,¹⁰⁵⁾ 이선웅(2007)과 김인균(2009)에서는 두 명사구 사이에 이러한 요소가 개입되면 동격 구성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선웅(2007)에서 (8)과 같이 '곧'과 '즉'과 같은 요소를 독립된 성분으로 파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성분이 포함된 전체 구성을 접속 구성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⁰⁶⁾

(8) ㄱ. 너의 형, 그 시인이

ㄴ. [[너의 형], [즉/곧] [그 시인]]

(이선웅 2007:332)

(9) ㄱ. 너의 형, 즉 그 시인

ㄱ'. 너의 형이, 즉 그 시인이

ㄴ. 저들 번역자가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 번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 즉 번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ㄴ." 저들이, 즉 번역자들이 지금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다.

(서반석 2012:24)

그러나 서반석(2012:2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격을 나타내는 요소가 개입하더라도 두 성분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며 동일한 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9ㄱ)이 (9ㄱ')와 같이 두 명사구에 모두 조사 '이'가 부착되고, '즉'이 개재되어도 '너의 형'과 '그 시인'이 동격 관계를 이루지 못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는 (9ㄴ)과 (9ㄴ"), (9ㄴ")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또한 최웅환(2016:33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격표지나 ', '는 혼자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후행 명사구와 함께 출현한다. (10ㄴ'), (10ㄴ")와 같이 '즉'은 후행 명사구의 앞에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이 논의에서는 이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분석되기보다는 후행 명사구에 소속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1)과 같은 분석을 보이고 있다.

105) 서반석(2012)에서는 '동격 확인 요소'라고 하였다.

106) 이선웅(2007:332)에서 위 본문의 (7ㄴ)과 같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단서로 삼아 최웅환(2016:333)에서도 접속 구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바 있다.

- (10) ㄱ. 너의 형, 그 시인이 드디어 도착했다.
 ㄱ'. 그 시인, 너의 형이 드디어 도착했다.
 ㄴ. 너의 형, 즉 그 시인이 드디어 도착했다.
 ㄴ'. *'즉 그 시인, 너의 형이 드디어 도착했다.
 ㄴ". (*)즉 그 시인이 드디어 도착했다.

(최웅환

2016:333)

- (11) [NP[NP[NP 너의 형]]NP 즉 그 시인이]]이]

(최웅환 2016:332)

더하여, 동격표지는 두 요소가 동일 지시체임을 분명히 알려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동격 구성은 명사구의 분포에 따라 제한적 동격 구성과 비제한적 동격 구성으로 구분되는데,¹⁰⁷⁾ 비제한적 동격 구성을 이룰 때에는 ‘,’가 필수적으로 개재하여야 한다. 곧, 이때의 ‘,’는 제한적 구성일 때와 달리 의무적이다.

- (12) ㄱ.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
 ㄱ'.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곧 송중기
 ㄱ".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
 ㄴ. 송중기,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ㄴ'. 송중기, 곧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ㄴ". 송중기*(,)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12ㄱ)은 제한적 동격 구성으로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를 한정한다.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수식-피수식’의 관계를 이루고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인 송중기’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는데, 이때는 ‘,’ 등의 사용이 의무적이지 않다.¹⁰⁸⁾ 또한, 구어로 발화할 때 두 명사구 사이에 휴지 없이 발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12ㄴ)의 어순을 보일 때에는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구어로 발화하는 경우 두 명사구 사이에 분명한 휴지가 개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에 더하여 동격표지인 ‘곧’이나 ‘즉’이 쓰임으로써 선·후행 명사구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이러한 근거로 최웅환(2016: 333)에서는 두 명사구의 동지시성을 포착해 줄 수 있는 언어적 준거로는 동격표지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꼽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격표지를 동격 구성의 수의적인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3) ㄱ. 동격 명사구 구성의 개념: 문장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두 명사구가 인접하여 분포하는 구성.
 ㄴ. 동격 명사구 구성의 속성
 ① 두 명사구 사이에는 동격표지가 수의적으로 개재할 수 있음.
 ② 두 명사구가 비제한적 관계를 이룰 때에는 ‘,’가 필수적으로 개재해야 함.

107) 홍용철(2014)에서는 비제한적 동격 구성을 확인 구문, 제한적 동격 구성을 속성 구문이라고 하였다.

108) 현행 문장 부호 해석에서는 제한적 동격 구성일 때는 (12ㄴ')와 같이 ‘,’를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언급하고 있다.

3.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

이 장에서는 위에서 밝힌 동격 구성의 개념과 속성을 바탕으로 동격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들을 살피고, 기능을 알아보겠다. 동격 구성의 유형은 2장에서 밝힌 개념과 속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전형적인 동격 구성과 다소 원형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 비전형적인 동격 구성으로 구분한다.

3.1. 전형적인 동격 구성

앞서 2장에서 보인 (13)을 바탕으로 하면 아래의 (14)와 같은 예가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 구성에 해당한다.

- (14)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곧/즉)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송중기, (곧/즉)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에게 폭 빠졌다.

(14)의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과 ‘송중기’는 동일한 지시 대상이며 이 두 명사구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또한 두 명사구가 이론 최종적인 구성이 문장 내에서 한 단위로 기능한다. 그리고 두 명사구가 동일 지시 대상임을 명시하는 ‘곧’이나 ‘즉’과 같은 요소가 선택적으로 출현할 수도 있다.

한편, (14ㄱ)과 (14ㄴ)은 명사구의 분포에 따라 다른 의미 해석을 보인다. 서반석(2012)에서는 (14ㄱ)을 순행 수식 기능을 하는 것으로 (14ㄴ)을 후행 수식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홍용철(2014)에서는 속성 동격 구성과 확인 동격 구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14ㄱ)과 (14ㄴ)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론(異論)이 존재하지만,¹⁰⁹⁾ 기능적인 면에서는 대개 (14ㄱ)을 제한적 동격 구성으로 (14ㄴ)을 비제한적 동격 구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적 해석과 비제한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15) ㄱ. 철수, 내 친한 친구는 진짜 사나이다.
 ㄴ. 내 친한 친구, 철수는 진짜 사나이다.

(15ㄱ)의 ‘철수’와 ‘내 친한 친구’는 비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지며 동지시성을 갖는다. (15ㄴ)은 화자에게 친구가 여럿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인 ‘철수’라는 제한적인 의미해석이 된다. 이때 ‘내 친한 친구’는 특정 개체를 지시하지 않고 ‘철수’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15ㄱ)과 다르다.

3.2. 비전형적인 동격 구성

109) 김인균(2009)에서는 모두 수식 구성으로 파악하되, (14ㄴ)은 도치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선웅(2007)과 홍용철(2014)은 (14ㄱ)은 수식 구조로 (14ㄴ)은 병렬 구조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최응환(2016)에서는 두 구성 요소를 각각 분리된 단위로 파악하였다.

3.2.1. ‘NP1-이라는 NP2’ 구성

이 절에서는 비전형적인 동격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본다. 다음의 (14)는 앞서 보인 예문으로 전형적인 동격 구성에 해당한다. (14ㄱ)은 제한적인 동격 구성, (14ㄴ)은 비제한적인 동격 구성의 유형으로 살핀 것이다. 그런데, ‘곧’이나 ‘즉’이 쓰일 자리에 다음 (14')와 같이 ‘(이)라는’이 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 (14)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곧/즉)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송중기, (곧/즉)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에게 폭 빠졌다.

- (14') ㄱ.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송중기라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에게 폭 빠졌다.

(14')의 ‘(이)라는’은 ‘곧’이나 ‘즉’과 같은 어휘적인 요소가 아니고 선행 명사구에 부착되어 표기된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두 명사구가 동일한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곧, 선행 명사구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며 문장 내에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동격 구성을 이룬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14')의 ‘(이)라는’은 다음 (15)의 ‘(이)라는’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15) ㄱ. “나는 지금 당신에게 적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라는 속삭임으로 전달될 수도 있게끔.
ㄴ.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다.
- (15') ㄱ. *속삭임으로 전달될 수도 있게끔.
ㄴ. *소리를 들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다.

(15)의 ‘(이)라는’이 이끄는 절은 후행하는 명사(구)의 내용절이 된다. (15ㄱ)의 ‘속삭임’의 내용은 ‘(이)라는’ 앞에 오는 절의 내용이고, (15ㄴ)의 ‘소리’에 해당하는 내용 역시 ‘(이)라는’에 선행하는 “ ”로 표시된 부분이다. (15)와 같이 내용절이 되는 경우에는 선행절이 언어로 내용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의 보절이 되기 때문에 (15')와 같이 쓰일 수는 없다. 그러나 (14')와 같이 동격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두 명사구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생략되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이상이 없다.

- (14'') ㄱ. 다혜는 송중기에게 폭 빠졌다.
ㄴ. 다혜는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에게 폭 빠졌다.

또한, (15)의 ‘(이)라는’의 선행절은 후행 명사구가 요구하는 내용절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종결 형식까지 갖춘 완형 보절이 되어야 하지만, (14')의 ‘(이)라는’의 선행 명사구의 유형에는 (16)과 같이 제약이 없다.

- (16) ㄱ. 혹시 비오틴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요, <세종 2007, 구어>
ㄴ. 가령 저작자가 출판 선정을 에이라는 사람한테 했다가, 비라는 사람도 했다가,

<세 종 2007, 구어>

ㄷ. 그 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종 때 처음 조선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세종 2007, 구어>

ㄹ. 특히 교열리포트라는 책이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세종 2007, 구어>

(16ㄱ)~(16ㄴ)에서 확인되듯이 ‘개념’, ‘사람’, ‘단어’, ‘책’ 등 앞에 오는 NP1을 지칭할 수 있는 명사구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통사적으로 두 명사구는 동일지시체로서 동격 관계를 이룬다. 또한, 여기에 쓰인 ‘(이)라는’는 (15)의 내용절과 피수식 명사사이에 분포하는 ‘(이)라는’¹¹⁰⁾과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14')와 (16)은 주로 어떤 명사구가 담화에 처음 등장할 때 후행 명사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함으로써 청자가 선행 명사구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는 구문으로 연구된 바 있다(최윤지 2016, 박미은 2021). (16ㄱ)~(16ㄴ)은 모두 NP1 자리에 구체명이 오고, NP2 자리에 NP1의 범주 등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되었다. 곧, 구체적인 대상인 NP1이라는 실체를 처음 접하는 청자에게 해당 범주를 알려줌으로써 NP1에 더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¹¹⁾

최윤지(2019:130-133)에서는 ‘NP1-(이)라는 NP2’ 구성이 청자-신의 정보 지위를 갖는 언어 구성이라는 것을 맨명사구(bare noun)와의 비교를 통해 보이고 있다.¹¹²⁾

(17) (청자가 ‘임경훈’에 대한 표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ㄱ. 우리 대학원에 임경훈이라는 애가 이번에 뉴스에 나와요.

ㄱ'. #우리 대학원에 임경훈이 이번에 뉴스에 나와요.

(최윤지 2019:133, ()의 내용 및 # 표시 필자)

이 논의에서는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에게 어떤 표상이 없을 때에는 (17ㄱ)과 같이 대상 환기 구문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17ㄱ')와 같이 맨명사구로 지시되면 부자연스럽다고 하였다.

3.2.2. ‘S 이것’ 구성

‘S 이것’ 구성은 선행 명사구가 명사절상당구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8) 다혜가 요즘 송중기한테 폭 빠졌다 이거지?

이 구문은 ‘다혜가 요즘 송중기한테 폭 빠졌다’라는 절은 종결 형식까지 갖추고 있고 후행 명사 ‘이것’의 필수적인 보절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근거로 박미은(2021)에서는 간접 인용명사 구문의 일종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 구성은 피인용절과 인용명사가 수식-피수식 관계를 이루는 (19)과 같은 구성과는 통사 구조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¹¹³⁾

110) 박미은(2021)에서는 (15)를 간접 인용명사 구문으로 파악하고, 이때의 ‘-(이)라는’을 인용표지로 파악하였다.

111) 박미은(2021)에서는 이러한 주된 기능에 초점을 두어 ‘대상 환기 구문’이라고 명칭하였다.

112) 최윤지(2019)에서는 ‘X이라는 Y’구성으로 명명하였다.

113) 서반석(2012: 17-18)에서도 (19)와 같은 동격 관형사절을 동격 구성에서 제외한 바 있다.

(19) 다혜가 요즘 송중기한테 폭 빠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19)의 수식절과 피수식절 역시 피인용절과 인용명사의 구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수식어과 피수식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절상당어와 지시대명사가 병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의 구성을 기능적으로는 간접 인용명사 구문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통사적인 구조는 동격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용’이 이 구성이 수행하는 기능에 방점을 둔 명칭이라면 ‘동격’은 이 구성의 통사 구조를 가리키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필영(1992)에서는 명사절상당구성을 두고 명사적인 인용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 ㄱ. 그로부터의 대답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였다.

ㄴ.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는 내 질문이 아니라 네 질문이었다.

ㄷ. 이럴 때 철수가 늘 하는 말은 “네가 알아서 해라.”이다.

ㄹ. “다 함께 잘 살자”가 이 회사의 표어이다.

(20)의 큰따옴표로 표시된 명사절상당구성은 기능상 누군가의 말을 옮겨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형식적으로도 종결어미까지 갖춘 독립된 발화에 해당한다. (20ㄱ)의 ‘회답’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를 가리키고 (20ㄴ)의 ‘질문’은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와 의미상 등치가 되며 (20ㄷ)의 ‘철수가 하는 말’, (20ㄹ)의 ‘이 회사의 표어’ 역시 따옴표로 표시된 내용을 가리킨다.

이선웅(2005:60-74)에서는 이들 범주를 두고 명사구 상당어라고 하였다.¹¹⁴⁾ 이 논의에서는 어떤 범주 XP가 외부적으로만 명사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일 때 그 XP를 명사구 상당어라고 하고 전성어미가 결합할 때는 해당 전성어미가 나타내는 범주가 전환되는 범주의 목표가 된다고 하였다. 위 예에서 보인 예들은 모두 내부적으로는 절의 구조를 갖지만 외부적으로는 명사구로 기능하는 것으로 명사구 상당어에 해당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8)의 ‘S 이것’의 ‘S’를 명사절상당구성으로 파악한다면 ‘이것’과 동일지시를 이루는 두 명사구가 나란히 분포한 것으로 동격 구성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Heringa(2011)에서는 Non-Nominal 동격 구성으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21)

114) 이밖에도 홍종선(1998)은 ‘명사(구) 상당어’, 안명철(1995:32), 신지연(1995:122)에서는 ‘명사 상당어구’, 이남순(1999)에서는 ‘체언 상당어’, 엄정호(1989:120-122)에서는 ‘임시로 범주를 전환해서 명사(구)의 자격으로 출현한 것’ 등으로 지칭하였다(이선웅, 2005:57 재인용).

- a. Ik doe mijn dagelijkse sportoefening, dat wil zeggen ik fiets naar
I do my daily sports exercise that wants say I cycle to
mijn werk.
my work
'I'm doing my daily sports exercise, that is to say I'm cycling to work.'
- b. Marie gaf Piet de bons, dat wil zeggen maakte een einde aan
Marie gave Piet the bump that wants say made an end to
hun relatie.
their relation
'Marie gave Piet the push, that is to say she ended their relation.'
- c. Ik las een intrigerende, dat wil zeggen fascinerende, verhandeling.
I read an intriguing that wants say fascinating discussion
'I read an intriguing, that is to say fascinating, discussion.'
- d. De koningin zit daar, op de tafel.
the queen sits there on the table
'The queen is sitting there, on the table.'

이 예들에서 기울여 표시된 부분은 모두 축어적으로 'that절이 말하는 것'과 그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18)의 구성과 닮아 있다.

'S 이것' 구성에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피인용절을 문맥 지시함으로써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함을 표현하는 구문이다. 이 문맥 의미는 '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래와 같이 '이것'의 '이'를 '이런'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의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2) ㄱ. 그 여자가 현재로는 증언을 해줄 처지가 못된다 이거로군요. <세종 2007, 구어>
ㄴ. 그래서 단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세종 2007, 구어>

(22') ㄱ. 그 여자가 현재로는 증언을 해줄 처지가 못된다 이런 거로군요
ㄴ. 그래서 단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22)에서 나타나는 '바로, 딱, just'에 해당하는 의미가 (22')에서는 간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경희(198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그, 저'는 특정성을, '이런, 그런, 저런'은 뒤에 오는 명사가 가진 속성의 범주를 지시한다고 하였고, 신지연(1995: 367-368)에서는 '이런/그런'이 지시하는 내용은 후행하는 명사와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S 이것' 구성은 피인용절의 내용에 대해 이를 전하는 화자가 완전히 자신이 해석한 바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는 '지시사가 갖는 사태와 화자와의 거리와 관련이 있는데(양명희, 1998: 169-170), '이' 계열은 지시 대상과 화자와의 거리감이 가깝거나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발표에서는 그간 개별 구문으로 다루어져 오던 ‘NP1-(이)라는 NP2’ 구문과 ‘S 이것’ 구문을 동격 구성으로 포괄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된 동격 구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기능을 논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왕에 많은 이론(異論)이 있는 동격 구성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전형적인 동격 구성의 기능도 자세히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동격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망라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희(1998), 명사구 동격 구성의 한 유형,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국문화사, 329-354.
- 김인균(2009), 동격 명사구의 유형 및 범위와 구조, *우리말연구*24, 우리말학회, 59-85.
- 박미은(2021), 현대 한국어 인용명사 구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반석(2012), 한국어 명사구 동격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1995), 현대국어의 지시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33, 태학사.
-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월인.
- 이선웅(2007), 국어 동격 명사구의 개념과 유형, *국어학*98, 국어학회, 159-185.
- 이필영(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경희(1989), 지시사 ‘이,그,저’의 범주 지시, *인문논총*17,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5-27.
- 홍용철(2014), 두 가지 유형의 소위 한국어 동격 구문, *생성문법연구*24, 생성문법학회, 281-306.
- 최웅환(2016), 국어 동격구성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과학연구*77, 언어과학회, 317-344.
- 최윤지(2019),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78, 태학사.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London : Allen & Unwin.[김정우 역(2015), “언어”, 나남]
- Herman Heringa(2011) Appositional constructions. PhD thesis, Univ. of Groningen. LOT Dissertation Series 294.
- Kim, Jong-Bok(2012), Form and Function Mismatch in English Appositional Construction, *어학연구*48(9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09-531.
- Quirk, R. et al.(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gnman.

“동격 명사구 구성의 유형과 기능”에 대한 토론문

김민국(경상국립대)

동격 명사구는 서구 전통 문법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만큼 논의의 역사는 깊지만 그 특수성 혹은 주변성 때문인지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격 명사구 구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주목받지 못하였던 ‘비전형적인 동격 구성’의 문법적 특성과 기능에 주목한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비전형적인 동격 구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해당 구성이 동격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전형적인 동격 구성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등의 논의는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논문을 완성하는 데 조금 더 고려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2ㄴ) 예의 적절성 문제

서론에서 (2ㄱ)과 (2ㄴ)의 밑줄 친 명사구가 동일한 구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2ㄴ)의 밑줄 친 명사구도 (2ㄱ)과 동일한 동격 명사구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2ㄱ), (2ㄴ)의 밑줄 친 명사구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1) 가. A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B송중기

가’. B송중기라는 A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나. A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B배우

나’. *A배우라는 B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2. 동격 명사구의 개념 문제

이 연구에서는 동격 명사구의 개념을 “문장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두 명사구가 인접하여 분포하는 구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전형성의 문제를 따지려면 ‘동일 기능’보다는 ‘동일 지시’에 초점을 두어야 할 듯하다. ‘A(이)라는 B’ 유형의 동격 명사구에서는 A와 B가 동일 지시를 이루기는 하지만 병렬 구성을 이루지 않으므로(즉, 관형 구성을 이루므로) 동일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동격 명사구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동일 지시’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동격 명사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격 명사구의 핵심 개념을 다소 느슨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동일 기능’에 초점을 두면 전형성을 따지기 전에 이미 ‘A(이)라는 B’ 구성은 동격 명사구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3. ‘A(이)라는 B’ 구성의 다양성

(14)와 (14’)의 예를 비교해 보면 ‘A(이)라는 B’ 구성인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이라는 송중기’는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 구성인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는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A(이)라는 B’ 구성이 모두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 (2) 가. 철수, 내 친한 친구는 진짜 사나이다.
 가'. 내 친한 친구, 철수는 진짜 사나이다.
 나. 철수라는 내 친한 친구는 진짜 사나이다.
 나'. *내 친한 친구라는 철수는 진짜 사나이다.

‘내 친한 친구, 철수’, ‘철수, 내 친한 친구’는 (15)의 예에서 제시했듯이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이러한 동격 명사구가 모두 ‘A(이)라는 B’ 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라는 B’ 구성이 (14), (14')의 예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A와 B가 어떠한 조건을 이룰 때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판단하기에는 ‘A(이)라는 B’ 구성이 전형적인 동격 명사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려면 A와 B가 모두 한정적이어야 할 듯하다. ‘빈센조의 남자 주인공’, ‘송중기’는 모두 한정적이지만 위의 예에서 ‘철수’는 한정적이지만 ‘내 친한 친구’는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예에서 (2가)와 (2나)가 동격 명사구이기는 하지만 전자는 비제한적 용법이고 후자는 제한적 용법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4. (16) 예의 적절성 문제

이 연구에서는 (16)의 밑줄 친 구성이 ‘A(이)라는 B’ 유형의 동격 명사구로 보고 있지만 동격 명사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동격 명사구는 선행 명사구나 후행 명사구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고 이는 (14')에서 제시한 ‘A(이)라는 B’ 유형의 동격 명사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16)의 밑줄 친 구성은 선행 명사구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3) 가. 혹시 (비오틴라는) *개념 들어보셨는지요,
 나. 가령 저작자가 출판 선정을 (에이라는) *사람한테 했다가, (비라는) *사람도 했다가,
 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세종 때 처음 조선이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 특히 (교열리포트라는) *책이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A(이)라는 B’ 구성에서 A와 B가 모두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6)의 ‘A(이)라는 B’ 구성에서 A는 한정적이지만 B는 한정적이지 않다. 만약 (16)의 밑줄 친 구성도 동격 명사구로 보려면 (14')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인용 구성과의 관련성 문제

(16)의 ‘A(이)라는 B’ 명사구는 모두 ‘A(이)라고 하는 B’ 혹은 ‘A(이)라고 불리는 B’라는 의미를 지니기에 인용 구성으로 판단된다. 물론 인용 동사 ‘하다’의 의미가 매우 탈색되어 있고 그 주어도 상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아래의 예에서와 같은 구성에서도 발견된다.

- (4) 가. 대격이나 사격 등으로 나타나는 [통사적 주어]를 특이격 주어라고 한다.
 나. A: 이 꽃은 뭘니까? B: 네, [이 꽃은] 무궁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16)의 ‘A(이)라는 B’ 구성은 위와 같은 문장이 관계화된 ‘특이격 주어’라는 통사적 주

어’, ‘무궁화라는 이 꽃’ 구성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는 (14')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A(이)라는 B’ 유형의 동격 명사구는 애초부터 동격 명사구라기 보다는 ‘A를 B라고 하다’가 관계화된 결과, 그 성격에 따라 동격 명사구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게 있나 하면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6. 동격 명사구의 다양성

이 연구에서는 동격 명사구의 유형을 망라하고 그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인다고 하고 있지만 다양한 동격 명사구의 유형을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예도 동격 명사구 유형으로 다룰 수 있고 이들의 특성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가. 수량사 구성: 철수가 사과 두 개를 먹었다.

나. 강조사 구성: 철수 자신이 영희를 믿지 못하였다.

삶의 방식이 삶 자체를 바꾼다.

다. 관형격 구성: 올림픽 3관왕의 위업

(A), (B), (C)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 ‘S 이것’ 구성과 강조사 구성의 비교

앞서 언급했지만 동격 명사구에는 ‘철수 자신이 영희를 믿지 못하였다’, ‘삶의 방식이 삶 자체를 바꾼다.’와 같은 강조사 구성도 있다. 이러한 강조의 기능은 ‘명사구+대명사’ 구성에서도 잘 나타난다.

(6) 가. 철수 고것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나. 내가 읽은 책 그거 가져오라고.

이러한 구성은 동일 지시되는 명사구가 병렬된다는 점에서 동격 명사구와 유사하지만 대명사인 NP2가 선행 명사구를 문맥 지시하므로 NP1과 NP2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이는 ‘S+이것’ 구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S+이것’ 구성에서 느껴지는 ‘바로, 딱’의 의미는 강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강조의 의미는 (6)과 같은 구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사구(상당구성)+대명사’ 구성으로 확대하여 논의를 하면 좋을 것이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A(이)라는 B’ 구성은 동격 명사구의 유형을 아주 느슨하게 보더라도 동격 명사구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S 이것’ 구성은 동격 명사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S+이것’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고전문학]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해석한 황진이 문학과 캐릭터 연구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김지현(광운대)

Ⅱ 차례 Ⅱ

1. 서론
2.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 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 (1) 수줄전원(守拙田園)
 - (2) 명철보신(明哲保身)
 - (3) 풍류적(風流的) 삶
3. 결론

1. 서론

본고는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陶淵明)과 도연명 작품의 구절이 시조 작품 속 의미를 어떻게 형상화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동진(東晉)에서 유송(劉宋)으로 넘어가던 급변의 시기에 살았던 도연명은 그가 살았던 당시보다는 후대의 문인 예술가에게 사랑을 받으았으며 후대 중국 문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도연명이 한국 시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조재억은 「한국시가에 미친 도연명의 영향」(1969)을, 이창룡의 「고려시인과 도연명」·「이조문학과 도연명」 등²⁾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 한국 문학사 연구에서 도연명에 대한 연구는 위 연구에서 시작된 바로 ‘귀거래(歸去來)’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옛 선조들이 도연명에 대해 은일지사(隱逸之士)로서, 고궁절(固窮節)을 지킨 분으로서, 그의 삶과 정신을 흠모하고 이를 실제 작품 속에도 형상화하였던 점에 기인한다.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작품은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선조들이 반드시 읽었던 필독서 『고문진보(古文眞寶)』에는 도연명의 작품이 꽤 실려 있다. 이는 당시 선조들이 도연명의 작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의 작품에서 이미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兮辭)>의 경우를 보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차운했음을 볼 수 있다. 이인로 <화귀래사>(『동문선』)·성현 <차귀거래사>(『허백당집』)·최연 <차귀거래사>(『간재집』)·정경세

1) 우리나라 고시가를 살펴보면, 시경을 비롯해서 도연명, 이백, 두보, 소식, 육유 등 많은 중국 문인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교·도교를 포함하여 제자백가서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하상규, 「고시조에 미친 한문화 영향 연구」 1989) 그러나 본고에서는 도연명만을 다루고자 한다.

2) 하상규, 「도연명 수용 원인 규명을 위한 귀거래의 성격분석」, 『국어국문학』12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73면 재인용.

3) 이현우, 「한국에서의 ‘歸去來’에 관한 수용의 양상」, 『중국어문논총』 66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 352면.

〈차귀거래사〉(『우복집』)·신희 〈화귀거래사〉(『상촌집』)·이민성 〈차귀거래사〉(『경정집』)·이지함 〈차도정 절귀거래사〉(『토정유고』)·허균 〈화도원량귀거래사〉(『성소부부고』)·김좌명 〈화귀거래사〉(『귀계유고』)·송 규렴 〈화귀거래사〉(『제월당집』)·임방 〈화귀거래사〉(『수촌집』)·김창집 〈화귀거래사〉(『몽와집』)·신최 〈화 귀거래사〉(『해동사부』)·홍석주 〈화귀거래사〉(『연천문집』)·임헌회 〈화귀거래사〉(『고산문집』)·손순효 〈화 귀거래사〉(『물재집』)·이서우 〈화귀거래사〉(『송파집』)·안중관 〈화귀거래사〉(『회와집』)·홍직필 〈화도연명 귀거래사〉(『매산집』) 등이 확인된다⁴⁾.

이처럼 한문학에서 도연명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⁵⁾. 우리 시가 문학 중 하나인 시조문학에 나타난 도연명과 관련해서 최초로 언급한 분은 도남(陶南) 조운제(趙潤濟 1: 904-1976)이다. 조운제는 국문학사를 조감하면서 ‘강호가도(江湖歌道)’로 칭하고 이에 나타난 자연의 양상을 일반미(一般美)이며, 그 내용이 ‘조화·영원·절로절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⁶⁾ 물론 조운제는 이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도연명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시대 문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국문학의 특징을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자연미의 발견은 도연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진원은 강호가도를 보다 깊이 연구하면서, 아예 ‘귀거래’를 강호가도 연구 속 한 장[chapter]으로 정하고 서술하였다⁷⁾. 도연명의 〈귀거래사〉이후 대체로 ‘귀거래’에 대한 의미는 ‘낙향(落鄉)·귀향(歸鄉)’의 의미로 널리 쓰였으며, 문학적으로 ‘은일(隱逸)’과 ‘향수(鄉愁)’로 수용되었다⁸⁾.

그러나 시조 문학 속에서 활용된 도연명은 ‘귀거래’ 이외에도 다양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주순은 도연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를 확장해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을 살폈으며, 육민수는 시조 텍스트 속 인물 소재의 양상과 이미지에 대한 탐구 속에서 도연명을 살핀 적이 있다⁹⁾.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시조 문학 속에 나타난 도연명과 그의 작품 구절을 살피고 이를 통해 도연명에 대해 당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도연명에 대해 향유하였는 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채택한 시조 텍스트로는 『교본역대시조전서』¹⁰⁾와 『고시조대전』¹¹⁾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4)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남윤수, 「도연명〈귀거래사〉국내인화운작 고석」, 『어문논집』27집, 안암 어문학회, 1987, 63-86면; 하상규, 「도연명 수용 원인 규명을 위한 귀거래의 성격분석」, 『국어국문학』12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71-196면; 조기영, 「귀거래의 수용과 문학적 전개」, 『연민학지』2집, 연민학회, 1994, 194-245면; 이현우, 「한국에서의 ‘歸去來’에 관한 수용의 양상」, 『중국어문논총』 66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 343-363면.

5) 최근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벗어나 도연명의 〈음주〉 20수와 이에 영향 받은 작품들에 대한 논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주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 『한중인문학연구』12, 한중인문학회, 2004, 212-237면; 정숙인, 「상촌 신희의 〈화도시〉 중 〈음주〉 20수 연구: 도연명의 〈음주〉, 소식의 〈화도음주시〉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2, 91-119면 등 현재 30편의 연구가 있다.

6) 조운제, 『국문학개설』(동국문화사, 1955)400-415면(남윤수, 「도연명 “귀거래사” 국내인화운작 고석」 254면 재인용)

7)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대출판부, 1981(증보판), 10~33면.

8) 이현우, 「한국에서의 ‘歸去來’에 관한 수용의 양상」, 『중국어문논총』 66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 343-363면.

9) 김주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 『한중인문학연구』12, 한중인문학회, 2004, 212-237면; 김주순, 「농암 시가에 나타난 도연명 ‘귀거래’의식의 연구」, 『중국학』30집, 대한중국학회, 2008, 205-231면; 육민수, 「시조 텍스트의 인물 소재의 양상과 이미지에 대한 탐구(2)-『고시조대전』작품에 등장한 강태공, 도연명, 유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50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27-148면.

10) 심재완 편저,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출판사, 1972.

11) 김흥규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2.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 〈귀거래사〉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東晉 말(애제 3)에 태어나 남조 劉宋(문제 4)까지 살았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격변의 시기로, 새로 세워진 왕조가 50년을 채 넘지 못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속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민은 이후 조선시대 치열한 당쟁 아래서 사대부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작품화 되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하는 도연명의 130여 편의 시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귀거래사〉·〈도화원기〉·〈오류선생전〉·〈귀전원거〉·〈음주〉 등이 있다. 도연명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자연 즉 전원은 생활공간 즉 삶의 터전(農耕)으로서의 자연이다. 이는 당시대 사령운(謝靈運: 385-433)의 산수자연시와 다른 점이다¹²⁾. 도연명의 작품은 질박(質朴)하고 평담(平淡)하며, 안빈낙도(安貧樂道)하여 고궁(固窮)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¹³⁾.

본고는 그의 작품 중 〈귀거래사〉를 중심으로 시조에서 도연명의 삶과 그의 〈귀거래사〉 구절이 어떻게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는 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 수졸전원(守拙田園)

도연명이 41세에 〈귀거래사〉를 지은 후 42세에 〈귀전원서(歸田園居)〉5수를 짓는다¹⁵⁾. 이 작품 제 1수에 나타난 ‘수졸(守拙)’은 도연명의 〈귀전원서(歸田園居)〉의 핵심 시어이다. ‘졸(拙)’은 ‘졸렬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노자』에서는 ‘자연(自然)’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수졸’은 ‘자연스런 나의 본성을 지킨다’의 뜻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 ‘못난 내 본성을 지킨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국 자신의 본성을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도연명에게 있어서 자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본래 성품이 자연을 닮아 억지로 애쓰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⁶⁾’라 읊었으며, 귀거래하여 전원으로 돌아감은 자신의 본성을 따른 것이라 읊었다.

陶淵明 주근 後에 또 淵明이 나뉘 말이
밤먹을 네 일흠이 마초와 7틀시고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괴오 내오 다르랴 (청진, 0146)¹⁷⁾

12) 원행패 저, 박종역 외 역, 『도연명 연구』, 학고방, 2017, 227-240면.

13) 첸즈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 글항아리, 2015.

14) 형상화는 문학에서 창작자가 의도한 바를 문학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 동시에 수용자가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단서이다.(전가람, 「국어-미술 융합 교육을 통한 고전시가의 ‘형상화’ 교육 방안 연구-안민영의 〈매화사〉와 김홍도의 〈백매〉의 언어·조형 표현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11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7, 289면)

15) 본디 『문선』에는 〈귀원전거(歸園田居)〉 5수로 된 연작시이다, 『고문진보』에 전집에는 제목이 〈귀전원거〉로 바뀌었으며, 연작시가 아닌 권1, 권2, 권 3 등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작품의 제목을 많은 이들이 향유했던 〈귀전원거〉를 따르고자 한다.

16) 도연명, 〈귀거래사〉서문 : 質性自然, 非矯勵所得.

17) 대체로 인용한 시조는 김흥규 편저, 『고시조대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에서 인용한 것

김광옥(金光煜, 1580-1656)의 〈울리유곡(栗里遺曲)〉 17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울리(栗里)는 도연명이 심양(溟陽)으로 돌아 온 후 살았던 마을이다. 여산의 남쪽으로 배산임수의 명당이며, 풍경도 수려했던 곳이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방도공구택(訪陶公舊宅)〉의 서문에 ‘여산을 노닐다 시상을 거쳐 울리를 지나 도연명이 생각나 그의 집을 방문했다.[遊廬山, 經柴桑, 過栗里, 思其人, 訪其宅.]¹⁸⁾’라는 구절로 보면 당나라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광옥은 1606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역임했다. 이후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으며, 1617년 폐모 논위에 참석하지 않아 삭직되어 고양에 은거하였다. 이후 인조반정 후 복관되어 효종 즉위 후에는 지중추부사 겸 판의금부사를 거쳐 우참찬까지 올랐다. 이 작품은 김광옥이 치사 후에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광옥은 치사 후 낙향한 고양의 이름을 울리 - 밤마을이라 명하고 이를 통하여 도연명을 환기하였다. 종장의 ‘수拙전원(守拙田園)’은 도연명의 〈귀전원거〉 1수에 있는 ‘본성대로 살려고 전원으로 돌아왔노라 [守拙歸田園]’를 줄인 말이다. 이 〈울리유곡〉 17수는 시조문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작품은 강호가도를 읊었던 강호시가와 달리 ‘농가의 생활상’, ‘야인적 흥취’, ‘질박한 삶의 자족감’을 노래한 전가시조(田家時調)로 보고 있는 작품이다¹⁹⁾. 이 작품을 기준으로 시조사에서 전가시조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연이 관념의 대상이 아닌, 노동의 대상이거나 실질적 삶의 터전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²⁰⁾ 전원생활과 농민의 처지에 대한 경험들이 작품 속에 온전히 들어난다는 점은 바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귀전원거〉 5수와 일치되는 지점이다. 위 두 작품의 특색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원이 단순한 자연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연명의 시어는 평이하다. 그럼에도 그 내용은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녹아 있다²¹⁾. 김광옥은 스스로 도연명으로 자처하였으며, 17수의 연작시 〈울리유곡〉은 도연명의 작품이 곳곳에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도연명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은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 〈효빈가(效顰歌)〉이다. 이 작품은 이현보는 1498년(연산군 4)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을 두루 역임하고 70이 넘어서 노령으로 치사(致仕)하였다.

㉑ 靑山環擁覆簷端 청산은 처마 끝을 감싸 둘렀으며
左右亭臺對碧灘 좌우 누대는 푸른 여울 마주하였네
稻熟平原歸思切 벼 익어가는 들판으로 돌아갈 맘 절실하나
倩工摸取上屏看 화공에게 병풍으로 그리게 하곤 볼 뿐이라²³⁾

㉒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 리 업시

이다. 이외에 『교본역대시조전서』에서 인용한 시조의 경우만 따로 주석을 달겠다.
18) 첨즈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 글항아리, 2015, 292면에서 재인용.
19) 고정희,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울리유곡〉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97-98면.
20) 고정희,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울리유곡〉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98면.
21) 원행패 저, 박종역 외 역, 『도연명 연구』, 학교방, 2017, 3-39면
22) 〈울리유곡〉 17수와 도연명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기약한다.
23) 이현보, 『농암집』 권 1, 〈憶汾川伊川兩家〉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 가고 엇델고

草堂애 淸風明月이 나명 들명 기다리느니 (농암 .0001)

㉔는 이현보가 44세에 영천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고향 안동부 예안 분천(汾川)과 이천(伊川) 두 곳의 집을 그리워하며 낙향하고 싶으나 할 수 없던 마음을 한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현보는 귀거래를 꿈꾸나 이를 수 없어 대신 <귀거래도>를 병풍에다 그려 놓고 보았다²⁴⁾. ㉕는 이현보의 <효빈가>이다. 이 작품에는 도연명의 <귀거래해사(歸去來兮辭)>의 첫 구절 ‘歸去來兮, 田園將蕪, 胡不歸’을 그대로 가져와 초장에는 ‘귀거래’로 중장에는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 가고 엇델고’를 그대로 옮겼다. 이현보는 이 시조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이름을 직접 서술하지 않았다. 다만 도연명의 대표작인 <귀거래해사>의 첫 구절로 시조의 초장과 중장을 형상화함으로써 이현보가 치사 후 귀향하고자 한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㉔보다는 ㉕에서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도연명의 삶과 문학은 41세에 지은 <귀거래해사>로 나눌 수 있다²⁵⁾. 이러한 <귀거래해사>의 첫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도연명의 삶의 궤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효빈가>는 이현보가 지향하는 삶을 충실하게 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현보가 치사 후에 지었다고 전하나 시조의 내용은 아직 귀거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인물과 작품 속 구절만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시조 향유층이 그 인물의 의미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즉 인물의 행적 또는 작품의 한 구절만으로도 시조의 의미 파악이 가능한 것은 제시된 인물의 행적과 작품 구절이 갖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시조를 읽는 독자에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도연명과 <귀거래해사>에 대한 조선조 문인들의 학습은 도연명의 작품의 단어나 성구 그 자체가 의식적으로 도연명을 연상하고 공감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현보가 <효빈가>초장에서 말한 것처럼 ‘귀거래’를 노래해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은 조선조문인들의 내면에 깊게 들어 있다.

淵明이 歸去來辭 짓고 潯陽으로 돌아갈 켜

雲無心이 出岫연을 鳥倦飛而知還이로다

암아도 五柳淸風을 못 밋출싸 호노라 (해주, 0374)

李鼎輔(1693-1766)의 작품으로 도연명의 <귀거래해사>를 짓고 팽택령을 그만두고 고향인 심양으로 내려온 사실을 그대로 초장에다 적었다. 그리고 중장은 <귀거래해사>의 한 구절 ‘구름은 무심히 산봉우리에서 나오고, 날다 지친 새는 둥지로 돌아올 줄을 아는구나[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를 그대로 옮겼다. 도연명의 작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새’이다. 특히 그의 작품 곳곳에 나타나는 새는 지친 날개를 접고 집으로 돌아오는 존재이며,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었

24) 이 시에 이현보는 ‘兩家有泉石田園之樂, 欲歸未歸, 圖揭寢屏, 留詩其上, 欲使知者和之.’라 주석을 달았다.

25) 원행패 저, 박종역 외 역, 『도연명 연구』(학고방, 2017)과 첸즈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글항아리, 2015)를 참고.

26) 조흥욱, 「시조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평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28권,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51면.

던'²⁷⁾ 존재이다. 이러한 새의 이미지는 곧 도연명의 귀거래를 표상하는 핵심 이미지이다. 이러한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새, 즉 자신이 머물 곳을 아는 새를 통하여 도연명은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정보 또한 이를 시의 종장에다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귀거래를 희망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한탄하는 것으로 종장의 시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다.

㉔ 歸去來 歸去來 하면서 六期를 다 디내와라
田園이 將蕪 ㅎ거늘 後一年은 므스 일고
두어라 亦君恩이시니 슬허 므스 ㅎ리 (개호. 0011)

㉕ 東籬의 傲霜花는 禁醉鶴翎 휘들어다
酒中仙 陶淵明의 ㄴ흔 벗이 네로고나
우리도 聖恩을 갑파든 너를 좇차 놀리라 (청요. 0026)

㉔는 김득개(金得可: 1547-1591)의 <재관(在官)>이라는 작품이며, ㉕는 생몰년을 알 수 없으나 조선 중~영조 때의 가인(歌人)이었던 김진태(金振泰)의 작품이다. 이 두 작품 또한 도연명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나 '수졸전원'하지 못함이 임금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 서술하였다. 앞서 이정보는 도연명처럼 귀거래할 수 없음을 이야기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득개와 김진태의 시조에 답이 들어 있다.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려 해도' 임금의 명을 받은 벼슬 생활을 버릴 수 없음을 읊은 것이다.

김진태의 시조는 '귀거래를 인용하지 않았다. 도연명의 <음주(飲酒)>20수 중 특히 제 5수²⁸⁾의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다가 멀리 남산을 바라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를 가지고 와서 진처사(眞處士) 도연명의 인품과 국화의 오상고절(傲霜孤節)을 함께 형상화하여, 국화에 도연명을 의미를 더하고 임금의 은혜를 다 갚은 후에 국화와 함께 노닐 것이라 시상을 달았다.

여러 시조 작품을 살펴보면, 도연명은 '수졸전원'의 이미지로 귀거래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모든 시조의 작품에서 '수졸전원'의 이미지가 형상화 된 것이 아니다. 다음은 이 '수졸전원'의 이미지가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이미지로 변화된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명철보신(明哲保身)

명철보신은 사대부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난세를 살아가는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귀거래'에 대한 도연명의 '고궁절(固窮節)'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는 소거되었다. 다만 귀거래는 바로 명철보신의 한 방법이었다.

27) 도연명, <귀전원거> 1수 : (중략) 羈鳥戀舊林, 池魚思故淵. (중략) 久在樊籠裏, 復得返自然.

28) 『고문진보』 전집 권 2에는 <雜詩>로 소개되어 있다. 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 飛鳥相與還. 此中有真意, 欲辯忘言.

뜻 있는 사람은 혹은 파문하여 독서삼매에 유유자적하려 하였다. 조선의 산림학파(山林學派)란 것은 이리하여 생긴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세상 속계(俗界)의 일을 잊어버리고, 환해(宦海)의 풍파야 높건 말건 나는 모른다 하는 듯이 산간수변(山澗水邊)에 가어웅(假漁翁)이 되어 하룻날을 보내며 벼를 만나면 술병을 열어 놓고 시를 읊어 밤이 깊어 가는 것을 모른다는 완전한 태평한민적(太平閑民的) 생활이었다. 이것은 확실히 당쟁(黨爭) 사회의 이면(裏面)에 움직이는 동중정(動中靜)의 상태로 무시할 수 없는 한 사회상이었다²⁹⁾.

조운제의 말처럼 조선시대 사대부가 원한 ‘강호로 돌아가재(귀거래)’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귀전원시>와는 다른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구호로 당쟁의 도피 방법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도연명처럼 실천적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 뿐으로 남은 것이다³⁰⁾.

㉞ 萬古 歷代 蕭蕭 昏 중에 明哲保身 누고누고

范蠡의 五湖舟와 張良의 謝病辟穀 疏廣의 散千金과 季鷹의 秋風江東 陶處士의 歸去來辭
| 라

이밧긔 碌碌 昏 貪官汚吏之輩를 헤여 무슴 ㅎ리오 (청진. 0523)

㉞ 萬古 歷代 人臣之中에 明哲保身 그 ㄴ려고

范少伯의 五湖舟와 張子房의 謝病辟穀 疏仲翁의 散千金과 張季鷹 秋風江東 陶淵明의 歸去來로다

世上에 碌碌 昏 丈夫야 일너 무슴 ㅎ리요 (성악. 0048)

㉞ 萬古 歷代 人臣之中에 明哲保身 누고 누고

范蠡의 五湖舟와 張良의 謝病辟穀 疏廣의 散千金과 季鷹의 秋風江東 陶淵明의 歸去來로
다

그나마 碌碌 昏 丈夫야 부를 줄이 이시라 (청영. 048)

㉞·㉞·㉞의 사설시조는 초장과 중장은 거의 일치하고, 종장만이 조금 다르다. 이는 이 작품이 당대에 활발하게 향유되었음을 보여준다. ‘명철보신’의 핵심어로 초장을 열고는 중장에서는 ‘명철보신’한 중국 왕조의 인물을 나열하고 있다. 명철보신에 성공한 인물로 범려(范蠡)·장량(張良)·소광(疏廣)·장한(張翰) 그리고 도연명을 거론하였다. 재밌는 것은 범려·장량·소광은 이름으로 서술하고는, 장한은 계웅(季鷹)이라는 자로, 도연명은 도처사(陶處士)로 명명하였다는 점이다.

범려는 춘추시대 월나라 구천의 장수로,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기고 월나라를 떠나 상인으로 성공했다. 장량은 유방의 책사로 한나라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가 건국되자 신선술을 닦는다며 곧 정치에서

29) 조운제, 『국문학사』(김주순, 「농암 시가에 나타난 도연명 ‘귀거래’의식의 연구」, 『중국학』30집, 대한중국학회, 2008, 2011면) 재인용.

30)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10면.

물러나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소광은 한나라 선제(宣帝)때의 문신으로 태자의 사부였다. 소광은 나이를 들어 치사하였는데, 황제와 태자가 각각 금을 선물로 주었다. 소광은 금을 일가친척들과 나누어 쓰고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았다³¹⁾. 장한(張翰)은 진(晉)나라 오군 사람으로 자는 계응(季鷹)이다. 그가 일찍이 대사마 동조연(大司馬東曹掾)으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고는 고향인 오군의 순채와 농어회가 그림다며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³²⁾. 도연명은 팽택령을 뚫지 80일 만에 <귀거래사>를 짓고는 돌아왔다.

위의 작품은 ‘명철보신’이라는 주제를 초장에 적고는 신하로서 공적을 이루고는 구천과 유방이 내린 재상직을 과감히 버리고 물러난 범려와 장량을 적었다면, 소광은 재물을 통해 명철보신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소광은 ‘어진 사람에게 재물이 많게 되면 자신의 뜻을 손상시키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재물이 많게 되면 그의 허물이 많아진다[賢人多財損其志, 愚人多財益其過]³³⁾’라 말하고 임금과 태자에게 받은 금을 일가친척과 두루 나누었다고 한다. 장한과 도연명은 위진남북조 난세에 전란의 조짐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고사 속 인물을 수용한 작품은 고사 속 인물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포폄과 가치 판단을 통해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³⁴⁾. 작가는 종장에서 현재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을 적었다. ㉠·㉡·㉢의 시조의 초장과 종장은 거의 일치하나 종장은 차이가 난다. 종장의 차이는 작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지 보여준다. ㉠의 작가는 ‘보잘 것 없는 탐관오리 무리를 헤아려 무엇하겠느냐?’며 탐관오리에 대한 비난을 던졌다. 즉 명철보신했다 말하는 이들이 실은 탐관오리일 뿐이라는 신랄한 비난인 것이다. 이와 달리 ㉡·㉢는 ‘탐관오리’ 대신에 ‘보잘 것 없는 장부’로 바뀌었다. 다만 ㉡는 ‘보잘 것 없는 장부를 말해 무엇 할 것이냐’로 서술하고 ㉢는 ‘보잘 것 없는 장부야 부러워 할 것이 있으랴’라며 서술어가 달라졌다.

도연명은 <의만가사(擬挽歌辭)>3수와 <자제문(自祭文)>을 63세 9월에 짓고는 11월에 죽었다³⁵⁾. 도연명은 ‘잘잘못을 다시는 알지 못하니 시시비비인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천년만년 지난 후에는 그 누가 영화와 치욕을 알래[得失不復知, 是非安能覺. 千秋萬歲後, 誰知榮與辱.]³⁶⁾’라에서 읊었으며, ‘생전에 명예를 귀히 여기지 않았으니 누가 중히 여겨 뒷날에 칭송하리. 인생살이 실로 어렵거늘 죽는다 한들 어떠하리. 아! 애통하도다.[匪貴前譽, 孰重後歌. 人生寔(實)難, 死如之何? 嗚乎哀哉!]³⁷⁾’라 하였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도연명은 이처럼 다 잊혀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역사 속에서 도연명은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명철보신’은 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로 볼 수도 있으나, 역사에 두고 두고 살아남는 방도이기도 하다. ㉠·㉡·㉢의 종장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결국 당대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을 비판한 것이 된다.

(3) 풍류적(風流的) 삶

31) 소광에 대한 고사는 『소학』, 『명심보감』, 『천자문』에 두루 보인다.

32) 『진서(晉書)』 권 92 「문원열전」 <장한>

33) 『명심보감』 「성심편」.

34)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8권, 한국시가학회, 2000, 241면.

35) 찰스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 글항아리, 2015, 16-23면.

36) 이치수역주, 『도연명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5, 262면.

37) 이치수역주, 『도연명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5, 370-378면.

그러나 시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구절의 의미는 ‘풍류적 삶’으로 이미지화된다는 점이다.

百草芳草 봄바람을 사람마다 즐겨할 제
登東臯以敍嘯 하고 臨清流而賦詩로다
우리도 綺羅群 거나리고 踏青登高 하리라³⁸⁾

고종 때 가객인 안민영(安玟英)의 작품이다. 중장은 〈귀거래사〉의 구절을 그대로 옮겼다.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가에서 시를 짓기도 하노라[登東臯以舒嘯，臨清流而賦詩.]’의 구절에 한글어미만 붙여 중장을 형상화하였다. 도연명은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에서 ‘좋은 계절을 마음에 품고 홀로 거닐다가 혹 지팡이를 세워두고 김매고 복돋아주노라.[懷良辰以孤往，或植杖而耘耔.]’라고 봄을 맞아 천천히 산보하며 봄을 즐기다가도 혹 잡초가 난 곳을 보면 지팡이를 세워두고 김을 매는 농촌 생활의 한 단면을 읊고 있다. 그러나 안민영의 작품에서는 농촌 생활의 실제적 삶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초장에서 백화요초가 피어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 봄을 즐긴다고 하고는 중장에서 ‘동쪽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고 맑은 물가에서 시를 짓기도 한다’며 사대부들의 봄놀이 풍경을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한 구절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중장에서 우리도 비단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언덕에 올라 답청을 즐기자고 한 것이다.

생활터전으로서의 자연을 읊었던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봄을 즐기는 풍류객으로서의 도연명의 이미지만을 꺼내서 이를 바탕으로 시조를 읊은 것이다. 이러한 풍류적 삶의 이미지는 다음 시조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黃山谷 도라드러 李白花를 찢거 쥐고
陶淵明 촛조리나 五柳村 드러가니
葛巾에 술 듯는 소리 細雨聲만 너기노라 (해수, 0357)

이 시조에서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의 오류(五柳)와 〈음주〉 20수 중 제 20수의 ‘만약 다시 통쾌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공연히 머리 위의 갈건을 저버리는 것이리[若復不快飲，空負頭上巾]’라는 구절에서 사용한 ‘갈건(葛巾)’을 차용하였다. ‘갈건’에 대해서는 〈도연명전(陶淵明傳)〉에서 소통(蕭統)은 술이 익자 머리에 쓰고 있던 갈건을 벗어 술을 걸렀다며, ‘갈건녹주(葛巾漉酒)’를 적어 두었다. 이후 ‘갈건’은 막 익은 술을 거르는 소박한 도구를 지칭하는 시어로 통용되었다. 이 시조에서도 오류촌과 갈건을 통해 도연명의 풍류적 삶을 형상화한 것이다.

황산곡(黃山谷)은 북송 때 시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을 호로 부른 것이며, 이백화는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과 꽃을 합쳐 부른 언어유희이다. 이 언어유희를 통해 황곡산 구비 넘고 이백꽃 꺾어 오류촌으로 도연명을 찾아 간다는 초장에서 중장까지의 공간의 이동은 황정견의 문학과 이백 시의 정수를 맛보고 도연

38) 심재완 편저,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출판사, 1972.

명의 문학으로 들어가는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문학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장에서 ‘갈건’에다 술을 거르는 행위를 봄비의 청각적 이미지로 바꿨다. 이 작품은 산골짜기라는 자연적 이미지와 황정건이라는 문인, 꽃으로 표현된 이백이라는 걸출한 시인을 교직하고 이에 도연명의 이미지를 통하여 더욱 깊어진 풍류적 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은 사대부의 세계관적 지향 및 예술적 풍류적 미감까지도 제대로 구현해 내고 있다³⁹⁾.

턱빅이 자넨냥은 호아장출환미쥬하고
 엄자름 자네는 동강 칠리탄에 은닌 옥척 낙과 안쥬 담당호소 도연명 자네는 오현금을 등지더라
 등실 타고 장지방 자네는 계명산 추야월에 옥통소만 슬니 불소
 그 남아 글 짓고 춤 쥬고 노리 부르길냥 니 다 담당험세 (남태. 0193)

이 사설시조는 재밌게도 이태백에게는 맛좋은 술을 준비시키고, 엄광에게는 물고기 잡아 안주 준비시키고, 도연명과 장량에게는 각기 악기 거문고와 옥통소를 준비시킨다. 그렇게 술과 안주 풍악을 준비하고는 글짓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모두 시적 자아가 담당한다고 하였다. 도연명은 음률을 터득하지 못했기에 줄없는 거문고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매양 술에 취하면 거문고를 어루만지며 뜻을 기탁했다고 한다⁴⁰⁾. 이후 무현금(無絃琴)은 곧 도연명을 대유하며, 도연명의 풍류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무현금이 아닌 오현금으로 바뀌어 있다. 이는 도연명에 대한 정확한 고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풍류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도연명과 거문고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설시조 속 이백과 엄광, 도연명, 장량 등은 당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적 이미지인 것이다.

3. 결론

조선 시대 사대부 문인들이 사랑했던 중국 문인 중에서 도연명과 도연명의 <귀거래혜사>구절의 의미가 시조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연명의 ‘귀거래’는 이후 조선조 문인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실제 도연명처럼 귀거래를 하지는 않았다.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귀거래란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한가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했다.

시조 속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혜사>구절을 형상화할 때 가장 주된 의미는 ‘수졸전원’의 의미였다. 그러나 곧 명철보신의 목적성으로 바뀐다. 이후 좀 더 후대로 가면 도연명의 귀거래의 의미는 잡초도 뽑고 물도 주어야 하는 구체적 농부로서의 삶은 소거되고 봄이 와서 만물에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에 답청을 즐기는 풍류적 의미로만 남게 된다.

39) 육민수, 「시조 텍스트의 인물 소재의 양상과 이미지에 대한 탐구(2)-『고시조대전』작품에 등장한 강태공, 도연명, 유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50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40면.

40) 소통(蕭統), <도연명전(陶淵明傳)>: (중략) 淵明不解音律, 而畜無絃琴一張, 每醉適, 輒撫弄以寄其意. (후략)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왕숙민, 『陶淵明詩箋證稿』, 상무인서관, 1975.
이치수역주, 『도연명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5.
원행패 저, 박종역 외 역, 『도연명 연구』, 학고방, 2017.
첸즈시 저, 이규일 역, 『도연명전』, 글항아리, 2015.
최치원, 『고운선생문집』(고전번역원BD)

□ 단행본

-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김흥규 편저,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신경숙 외 5, 『고시조 문헌 해제』, 보고사, 2012.
심재완 편저,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출판사, 1972.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 논저

- 고정희, 「17세기 전가시조의 서정적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율리유곡〉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3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97-124면.
강경희, 「한국과 중국의 〈귀거래도〉비교연구 - 〈귀거래사〉의 변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78집, 중국어문학연구회, 413-436면.
김주순, 「시조와 가사에 나타난 도연명 음주시의 수용양상」, 『한중인문학연구』12, 한중인문학회, 2004, 212-237면.
김주순, 「농암 시가에 나타난 도연명 ‘귀거래’의식의 연구」, 『중국학』30집, 대한중국학회, 2008, 205-231면.
김 진, 「한국 화도음주시 국화 이미지 연구」, 『연민학지』23권, 연민학회, 2015, 174-191면.
남윤수, 「도연명〈귀거래사〉국내인화운작 고석」, 『어문논집』27집, 안암어문학회, 1987, 63-86면.
남정희, 「이정보 시조 연구-현실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8권, 한국시가학회, 2000, 232-252면.
노우정, 「주희의 도연명의 시가 수용과 인격비평-주희에 의한 도연명의 충신으로서의 전범화」, 『온지논총』 35집, 온지학회, 2013, 139-172.
변승구, 「고시조에 나타난 ‘학’의 수용양상과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79집, 어문연구학회, 2014, 221-245면.
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논집』 1집, 반교어문연구회, 1988, 139-157면.
육민수, 「시조 텍스트의 인물 소재의 양상과 이미지에 대한 탐구(2)-『고시조대전』작품에 등장한 강태공, 도연명, 유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50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127-148면.
윤정화, 「조선후기 시조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와 그 변모-김천택, 김수장, 안민영을 중심으로」, 『문창어문학회』31집, 문창어문학회, 1994, 99-118면.
이남종, 「조선시기 도연명시의 주석과 수용」, 『고전번역연구』 4집, 한국고전번역학회, 2013, 91-140면.

- 이현우, 「한국에서의 ‘歸去來’에 관한 수용의 양상」, 『중국어문논총』 66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 343-363면.
- 전가람, 「국어-미술 융합 교육을 통한 고전시가의 ‘형상화’ 교육 방안 연구-안민영의 〈매화사〉와 김홍도의 〈백매〉의 언어·조형 표현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11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7, 289-323면.
- 정숙인, 「상촌 신희의 〈화도시〉 중 〈음주〉 20수 연구: 도연명의 〈음주〉, 소식의 〈화도음주시〉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2, 91-119면.
- 조기영, 「귀거래의 수용과 문학적 전개」, 『연민학지』2집, 연민학회, 1994, 194-245면.
- 조재역, 「한국시가에 미친 도연명의 영향」, 『문호』5, 건국대학교, 1969, 188-222면.
- 조흥욱, 「시조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 연구-평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28권,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9, 39-61면.
- 최웅혁, 「도연명의 〈雜詩〉12수에 대한 재론」, 『외국문학연구』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427-450.
- 최한선, 「도연명이 호남시단에 끼친 영향」, 『도아인문학』 6집, 동아인문학회, 2004, 1-31.
- 하상규, 「도연명 수용 원인 규명을 위한 귀거래의 성격분석」, 『국어국문학』12집,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171-196면.
- 허왕욱, 「『금옥총부(金玉叢部)』의 연행교본적 성격과 가곡사적 위상」, 『청람어문교육』29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299-325면.
- 황순미, 「1998학년도 졸업논문 요약: 고시조를 통해 본 도연명의 영향 연구」, 『수련어문논집』 16권, 수련어문학회, 1989, 131-132면.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귀거래사」 구절에 대한 의미 형상화 양상>에 대한 토론문

고승관(제주대)

김지현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는 도연명 「귀거래사」의 구절이 조선 시대 사대부 시조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도연명을 어떻게 향유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발표자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견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 “이현보는 이 시조에서는 도연명이라는 이름을 직접 서술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셨는데, 농암이 「효빈가 서」에서 “이 노래는 본래 도연명의 귀거래사로 지은 까닭으로 효빈이라 한다.(歌本淵明歸去來辭而作 故稱效嘖)”라고 밝힌 바가 있음을 보충 서술하면 작품 해석의 타당성이 보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작품의 제목인 「효빈가」의 “효빈”의 의미를 더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작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효빈(效顰)은 월(越)나라 미인 서시(西施)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작품의 초장을 살펴보면, “‘귀거래’를 노래해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조선조 문인들의 내면에 깊게 들어 있다”는 발표자님의 해석에 더해, 농암 자신의 치사귀은이 도연명의 수졸전원(守拙田園)을 모범으로 하고 있지만, 타인에게 자신이 비취질 때 효빈(效顰)과 같이 평가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의 마음과,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겸손함이 혼용되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2. 발표자께서는 ‘수졸전원’의 이미지가 ‘명철보신’의 이미지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좀 더 후대로 가면 답청을 즐기는 풍류적 의미로만 남게 되었다고 언급하셨는데, 발표문만 보아서는 ‘수졸전원’의 이미지와 ‘명철보신’의 이미지, ‘풍류적 삶’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각각의 향으로 묶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시하신 세 이미지가 조선 시대 사대부 시조에 나타난 도연명의 향유 양상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는 논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변화한 배경과 동인을 보충 서술해주신다면 귀거래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흐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그의 삶에서 비롯되는 ‘귀거래’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도연명의 귀거래와는 달리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귀거래란 치사 후에 고향에서 한가로운 삶을 영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발표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도연명의 귀거래를 숭앙하면서도 왜 다른 의미로 귀거래를

사용하였고, 그 구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이었는지를 시조 작품들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이 사대부 시조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고 흥미 있는 논의였습니다. 혹 제가 발표문을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지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르시시즘(narcissism)으로 해석한 황진이 문학과 캐릭터 연구

김지은(중앙대)

1. 들어가기
2.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황진이 캐릭터
3. 작품에 형상화된 나르시시즘
4. 나가기

1. 들어가기

황진이는 21세기에도 끊임없이 소환되고 호명되고 있다. 몇 년 전 개봉했던 영화 포스터의 한 문구처럼 ‘16세기를 살다간 21세기의 여인’이라는 말은 황진이가 지닌 성격과 파워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황진이는 비록 과거 중세를 살다간 여성이지만 그녀만이 지니는 개성과 캐릭터는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해도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하기만 하다. 그 친숙함은 황진이가 그간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해 재생산된 까닭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지닌 세계관과 더불어 특히 스스로를 대하는 자기애(自己愛, self-love)적 태도와 욕망은 오늘날 젊은 대중들의 태도와의 접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애에 대한 인식들은 크리스터퍼 래쉬가 그의 저서 『나르시시즘의 문화』에서 지적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적 성향과 풍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시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자기애적 특성들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애적인 사회가 지속해서 자기애적 성격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자기애적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성향을 가졌다고 느끼는 이들에게서는 매우 자신만만하고 자기과시적이며 자신들의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매우 목표중심적이고 성공적인 면들이 종종 부각되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 독특하게 자기애적 성향을 대변해주는 소위 “공주병, 왕자병”신드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⁴¹⁾

그러나 이러한 신드롬이나 현상을 단순히 사회문화적으로 현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 인간자체의 고유한 본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가 있다. 황진이가 살았던 16세기 과거의 여성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자기애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삶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애와 같은 속성은 인간이라면 본래 생래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천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타적이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41) 홍이화, 「자기심리학 이야기1, 나르시시즘, 지독한 자기사랑」,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10.6. p.272에서 재인용.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자기과시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황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아님은 자명하다. 주지하다시피 기생은 조선시대 八賤의 하나로 신분의 위계상 가장 열등한 위치에 속하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도취와 자신감이 지극히 충만하고 그 속성들이 그대로 문학 속에 형상화되고 있다. 그간 이루어진 황진이와 그녀의 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체적’이거나 ‘당당한 여성’, ‘藝人’으로서의 평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주체적’이고 ‘당당함’에 대해서 어휘가 주는 의미의 무게 자체로 과몰입되어 황진이를 평가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그녀가 당당하지 않거나 비주체적인 인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황진이의 자신만만하고 당찬 태도에 기인하는 내적속성의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한 연유에서 시작하여 그녀가 지니고 있는 그 당당함의 실체를 성격심리학적·정신분석학적 측면인 나르시시즘적 입장에서 살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랑하는 대상, 한 개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아화⁴²⁾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일련의 모습들은 단순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만 간단히 일갈하기에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주지한대로 황진은 주체적, 당당함, 개방성 등의 차원에서 그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김상진은 황진이가 그의 시조 <청산리 벽계수야>에서 ‘감정의 거리두기’와 함께 ‘우월적으로 인식하기’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⁴³⁾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요소가 바로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자신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면모들은 그녀에 대한 여러 일화와 함께 <청산리 벽계수야> 시조 이외에도 한시를 포함한 작품 곳곳에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부분 그녀가 자신의 작품 전면에 우월감을 드러내는 화법을 즐겨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상대에 대한 우월감은 황진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속성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투영되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층위의 자기애적 모습들이 솔직하지만 거칠지 않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한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황진이 작품을 포함한 모든 문학작품들에 대해서는 섬세한 독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가 어떠한 태도적 기제로 당차고 자신만만한 태도들을 견지할 수 있었는지 그녀와 관련한 일화와 함께 작품 세계의 면면을 살펴 단순히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다분히 편향적으로 독해한 일단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다시 황진이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본 논의가 다소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나르시시즘을 지닌 나르시시스트로서의 황진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지점에서 시사점을 던진다.

2.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황진이 캐릭터

42)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자아화’는 조동일 선생의 갈래이론에서 ‘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43) 김상진, 「청산리 벽계수와 텐미니츠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한국언어문화』, 2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193~194쪽 참조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기애(自己愛, self-love)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독일의 네케가 만든 용어이다.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들은 자기애라는 용어로부터 느껴지듯 일상생활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대인관계에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자기애와 관련하여 “자기(self)”란 말 역시 정상적인 자기사랑이거나 건강한 자존감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어떤지 매우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포괄하는 무엇인가 바람직하지않은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한다. 리비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발산되는 사랑으로, 이는 대부분 유아기에서 청소년의 시기까지 주체성을 형성하는 동안 거쳐가는 하나의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일단 발달한 후에 퇴행하여 이 시기를 재현하기도 한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보통 유아기가 아닌 성인이 퇴행으로 보이게 되는 나르시시즘은 인격적인 장애증상으로 본다. 이는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거나,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상 속에서 만족을 얻는데 매우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프로이트⁴⁴⁾의 나르시시즘에 대해 코허트는 입장을 달리한다. 코허트는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의 단일적 발달노선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두 개의 분리되고 독립적인 나르시시즘의 발달을 주장한다. 즉 그 하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사랑으로의 발달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성숙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으로의 발달이다. 여기에서 일차적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대상사랑으로의 발달은 프로이트가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나 코허트는 대상사랑으로부터 다시 자기사랑으로 퇴행하는 의미에서의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 아닌 일차적 나르시시즘(유아적 자기애)으로부터 보다 성숙한 형태로 변형되는 나르시시즘(건강한 자기존중, 자기사랑)의 고유한 자기발달을 말하고 있다. 코허트에게 있어서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가 아니라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는 대상(자기대상)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즉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은 자기관심, 자기집중 혹은 자기몰

44)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을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이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분류하여 이를 나르시시즘의 발달노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것은 유아자신과 다른 대상이 전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엄마가 유아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눈을 맞추거나 때에 맞게 젖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축축한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 유아의 모든 욕구의 충족은 유아자신이 한 것이거나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생애초기의 유아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마술 같은 환상적 전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것을 일차적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이라고 불렀고 이를 정신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자아에게 집중되어있는(자아-리비도 ; ego-libido)최초의 상태로 설명했다. 이것은 바로 유아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차적 나르시시즘은 유아기에 필요한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속하지만 대상사랑을 향해 성숙해가야 하는 원시적이고 미숙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있던 유아는 외부대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숙해진다. 이때 아직 미숙해서 대상으로 향하지 못했던 유아의 자아-리비도는 대상을 향하게 되는데(대상-리비도 ; object-libido), 이것이 바로 대상사랑(object love)의 상태이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외부대상을 보게 되는 성숙한 형태의 사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대상의 상태에서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리비도는 그 대상으로부터 철수하여 다시 자아를 향하여 투자된다. 즉 대상으로부터 거둬들인 리비도를 다시 자아에게 투여함으로써 다른 외부 대상을 사랑하거나 외부대상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키거나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시키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차적 나르시시즘(secondary narcissism)인데 이것은 성숙한 대상사랑으로부터 실패하여 다시 일차적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상태로의 퇴행을 나타내는 병리적 상태를 의미한다.(홍이화, 앞의 논문, pp.274-275.)

두와 관련하지만 코허트의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대상간의 관계들의 속성에 그 초점이 있다.⁴⁵⁾

따라서 나르시시즘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인식적 차원에서 하위에 놓고 일반화하여 나르시시스트로 규정한 황진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때 코허트의 논의는 매우 주목할 만하며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조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은 매우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대로라면 황진이가 사랑했던 상대들에 대한 사랑은 모두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녀가 사랑한 대상이 한 남성만이 아니라 그 수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각각의 사랑이 왜곡될 수는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황진이가 지닌 나르시시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코허트는 나르시시즘을 강한 사회발달의 한 인지과정으로 보고 프로이트의 그것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황진이를 나르시시스트라는 대전제하에 탐색하되 병리적이고 인격적 장애가 있는 부정적 인간형으로 매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자기애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대로 자기애적 성향이 지배적인 이들에게서는 매우 자신만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자신들의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매우 목표 중심적이고 성공적인 면들이 종종 부각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황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황진이가 처한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의 위계 등을 떠나 그녀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간관계 특히 남성들과의 관계형성에서도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들이 부각된다. 이러한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기애적 성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기녀시조의 작자들인 기녀들과 기본적으로 태도도 다르고 그에 따라 같은 기녀시조 부류에서도 노래의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은 아마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황진이와 그녀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이가 지닌 문학적 명성과 위상과는 별개로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매우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몰연대가 정확하지 않아 正史의 기록은 전혀 없고 그나마의 기록들은 野史로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황진이의 일생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설들을 개략적으로 종합한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출생으로부터 기녀가 되기 전까지의 삶과 그 과정이 여러 설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다. 맹인의 딸이라는 설도 있고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기에 가족사나 유아기의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녀의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모습이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가능하다.

심리학적인 나르시시즘에서는 주로 유아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냉담한 태도로 양육한 부모에게서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유아기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차적 나르시시즘시기를 거친다고 하는데 점차 신체적이거나 세상의 여러 제약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일차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는 불안정을 부모에게 받는 인정과 사랑을 통해 극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부모의 사랑과 일관적이지 못한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유아기와 같은 나르시시즘형태(이차적 나르시시즘)를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45) 홍이화, 앞의논문, p.275

진랑이 평소에 화담에게 아뢰기를,
“송도에는 삼절이 있습니다.”
“무엇을 일컫는고?”
“박연폭포와 선생과 소녀이옵니다.”

이에 선생은 웃었다.

이말이 비록 우스개말이긴 하나 또한 일리가 있다. 대개 송도의 산수는 울창하고 장관을 이루어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화담의 이학은 나라의 최고가 되고 석봉의 필법은 나라 안팎에 떨쳐 빛났으며 근래에는 차씨 부자형제가 또한 글로 이름이 높다. 진랑 또한 여자 가운데 빼어나니, 곧 그녀의 말이 망녕되지 않았음을 이에서 알 수 있다.⁴⁶⁾

위에 제시한 화담과 황진이의 대화로 살펴본 일화를 통해 황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자신감이나 당당한 태도는 그 영역을 넘어 자기도취적인 면모까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편협한 중세주의적 시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 조선사회에서 일개 기생의 신분으로 자신을 화담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발상자체가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칙하기까지 하다. 이 밖에도 30년동안 面壁參禪을 하며 生佛로 이름이 높았던 선승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거나 비록 화담선생은 유혹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태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황진이는 목표 대상이 되는 남성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의 의지대로 유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글에 대해서도 자신감이나 자기도취가 있어야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성 성격 또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에 황진이의 이러한 자기과시적인 면모는 나르시시스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작품에 형상화된 나르시시즘적 요소

황진이는 한시작품과 더불어 시조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작품은 작자의 세계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진이에게 나르시시즘적 태도가 포착된다면 이러한 면모들은 고스란히 그녀의 작품 속 곳곳에 투영되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작품을 보면 황진이는 이러한 자세를 거침없이 작품 전면에 직설적으로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허균(1569~1618), 『惺翁識小錄』 下(『惺所覆瓿藁』, 권24, 說部3)

<詠半月>

誰斷崑山玉	누가 곤륜산 맑은 구슬을 끊어 내어
裁成織女梳	직녀의 빗을 솜씨 있게 만들었나
牽牛一去後	견우가 한번 떠나 다시 오지 못했으니
愁擲碧空虛	푸른 하늘 허공 중에 수심겨워 던졌구나

이 시는 <詠半月>이라는 제목으로 황진이가 지은 한시작품이다. 이별의 서글픈 정서를 견우 직녀 설화를 차용하면서 반달을 빗으로 빗대는 예술적 개성이 독특하고 기발하다. 특히 이 시의 結句에서 빗을 던지는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찌됐건 맞이하게 된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이를 대하는 태도를 매우 직접적이고도 임팩트 있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빗’은 그토록 사랑하던 견우가 곤륜산의 옥을 깎아 만들어준 사랑의 정표이면서 그를 위해 단장할 때 사용하던 직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지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그 빗을 효용하게 만들어줄 대상인 견우가 떠나감으로 인해 빗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버렸고 황진이는 이별 혹은 배신이라는 곤경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의 황진이가 보이는 ‘던져버린다’는 액션은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나 여성문학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다른 閨房詩나 기녀시조 같았으면 여성화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 빗을 소중히 간직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진이에게는 떠나버린 남자의 정표 같은 것은 더 이상 소용도 없을뿐더러 미련도 두지 않으려는 자각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 즉 그녀의 자신만만하고 자기애적 태도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할 만한데 진지한 방식으로 말하기에 거북하고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빗을 던져버리는 행위로 일갈해버린다.

<詠半月>의 시적 지향점은 원망의 우회적 표현에 있지 않다. 이 시에서는 사랑의 배신이나 이에 대한 원망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반달을 기발하고 멋스럽게 표현해내는 것이다. 또한 빗은 사랑의 정표에서 쓰러린 배신의 기억으로 돌변한 것이다. 여주인공은 이것을 결코 속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이별을 결심하고 마침내 사랑의 매개물인 빗을 허공에 던져버린다.⁴⁷⁾ 그러므로 이 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긴 하지만 황진이의 詩作에 있어 풍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황진이의 풍류적 기질이나 문학적 창의력이 돋보이는 것은 황진이의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를 간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논의의 보충으로 코허트는 나르시시즘이 대상사랑으로의 발달 말고도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 발달하는 고유한 발달단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나르시시즘의 성숙한 형태로써 창의력, 공감능력, 유한성에 대한 수용, 유머감, 지혜를 들고 있다. 즉 나르시시즘을 병리적으로만 분석해오던 수준을 넘어서서 성숙한 나르시시즘으로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튼튼한 자기구조의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말이다.⁴⁸⁾ 중요한 것은 황진이의 나르시시즘적 태도는 문제적 국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詩作을 통해 표출되는 그녀의 세계관은 코허트가 말한 성숙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발한 재치와 시적 창의력은 풍류나 여유로움, 유한성-특히 사랑이나 인생의

47) 김태봉, 「中國漢詩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황진이의 <詠半月> 연구」, 중국학보 제71호, p.160.

48) 홍이화, 앞의 논문, p.276.

유한함에 대한 자각과 수용, 지혜, 에피파니(epiphany)와 같은 황진이 나름의 철학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코허트가 주장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한 면모를 이 작품을 통해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나르시시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다음의 작품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다.

<小栢舟>

汎彼中流小栢舟	저 강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잣나무 배
幾年閑繫碧波頭	몇 해나 푸른 물가에 한가로이 매였던고.
後人若問誰先渡	뒷사람이 만약 누구 먼저 건넜냐고 묻는다면
文武兼全萬戶侯	문무를 함께 갖춘 만호후라 하리라.

이 작품은 <小栢舟>라고 하는 한시이다. 이 시는 특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정시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에와 의지를 잘 드러나는 성향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혹은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노래한 것으로 풀이되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배가 지니는 상징성과 가치를 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학적 관습으로 볼 때 배(舟)는 주로 떠나가는 주체로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황진이는 자기 자신을 강물이 아닌 ‘배’에 빗대고 있다. 이 배는 배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몇 해나 푸른 물가에 한가로이 매여 있을지언정 아무나 태우지 않겠다는 의지와 기본관점을 취한다. 그러한 의지는 결국에서 말했듯, ‘文武兼全’의 ‘萬戶侯’와 같은 사람만이 황진이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진이의 남성에 대한 기본적 자세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기 자신을 조그만 잣나무 배라고 겸허하게 시작하고 있는 듯하지만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저의는 매우 도도하고도 콧대가 높기 이를 데 없다. 사실 황진이의 입장과 처지는 주지하다시피 천민에 속하는 계층으로 제아무리 뛰어난 기생일지라도 八賤의 신분을 넘어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를 겸비한 재상만을 상대하겠다는 콧대 높은 자세는 선뜻 동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학적 재능이나 용모가 제아무리 빼어나다고 해도 속된 말로 대체 무엇을 믿고 이룰 수 있는지 아무진 꿈은 꽤나 난감해보이기까지 한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과 자기도취가 지배하는 황진이의 내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월감의 근거는 바로 지나친 자기사랑인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가 사랑은 어떤 경우든 소유욕이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다⁴⁹⁾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작품에 나타난 황진이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황진이의 유명한 시조작품으로 연정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49) 김동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 『철학탐구』 28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280쪽.

어저 내 일이야 그럴줄을 몰랐던가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몰라 하노라

이 작품 역시 황진이의 대표적인 시조로 이별의 아픔을 곡진하게 담아내어 다른 기녀시조들의 작품처럼 이별시로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여타 기녀들의 작품처럼 이별의 회한이 그다지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리워하게 될 것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이별하고 보니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그리움이 컸던 모양이다. 화자는 이별이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내버리면서 임에게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훼손될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 방어한다. 시적상황을 통해 아마도 상대남성인 임은 황진이가 떠나지 말고 머물러달라고 했다면 그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이 그를 떠나보내고 그런 후에 그리워하는 모양새가 매우 역설적이다. ‘구태여’라는 어휘가 바로 그러하다. 기녀시조 부류에서 드러나는 지배적인 정서의 양상은 남녀의 관계에 있어 기녀들은 절대 ‘을’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절대 ‘갑’의 위치를 놓치지 않는다. 떠나는 임을 만류하여 머무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떠나가도록 놔두고는 아니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구태여 보냈’다고 고백한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자존심과 戀情 사이에서 겪는 화자의 오묘한 심리를 곡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황진이에게 있어 연정 따위는 그녀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와 체면을 이기지 못한 듯하다. 떠나가지 말라고 잡고 매달리면 남았을 대상인데 굳이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다. 일단 자존심과 체면치레는 했지만 그 이후 자기 스스로는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종장에서 느껴지는 이별의 회한의 정서는 매우 객관적이다. 드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람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듯이 막상 보내놓고 이 정도로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는 투의 뜻밖의 그리움으로 오히려 시인 자신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황진이와 상대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황진이의 주도적인 관계형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황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코허트가 말하는 자기(self)란 모든 심리구조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집행기관이다. 자기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며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구조이다. 자존심(self-esteem)의 유지와 자기통합(self cohesion)의 유지가 성적요구보다 중요하고 공격적 요구보다도 중요하다⁵⁰⁾고 한 것처럼 그녀에게 있어 자존심과 자기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던 듯하다. 프로이트는 자기사랑이 강하면 대상사랑이 적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사랑이 많아지면 자기사랑이 적어진다고 보고 발달에 있어서 대상사랑으로 성숙해가기 위해서 자기사랑은 포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차적 나르시시즘 즉 대상사랑보다 자기사랑을 다시 더 많이 가지게 된 나르시시즘은 병리적이 되는 것이다.⁵¹⁾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황진이의 사랑하는 방식은 이와 흡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사랑이 적어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코허트가 가진 나르시시즘의 개념은 프로이트가 보았던 미숙하거나 병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은 본질적으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고 평생에 걸쳐 계속되며

50)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도서출판이유, 2008, 333쪽.

51) 홍이화, 앞의 논문, p.275.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단계로 보았다.⁵²⁾

4. 나가기

본 논의는 황진이라는 한 인간과 문학에 대한 탐구로 새로운 맥락과 관점에서 해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야사로 전해지는 일화나 작품에 드러나는 자아의 세계관 등만을 바탕으로 나르시시스트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거칠고 성급한 논의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해석자의 개입 없이 작품/텍스트가 제 스스로 의미를 발화할 수 없고 모든 독서행위는 독자와 텍스트사이의 대화 내지 상호조명을 통한 의미구성 작용의 산물⁵³⁾이기에 황진이에 대한 이 같은 고찰은 또 다른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합리적 이성, 계몽, 교육, 집단이 중요시 되던 모더니즘사회에서 개성, 자율,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사회로 이동하면서 개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즉,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대량생산시대에 수많은 생산품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개인들은 집단이나 대중으로 구분되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는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시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개성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더 표현하기를 원하기 시작했다. 이 욕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기를 세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용이해져 실현가능해졌다. 특히 인터넷은 자신을 반영하는 것들을 아이콘화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독특함이 찬사받는 시대, 표현하지 않으면 좀처럼 드러날 수 없는 매스미디어 시대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등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나르시시즘 현상의 옳고 그름은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보편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본 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시대를 막론하고 황진이처럼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52) 홍이화, 앞의 논문, p.276

53) 김흥규, 『사설시조의 세계(범속한 삶의 만인보)』, 세창출판사, 2015, p.23.

「나르시시즘으로 해석한 황진이 문학과 캐릭터 연구」에 대한 질의문

이채영(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지은 선생님의 발표문은 코허트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황진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또한 황진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황진이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황진이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해석되어 풍부하게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황진이에 대해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오히려 황진이를 대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표현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젠더 문제 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은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는 황진이의 시선, 인식, 정서, 경험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를 나르시시즘과 연관 지어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황진이와 황진이 문학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의 발표문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원래 알고 있던 바가 적어서 발표문을 오독하는 누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맡았으니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가 프로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 중 코허트의 연구 외에 다른 나르시시즘 개념에 대한 연구 중 황진이 캐릭터나 황진이 문학에 적용할 이론이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인물의 내면에 다양한 성향이 있듯이, 황진이 문학 작품에 드러난 나르시시즘적 요소가 건강한 나르시시즘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즘의 발현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황진이 '캐릭터'를 실증적이며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존했던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수집되고, 이러한 기록이 황진이 캐릭터의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문 5쪽에 제시하신 화담과 황진이의 에피소드 외에 다른 황진이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있을까요? 있다면 이러한 기록들을 더 추가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스트로서의 황진이'라는 논지를 더 강화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3. 선생님께서 이번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황진이 문학과 일화 등이 현대의 문화콘텐츠에서 황진이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양상이 실제 황진이 관련 캐릭터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현대의 콘텐츠에서도 황진이의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대체로 계승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콘텐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대문학]

정미경 소설 연구를 위한 초석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

정미경 소설 연구를 위한 초석

박수현(공주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2000년대 문단의 중진으로 활약하다가 2017년 작고한 소설가 정미경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촉발을 소망하며, 그 시금석 격으로 정미경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에 대해 천착하고자 한다. 정미경은 2002년 『장밋빛 인생』으로 제26회 오늘의 작가상을, 2006년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문단의 중진으로 활동했으나, 안타깝게도 2017년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16년이라는 길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5권의 소설집과 4권의 장편소설을 상재했다. 작가의 타계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정미경 작가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과 온당한 자리매김의 요청은 절실하다. 이 글은 그 첫 발을 떼려고 한다.

주요한 작가의 사후에는 그에 관한 작가론이 제출되기 마련인 학계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학술논의의 장에서 아직 정미경에 관한 본격 작가론은 제출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하나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작품론에만 국한되고 있고, 그나마 「밤이여, 나뉘어라」와 「호텔 유로, 1203」만이 집중적으로 조명받은 형편이다. 「호텔 유로, 1203」에 관한 논의들 중 조은파는 작품에 나타난 즉물적 가치 중심의 소비사회의 특성과 소유 지향적 삶에 주목한다.⁵⁴⁾ 오영이는 소유 지향적 인물이 소비 양식에 주목하며,⁵⁵⁾ 방민화는 스펙타클에 의해 작동되는 소비 욕망에 주목한다.⁵⁶⁾ 섬세한 지점에서 차이는 내장하지만 크게 보아 세 경우 모두 ‘소비’라는 키워드로 「호텔 유로, 1203」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 「밤이여, 나뉘어라」를 대상으로 한 논의들 중 김원희는 존재의 허무·소외·불안을 중심으로 인지론적 구성에 따른 의미생성 과정에 주목한다.⁵⁷⁾ 한편 이은하는 욕망의 간접화 양상에 주목한다.⁵⁸⁾ 이상에서 보듯 아직까지 정미경의 소설에 대한 본격 학술논의는 개별 작품론의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다. 작고한 지 4년이 흐른 지금 정미경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작가론이 제출되어야 할 시점 이거니와, 이 글은 그 시금석을 놓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

한편 지금까지 제출된 작품론적 선행연구에서 ‘소비’는 단연 많은 연구자들의 시선을 이끈 중심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평단에서부터 “자본주의라는 주어진 질서”와 “부르

54) 조은파, 「「호텔 유로, 1203」에 나타난 소비사회의 실존 양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55) 오영이, 「「호텔유로 1203」에 나타난 소유지향적 인물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56) 방민화, 「아케이드를 통해서 본 스펙타클의 사회와 구경꾼 연구-정미경의 「호텔 유로, 1203」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57) 김원희, 「문학교육을 위한 정미경 「밤이여, 나뉘어라」의 인지론적 연구」, 『인문학연구』 4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58) 이은하, 「정미경의 「밤이여, 나뉘어라」에 나타난 욕망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5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이외에 이례적으로 「모래폭풍」과 「달걀 삼키는 남자」를 중심으로 카타르시스의 실현 양상을 다룬 연구(이국환, 「소설의 치유 기능과 카타르시스」, 『석당논총』 52,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가 있다.

주아적 속물성”은 정미경 소설을 해명하는 첫 번째 주제어로 거론되어 왔다.⁵⁹⁾ 그래서인지 학계에서도 자본주의적 소비 사회에서 인물의 실존 양상과 욕망의 작동 방식에 천착한 연구가 유독 많이 제출되었다.⁶⁰⁾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주제어는 ‘욕망’이다. ‘욕망’에 주목한 연구들은 정미경 소설에 드러난 소비 욕망의 작동 방식⁶¹⁾이나 욕망 자체의 작동 방식⁶²⁾을 섬세하게 고찰한다. ‘소비’와 ‘욕망’을 둘러싼 의미 자질들은 정미경 소설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시각을 달리 하여,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한 ‘타인’이라는 주제어에 주목하려고 한다. 욕망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여 발생하는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한 연구⁶³⁾가 제출되었고, 인물의 소유 욕망이 타인에 의해 자극되는 양상에 대한 언급⁶⁴⁾은 소략하게나마 등장한 바 있다. 이때 욕망의 발생에 ‘타인’이 개입한다는 사실에 이 글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의 초점을 ‘욕망’에서 ‘타인’으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타인’은 욕망의 발생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국면에서 작가의식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보인다. 예컨대 인간의 자존감 형성과 정체성 규정 등 제 국면에서도 타인은 중차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국면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눈길은 곳곳에서 간취된다. 이는 주체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작가의 인간관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이 글은 정미경의 작가의식을 해명할 키워드로 ‘타인’에 주목하여, 그의 소설에 드러난 ‘타인’의 의미를 논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존감 형성, 정체성 규정, 욕망의 발생에 작동하는 타인의 영향력을 섬세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국면은 정미경의 전체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글은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모래폭풍」,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무언가」 세 작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⁶⁵⁾

2. 타인으로부터 길어낸 존재의 의미

「모래폭풍」의 “나”는 백화점 와이셔츠 매장의 점원이다. 매장에 들른 손님이었던 현수와 사귀다가 동거까지 하게 된다. 현수는 영문학 전공의 시간강사로서 문학적이거나 현학적인 말을 즐기는데, 객관적으로 보아서 나쁜 남자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받아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나”를 임신시켰음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녀가 홀로 중절수술하고 친구 집에 쉬러간 동안 현수는 급기야 그녀의 집에서 다른 여자와 밀회를 즐기는데, 그녀는 결국 그 사실을 알아챈다. 이상한 것은 그녀의 반응이다.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현수의 이상한 낯세에 대해 그녀는 그것을 굳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며 현수를 의심하지도 않고 헤어질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현수에 대한 그녀의 맹목적인 신뢰와 애정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심리이다.⁶⁶⁾

59) 강지희, 「빛을 선물한 신, 인간이 도달한 어둠-정미경론」, 『문학동네』, 2017년 여름, 366면 참조.

60) 조은파, 앞의 글; 오영이, 앞의 글; 방민화, 앞의 글.

61) 위의 글들.

62) 이은하, 앞의 글.

63) 이은하, 앞의 글.

64) 조은파, 앞의 글; 오영이, 앞의 글; 방민화, 앞의 글.

65) 주된 연구대상 텍스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미경, 「모래폭풍」,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생각의 나무, 2006; 정미경,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나의 피투성이 연인』, 민음사, 2004; 정미경, 「무언가」,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생각의 나무, 2006. 앞으로 이 텍스트에서 인용 시 인용문 말미 괄호 안에 인용 면수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66) 「모래폭풍」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로 이국환의 것(이국환, 앞의 글)이 있다. 이국환은 「모래

“나”의 유년 시절 아버지는 바람을 피웠고, 어머니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그녀가 극심한 무력감과 자기 비하를 체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머니가 자살하는 것도 막을 수 없었다. 부모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그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165)라는 느낌,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165)에 치명적으로 빠져든다. 이는 그녀가 자존감을 극심하게 상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무런 고통이나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한다. 부모에게 고통도 망설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미미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을 더욱 강화한다. 스스로를 “희미하게 겨우 사람들 틈을 흐르는 납작한 그림자 같”(165)다고 여기는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두지 못한다.

이러한 그녀에게 현수는 “당신의 생각을 한순간도 지울 수 없는 이 강박증마저 내겐 달콤한 고통”(164)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수의 메시지로 인해 “누군가에게 달콤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164)임을 느꼈고 비로소 존재감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현상액 속에 담겨 천천히,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는 필름처럼”(164-165) 자신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봐주고 호명해주는 타인으로 인해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중인물을 형상화하면서, 작가는 타인의 호명 또는 인정을 통하여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자각하는 인간의 한 측면을 예리하게 간파한다. 여기에서 타인은 자존감 형성의 근원이 된다.

깊은 열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만 안심하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은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한다. 이렇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그들은 극도로 수동적 태도를 취한다.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타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심각한 학대나 모욕까지도 감수하곤 한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이들의 내면에 자리하는데,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버림받을까봐 절대적인 공포를 느낀다.⁶⁷⁾ 『모래폭풍』의 “나” 역시 유년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으로 자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기에, 자신을 알아봐주는 현수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그의 인정으로 인해 자존감 혹은 존재의 의미를 얻는다. 그녀는 홀로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현수와의 연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 현수는 그녀의 자존감의 근원이기에, 현수의 상실은 그녀 자신의 존재 이유의 상실이다. 이것이 어처구니없는 현수의 일탈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그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의 인정뿐만 아니라 그의 강함 역시 그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벚꽃 질 무렵 여의도에서 가와바타 야스나리 작품의 구절을 언급하며, “나”와 소설 속 여주인공이 닮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설 속 지명인 에치고 유자와에 놀러가자고 속삭인다. 단적으로 그는 “나와 아득히 먼 세계에 속한 것들을 익숙하게 일상화해서 자신의 후광으로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170-171)이다. 그는 그녀의 눈에

『폭풍』에서 독자가 여성 인물인 수연에게 연민과 두려움을 느끼며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과정을 주목하면서, 소설의 치유 기능을 논한다. 이 글은 수연의 심리에서 자존감 형성에 타인이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간취하고, 인간 주체의 타인 의존성과 타인 상관성에 주목하는 면에서 이국환의 논의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취한다.

67) 민병배·남기숙,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학지사, 2021, 22-23면 참조.

많이 배우고 가졌으며 강한 사람이다. “나”는 자주 현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마구 때를 쓰는 현수는 열두 살의 내가 된다”(175)는 식으로 그녀가 현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면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여기에서 “나”는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현수와 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상받으려 하고, 덩달아 강해지기를 꿈꾼다.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타인과의 애착을 통해서 자신에게 결핍된 힘과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한다.⁶⁸⁾ 강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타인과 자신이 거의 하나라든지 자신을 그의 일부라고 느낌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이 야기하는 불안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능력의 대부분은 내사를 통해 ‘빌려온’ 능력이기때문에, 그들은 타인과의 유대를 상실하면 급속한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진다.⁶⁹⁾ 현수는 “나”에게 우월하고 강해 보이며, 그녀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현수와 동일시를 통해서 그가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을 빌려오려고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보잘 것 없다는 느낌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 나쁜 남자인 현수와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도 그와의 관계가 끝나면 더한 심적 혼란에 빠질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타인은 동일시를 허용하고 힘의 일부를 빌려줌으로써 자존감의 원천이 된다.

현수가 그녀를 알아보고 불러줬다는 점, 그녀가 현수의 강함과 동일시한다는 점 이외에도 그녀가 그를 떠나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가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는 점이다.

가. (ㄱ) 부엌이 엉망인 것에 나는 안도한다. 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넌 끊임없이 기침을 하고 물을 마실 컵 하나가 없지. 현수는 열두 살의 내가 된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랑받고 용서받아야 하는, 현수는 너, 가 아니라 더 나은 나, 이다.(166-167)

나.

다. (ㄴ) 더운 국을 먹으면 늘 이마에 축축한 땀이 배어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래서 아직 말을 할 줄도 걸을 줄도 모르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된다면 꼭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다. 내 삶을 전부 지불해도 좋을 그런 연민.(186)

라.

마. (ㄷ) 내가 두려워하는 건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내장을 온통 들어내버린 듯한 텅 빈 느낌이다.(191)

(ㄱ)에서 보듯 “나”는 자신이 부재할 때 현수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실에 안도한다. 자신 없이는 그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확신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ㄴ)에서 보듯 그녀는 “이 세상에서 그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현수를 갖 태어난 아기처럼 여기며, 그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 느낌 즉 자신이 현수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현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ㄷ)에서 보듯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자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인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에서, 즉 타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에서 자존감을 구한다. 물론 이것은 자기기만의 혐의를 질게 내장한다. 현수는 그녀가 생각하

68) 위의 책, 33면 참조.

69) 위의 책, 37-39면 참조.

는 만큼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년 시절에 형성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느낌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존재를 환상 속에서 상정한다. 낮은 자존감에 대한 출구를 오로지 타인에게서 구하는 것이다.

“끌림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관한 나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의식 앞에 서 있는 자기에 관한 의식이기도 하”⁷⁰⁾거니와, 그녀는 타인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더 끌린 것으로 보인다. 즉 그녀는 타인의 의식에 각인된 자기의 모습, 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자기의 모습에서 자존감을 구한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성한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타인의 자리에서 개화한 자신의 가치이다. 이 장면은 자존감 형성에 타인의 시선과 의식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역설한다. 알려진 바, 타자의 동의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집착 때문에 인간은 타인의 판단에 의존적이게 된다. 이때 그는 타인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의 “재판관”으로 여긴다.⁷¹⁾ 인간은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확신하기 위해서 타인이라는 재판관을 섬기고 그에 종속된다.

지금까지 타인의 의식과 시선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작중인물 “나”의 심리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타인은 자존감 형성의 매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은 열등감 심하고 의존심 강한 한 여성의 특이한 성벽이 아니다.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정황이다. 예컨대 아이는 신생아 때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며, 어떻게든 부모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인정 욕구가 눈뜨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이다.⁷²⁾ 인간은 모두 자존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 공감, 신임에 의존한다. 이는 삶의 유지를 위해 타인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사회적 조건에 기인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다. 영장류 중 가장 무력하게 그리고 혼자서는 도무지 생존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가장 오랜 양육 기간을 필요로 한다. 성인이 되면 인간의 의존 본능은 중요한 타인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경험하고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과 공감, 존경 등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⁷³⁾

이처럼 타인의 인정 혹은 타인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성향이다. 정미경은 타인의 시선과 의식을 경유하여 자존감을 형성하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자존감 형성에서 타인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보여준다. 타인은 자존감 형성의 근원이며, 주체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해명하는 원천이다. 타인을 경유하지 않고, 타인의 눈과 마음에 비친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주체의 구성에 스며든 타인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주체의 순수성에 관한 신화를 파쇄한다. 주체가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신하게 되기까지 타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은 주체의 타인 의존성과 타인 상관성을 시사한다.

3. 타인의 시선 혹은 정체성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의 “나”는 치과 의사와 결혼을 앞두고 “시장 골목의 끝에 자리

70) 이성환, 「개인, 자아, 대타존재-헤겔의 ‘자기의식’에 관한 한 해석」, 『철학논총』 74, 새한철학회, 2013, 469-470면.

71) 악셀 호네프, 『인정-하나의 유럽 사상사』, 강병호 역, 나남, 2021, 52면 참조.

72) 인정 욕구는 열등감의 영향 속에서 발전하며, 아이는 주변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알프레드 아들러, 『인간이해』, 라영균 역, 일빛, 2015, 76면 참조.)

73) 민병배·남기숙, 앞의 책, 14-15면 참조.

잡은 집”(202)으로 이사 온다. 미래의 남편은 쾌적한 신혼집을 이미 마련해 두었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결혼 전에 신혼집에 들어가기보다 혼자 힘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원했으며, 결혼 전까지 짧은 기간 거하려고 시장 거리의 낡은 단층집에 세 든다.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은 소란스럽다. 그녀는 세입자들이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울거나, 싸우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하고, 사생활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소설 초반부에서 그녀는 세입자들의 소란과 소음과 무례에 불편하고 불만스럽다. 이웃 중 승우는 영화감독 지망생으로서, 단층집 사람들과 동네 이웃들의 일상을 꼬박꼬박 카메라로 찍어둔다. 가장 난감한 것은 미옥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매일 구타당하고 울거나 도망 다닌다. 그녀의 남편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성기능을 잃고 의처증을 앓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의 구타를 피하려다가 미옥은 “나”의 방에 들어 오고, 이때부터 “나”와 미옥은 친해지기 시작한다. 결말에서 미옥의 남편은 결국 미옥을 때려 숨지게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미옥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변모해 가는 양상이다. 우선 미옥은 “나”의 시선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각인된다. 미옥의 정체성은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변모한다. 처음에 “나”는 남편에게 허구한 날 맞고 “나”의 방으로 피신 오면서 속없이 해별쭉 웃는 미옥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미옥은 한심한 존재였다. “웃음이 나와? 저러니 맞고 살지.”(204)라는 “나”의 속엿말은 미옥을 경멸스럽게 보는 “나”의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나”는 미옥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굴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때 미옥은 멀리하고 싶은 존재, 귀찮고 어색한 존재였다. “나”는 대상에게 최소한의 관여도 꺼리는 이방인의 시선을 견지한다. 이방인은 대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막연한 적대감을 느끼기 쉽다. 그런데 이후에 미옥은 “남루하고 짜증스러운 풍경 속에서, 사금파리처럼 무용하게 반짝이는 것의 아름다움과 이상한 생기”(233)를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남루하고 소란스러운 단층집의 일상과 함께 미옥을, 시시하고 보잘것없지만 있는 그대로 반짝이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나” 자신이 고백했듯, 결혼 때까지 단층집에 머무른다는 “한시적 허용”(233)으로 인해, 단층집의 남루함과 소란스러움을 일종의 여행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지니지만, 깊이 있는 관여를 고민하지 않으며, 자신의 판타지를 자유롭게 투사해도 좋은 여행자 특유의 시선에 의해 미옥은 기묘한 생기와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존재로 재탄생한다.

이러한 호감은 발전하여, 미옥의 존재는 급기야 눈부신 “치자 꽃 한 송이”(223)로 표상된다. 영화감독 지망생 승우가 치자 꽃 한 송이를 꺾어와 미옥의 귀에 꽂아주며 행복하라고 말하고, 미옥은 크게 웃었다. 이때 “나”는 “미옥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다”(223)며 질투까지 느낀다. 그녀는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예쁜 존재로까지 미화된다. 대상에 대해 마음껏 자신의 판타지를 투사하여 미화하는 여행자의 시선이 이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미옥의 사후 미옥이 치자꽃을 귀에 꽂은 장면을 담은 필름을 보면서, “나”는 거기에서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알지 못했던, 표지석처럼 저토록 뚜렷했으나 내가 보지 못했던 아픔의 프로필”(242-243)을 비로소 본다. 이때 미옥은 속으로 아픔을 삭이고 삭인 존재, 실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존재,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외로운 존재로 현현한다. “나”는 비로소 그 동안 여행자의 시선으로 미옥을 대상화했음을 깨닫는다. “나”의 시선은 이방인에서 여행자로, 여행자에서 진정한 친구로 변모하는데, 이때마다 미옥의 정체는 천변만화하게 변모한다.

시선에 따라 미옥의 정체가 각기 다르게 현현되는 정황은 또 다른 관찰자, 영화감독 지망생 승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승우의 시선 변화와 그 함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 (ㄱ) “(전략) 처음 여기 왔을 땐 늘 멍 자국을 달고도 커다랗게 웃는 미옥 씨를 종(種)이 다른 생물처럼 경멸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찍어가면서, 어떤 고통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일상의 잔인한 영속성을 미옥 씨에게서 보았어요. 그걸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 이처럼 일순에 삶을 뒤엎어 버리는 가짜 같은 드라마가 아니었어요.”(241-242)

사.

아. (ㄴ) 오랫동안 렌즈를 통해 미옥을 보아왔으면서 그 이면의 고통에 무심했던 것, 자신이 보고 싶었던 풍경만 보았던 것, 헤퍼 보이는 웃음 뒤에 아파하는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외면했던 것, 그러고는 치자 꽃 향기만을 담으려 했던 것이 못내 괴로운 것일까.(242)

(ㄱ)에서 보듯 승우는 처음에 미옥을 만났을 때 “나”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날마다 구타당하면서도 남편을 떠나지 않고 속없이 웃고 다니는 미옥을 경멸했다. 그때 승우의 시선에 비친 미옥은 자존감도 자신을 보호할 의지도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승우는 미옥에게서 “일상의 잔인한 영속성”을 보았다. 미옥이 일상을 교란하기 싫고 일상의 변화를 두려워해서 남편을 떠나지 못한다고 해석했던 것이다. 이때 승우의 시선에 비친 미옥은 소름끼치는 일상의 위력을 체현하는 존재였다. 그 다음에 승우는 미옥을 치자 꽃처럼 향기 나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미옥이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해석하여, 그녀에게서 선량함과 숭고함을 보았던 것이다. 이때 미옥은 숭고한 사랑을 체현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는 허상이었다. (ㄴ)에서 보듯 미옥이 남편에게 살해당하자, 승우는 자신이 “보고 싶었던 풍경만 보았”고, “헤퍼 보이는 웃음 뒤에 아파하는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외면했”음을 깨닫는다. 미옥의 고통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투사했음을,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감탄하느라 그녀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음을 자각한 것이다. 여기에서 승우의 시선 역시 이방인에서 여행자로, 친구로 변모하며 변모하는 시선에 따라 미옥은 다른 정체성으로 현현한다.

여기에서 미옥은 승우와 “나”의 시선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으로 현현한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미옥은 한심하거나 무능한 여자였다가, 예쁘거나 숭고한 여자였다가, 참담하게 고통스러웠던 여자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가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옥의 정체성 중 상당 부분은 “나”와 승우의 시선에 빚지고 있다. 누군가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시선의 싸움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천변만화하는 시선이 충돌하면서 모종의 정체성도 천변만화하게 뒤바뀐다. 누군가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경우 타인의 시선이다. 자아 정체성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 어떠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한다 하여도 그것이 타인에 의해 승인받지 못하면 환상에 불과해진다. 또한 타인이 누군가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는 그 누군가의 자기 이미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예의 자기 이미지를 결정하고 고정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정체성 규정에서 타인의 시선의 역할은 꽤 막중하다. 이것은 작가 정미경의 지론이기도 하며, 많은 소설에서 이 지론을 반복적으로 설파하거나, 이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언으로 이 지론을 펼친다.

자. 대부분의 우린, 별이 아니라, 스스로는 빛나지 못하는 차갑고 검은 덩어리예요. 존재란 스스로는 빛날 수 없는 것.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월도 되고 때론 그믐도 되고, 그런 거 같아요.(243)

위의 전언대로 인간은 스스로는 빛나지 못한다. 자신을 비추는 빛이 필요하다. 이 빛이 타인의 시선이다. 똑같은 인간이라도 그를 비추는 빛의 양태에 따라 즉 어떤 시선 속에 있느냐에 따라 만월도 되고 그믐도 된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인간은 천변만화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정체성은 홀로 규정되지 아니하며,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무수한 타인의 시선이 정체성 규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심지어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헤겔의 통찰대로 정신적 생은 서로 타인의 의식 속에 있는 자신을 인식할 때에만 출현한다. 우리는 자기의식을 갖는 것만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없다. 오직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정 속에서만 비로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자아를 통해 그 자신을 알 듯이 자아가 타자를 통해 그 자신을 안다.⁷⁴⁾ 이처럼 인간은 타인의 의식 속에 각인된 자신을 찬찬히 살피면서, 타인이 자신을 두고 형성한 이미지를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정체성을 규정한다.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인정은 정체성 규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밀해 보이는 정체성조차도 타인의 시선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국면을 정미경은 제대로 포착하면서 피력한다. 정미경은 개인의 정체성에 각인된 타인의 영향력을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다시 순수한 주체라는 환상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체는 그 정체성을 규정할 때에도 타인의 무수한 시선이라는 그물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정체성을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봐주고 인정해주는 대로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때 타인은 정체성 규정의 매개가 된다. 타인의 시선 없이는 정체성도 주체도 없다. 이는 개인 정체성의 비본래성과 주체의 타인 의존성 혹은 타인 상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욕망의 구성과 타인

「무언가」에서 “나”는 부동산 사기 업체의 전화 영업 사원이다. 어머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수감되었고, “나”는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나곤 했었다. 그녀는 이렇게 삭막하고 답답한 일상에서 K라는 남자와 역시 삭막하고 답답한 남녀관계를 이어간다. 어머니로 인한 고민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K와의 관계는 따뜻한 위로나 진솔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육체만을 교환하는 관계다. K는 특이한 습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상 그녀에게 과거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상히 이야기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것, K의 특이한 습벽에 각인된 인간 욕망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이다.⁷⁵⁾

차. (ㄱ) 꺾은선그래프의 붉고 푸른 선을 쳐다보며 나는 다른 남자와의 섹스를 얘기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바글거리는, 불개미 떼와 같은 숫자들을 뭉개고 지우기 위해 그가 내 몸 속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카. 그 사람은 내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는 늘 무슨 맛이 나는지를 말해주었어. 대체로 꽃

74) 이성환, 앞의 글, 473-474면 참조.

75) 정미경 소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인간 욕망에 주목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다. 인간의 모방 욕망에 관해 본격적으로는 「밤이여, 나뉘어라」를 중심으로 논구된 바 있고(이은하, 앞의 글), 극히 부분적으로는 「호텔 유로, 1203」을 통해 논의된 바 있다.(조은파, 앞의 글; 오영이, 앞의 글; 방민화, 앞의 글) 이 글은 본격 학술논의의 장에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무언가」를 대상으로 삼아 욕망의 모방 양상을 자세하게 분석한 점, 욕망의 모방 본능을 주체의 타인 의존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지닌다.

이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꽃 이파리를 맞본 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타. 무슨 꽃?
 파. 라일락.
 하. (중략) 그래 어땠어? 그 남자와는? 좋았어?
 거. K의 허리가 깊이 휘청인다.
 너. 말할 수 없어.
 더. 그래,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이 아, 말할 수 없어.
 러. 탄식처럼 내뿜고는 다음 순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내 몸에서 떨어져나가는 K를 볼 때면 다시 하룻밤의 생존을 허락받은 세헤라자데가 된 기분이다.(95-96)
 머.
 버. (L) 나는 어제 한 남자를 만났으며 늘 그렇듯 그 남자는 섹스머신이었다. 남자는 나를 새끼고양이라고 부르며 쪼개진 내 발톱마저 사랑한다. 어느 순간 내 얘기에는 실제로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도 섞여든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환상은 기억의 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한다. (중략) 나의 노래 속에서 나는 늘 사랑받으며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여자이며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오만한 여자가 된다.(108-109)

(ㄱ)에서 보듯 K는 “나”와 잠자리를 할 때 그녀의 과거 남자들과의 성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종용한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욕망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그의 욕망을 촉발한다. 또한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그 좋은 느낌 혹은 쾌락을 모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와 과거의 남자가 누렸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쾌락을 욕망하는 것이다. 한편 그가 그녀와 다른 남자의 잠자리가 좋았다는 전언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가 성적으로 유능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 자신이 성적으로 유능한 남자를 욕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K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그녀가 타인의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타인과 최대치의 쾌락을 누렸다고 상상하기를 원한다. 타인의 욕망의 대상을 가졌다고 상상했을 때 극대화된 만족을 느끼며, 타인의 쾌락이 대단했다고 상상했을 때 그것을 모방한 자신의 쾌락도 대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K의 만족 혹은 쾌락의 조건은 단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모방’한 욕망의 성취이다. 그의 기쁨의 전제는 자신의 욕망이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모방할 누군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 장면은 인간의 욕망은 항상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작가 정미경의 인문학적 통찰을 내장한다. 인간의 욕망에는 무수한 타인들의 자취와 체취가 스며들어 있다. 욕망은 순수하게 주체 그 자체에서 유래하지 아니한다. 그 기원에는 엄연히 타인의 막강한 영향력이 놓여 있다. 이는 인간 욕망의 비주체성, 타인 유래성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내부에서 끌어내지 못”⁷⁶⁾하기에, “그들의 욕망을 타인에게서 빌려오는데 이때 그 빌려오는 동작이 너무도 근본적이고 너무도 독창적이어서, 그들은 그 동작 자체를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의지와 완전히 혼동하게 된다.”⁷⁷⁾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자기 고유의 것이며 자기 내부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욕망은 대부분 타인의 것을 모방한 결과이다.

특히 (L)에서 보듯 K는 그녀가 “늘 사랑받으며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 여자”, “모든 것을

76)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5, 45면.

77) 위의 책, 42-43면.

요구할 수 있는 오만한 여자라”고 상상하기를 좋아한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의 그냥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간절하고도 치열한’ 욕망의 대상이었다고, 그녀에게 향했던 욕망이 보통 이상으로 거세었다고 상상할 때 그는 그녀에 대한 더 강한 욕망을 느낀다. 그가 이러한 상상 내지는 설정을 즐기는 이유는 성관계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대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녀가 다른 남자‘들’이 ‘열렬히’ 욕망하는 대상이라는 상상 내지 설정이 필요했고, 다시 말해 그녀를 열렬히 욕망하는 상상 속의 경쟁자들이 필요했다. 이러한 그의 심리는 타인이 욕망의 발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통찰에서 나아가 자신의 대상을 욕망하는 타인의 존재가 욕망을 더욱 뜨겁게 점화한다는 통찰을 내포한다.

이런 식으로 모방심을 자극하는 타인은 중개자다. 인간은 중개자가 욕망하는 대상을 덩달아서 욕망한다. 이때 중개자는 욕망의 대상에게 환상을 부여하며, 대상을 현실과 다르게 변형시킨다. “중개자의 특권은 욕망된 대상에게 전달되어 그 대상에게 환상에 불과한 가치를 부여한다. 삼각형의 욕망은 대상을 변형시키는 욕망이다.”⁷⁸⁾ 위에서 “나”의 이야기 속 수많은 남자들은 K의 욕망을 추동하는 중개자들이다. 상상 속 중개자들에 의해 K의 욕망의 대상인 “나”는 환상을 여러 겹 덧칠하여 입고, “나”는 현실과는 아주 다르게 변형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K에게 각인된다. K는 “나”의 현실 그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중개자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된 거짓 이미지를 원했기에 다른 남자들의 이야기에 집착한 것이다.

K의 이러한 심리가 가능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자발적으로는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항상 타인의 것을 모방하여 발생하며, 타인의 욕망에 의해 더 가열차게 추동되기 때문이다. 정미경의 통찰대로 인간의 욕망은 타인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인간의 주체를 구성하는 것 중 중요한 인자가 욕망이라고 할 때, 정미경이 시연하는 욕망의 타인 유래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야기한다. 내 욕망이 내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면, 순수한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내 안에서 타인의 욕망을 뺀 나머지는 무엇인가? 내 안에서 타인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미경은 주체의 욕망에 타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각인되었는지 보여주면서, 순수한 주체가 가능한지 질문한다. 그의 소설에서 타인은 주체의 욕망을 추동하는 중개자, 주체의 욕망을 구성하는 필수 인자로서 기능한다. 타인 없이는 욕망도 주체도 존재 불가능하다. 이는 인간 욕망의 비주체성과 비자발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체의 타인 의존성 혹은 타인 상관성을 역설한다.

참고문헌

- 강지희, 「빛을 선물한 신, 인간이 도달한 어둠-정미경론」, 『문학동네』, 2017년 여름.
 김원희, 「문학교육을 위한 정미경 「밤이여, 나뉘어라」의 인지론적 연구」, 『인문학연구』 40,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0.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5.
 민병배·남기숙,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학지사, 2021.
 방민화, 「아케이드를 통해서 본 스펙타클의 사회와 구경꾼 연구-정미경의 「호텔 유로, 1203」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악셀 호네트, 『인정-하나의 유럽 사상사』, 강병호 역, 나남, 2021.

78) 위의 책, 59면.

- 알프레드 아들러, 『인간이해』, 라영균 역, 일빛, 2015.
- 오영이, 「『호텔유로 1203』에 나타난 소유지향적 인물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38, 한국비평학회, 2010.
- 이국환, 「소설의 치유 기능과 카타르시스」, 『석당논총』 52,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1.
- 이성환, 「개인, 자아, 대타존재-헤겔의 ‘자기의식’에 관한 한 해석」, 『철학논총』 74, 새한철학회, 2013.
- 이은하, 「정미경의 『밤이여, 나뉘어라』에 나타난 욕망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연구』 5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역, 동서문화사, 2010.
- 정미경,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나의 피투성이 연인』, 민음사, 2004.
- 정미경, 「모래폭풍」,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생각의 나무, 2006.
- 정미경, 「무언가」,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생각의 나무, 2006.
- 정미라, 「문화다원주의와 인정윤리학」, 『범한철학』 36, 범한철학회, 2005.
- 조은파, 「『호텔 유로, 1203』에 나타난 소비사회의 실존 양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34, 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정미경 소설 연구를 위한 초석」에 대한 토론문

김성연(세명대)

박수현 선생님의 이번 연구는 2017년 타계한 정미경 작가의 작가의식 규명을 목적으로, ‘타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다. 정미경 작가의 몇몇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본격 작가론이 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작가론의 시금석이 될 의미있는 연구이다. 또한 대체로 ‘소비’와 ‘욕망’의 현상에 주목한 선행 작품론과는 달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욕망을 통찰한 정미경의 작가 의식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발표이다.

다만 아직 연구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발표문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두 가지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고자 한다.

정미경의 작품 중 「모래폭풍」,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무언가」 세 개의 텍스트가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발표문에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발표자께서 언급한 대로 “정미경의 전체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타인의 영향력”을 고찰하기 위해 특별히 이 세 작품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분석대상의 선택이 만약 작품의 발표 시기와 관련 있다면 향후 작가론의 서술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정미경 작품이 바깥의 세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문에 언급된 세 가지 텍스트의 주인공 “나”는 사회적, 정서적 폭력 앞에 놓인 여성이거나 그러한 여성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타인으로부터 왜곡된 정체성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좌절하는 여성 인물은, 정미경이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활동하던 시기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작가 한강 역시 비슷한 시기 그러한 여성 인물을 다룬 바 있다. 그렇다면 정미경의 소설이 어떤 맥락에서 출현했는지, 그의 인물이 다른 작가들의 여성 인물과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 매우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정미경은 어떤 작가와 비교가 가능하며 당대 문단에서 정미경의 역할이나 위치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지 등 사회, 문단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정미경이라는 작가와 그 작품의 맥락에 대한 설명을 발표자께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선생님의 흥미로운 발표문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한 점을 두서없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이 발표를 시작으로 정미경 작가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좋은 글을 읽게 해주신 박수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

양소영(덕성여대)

1. 서론
2. 바다- 사랑의 상처와 고통, 비애의 공간
3. 섬 - 성모 찾기를 통한 치유와 연대성의 공간
4. 산 - 무한의 공간과 초월의 의지
5. 결론

1. 서론

김여정은 196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이후 10여권의 시집과 시선집을 비롯하여 수필집까지 다양한 문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⁷⁹⁾ 이렇듯 시인은 시, 수필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시인은 작품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게다가 그녀는 60년 이후 한국 여성 문인들과 더불어 여성 시인으로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김여정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아의 변화 양상, 신화적인 관점과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졌다.⁸⁰⁾ 특히, 이 논문의 목적은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시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시인은 시 세계에서 끊임없이 공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김여정 작품 속에 나타난 공간들은 “겨울 바다에 내려 앉은”(「겨울 바다에서」), “불의 바다, 죽은 동해”(「출혈」), “요동도 않는 바다 속”(「잠적」), “바람이 무인도를 만드느”(「무인도 백년」), “울릉도엘 간다.”(「울릉도 성모를 만나러」), “전등이 없는 섬 마

79) 시집으로 『화음』(현대문학사, 1969) 『바다에 내린 햇살』(문조사, 1973), 『겨울새』(선경도서출판사, 1978) 『파도는 갈기를 날리며』(서문당, 1982) 『어린 신에게』(민족문화사, 1983), 『날으는 잠』(영언문화사, 1986) 『해연사』(문학아카데미, 1989), 『사과들이 사는 집』(문학아카데미, 1991) 『봉인 이후』(문학아카데미, 1995) 『내 안의 꽃길』(문학아카데미, 2002), 『초록 목시록』(문학아카데미, 2006), 『눈부셔라, 달빛』(연인, 2008), 『미래이로 가는 길』(시문학사, 2010)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 『레몬의 바다』, 『그대 꿈꾸는 동안』, 수필집 『고독이 불탈 때』, 『너와 나의 약속을 위하여』, 『오늘은 언제나 미완성』과 시 해설집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별을 쳐다보며』 그리고 『김여정 시선집』이 있다.

80) 이상호, 「김여정 시에 나타난 자아 인식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14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04.

이유경, 「김여정 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유경, 「김여정 시에 나타난 시적 변모 과정」, 『사립어문연구』19, 사립어문학회, 2009.

홍신선, 「바다와 초월의 상상력」, 『김여정 문학 세계』, 고요아침, 2012.

이가림, 『이카루스의 시학』, 위의 책.

진순애, 『인고의 미학』, 위의 책.

하현식, 『내적 자유와 미래지향성』, 위의 책.

강우식, 『비상과 정착』, 위의 책.

최동호, 『정갈함과 비릿함』, 위의 책.

유시옥, 『환상적 사실주의의 열풍』, 위의 책.

이영걸, 『연작시의 성격』, 위의 책.

이상호, 『존재의 참된 자유를 위한 노래』, 위의 책.

을”(「천국」), “산을 오르니, 안이 어느덧”(「산행2」), “아침 산속은 빛나는 별밭”(「산행5」), “구비구비 푸른 산아”(「푸른 산아」) 등이 많이 있다.

기존 논의 중에서 공간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시 세계를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기존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바다를 “미래지향성”과 “생명력의 양상”⁸¹⁾살펴보거나, “인고의 미학”⁸²⁾으로, 또는 “무한한 포용력”⁸³⁾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일부만 보고 설명한 것으로, 김여정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공간의 양상을 살펴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삼아, 본고는 김여정 시에 나타나 공간의 양상을 ‘바다’뿐만 아니라 ‘산’과 ‘섬’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시 세계 전체에서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김여정은 초기시부터 후기시까지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작품 활동을 했고, 이것은 시인의 문학적 상상력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근원적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생각에서조차 공간과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이데거가 ‘세계 내 존재’라는 말로 설명했던 내 존재와 동일한 문제이다.⁸⁴⁾ 김여정 시에서 공간은 시 세계에서 핵심적인 이미지이고 그녀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을 연구하는 것은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작품에 나타난 공간 양상은 시인의 내면세계와 사유가 내포되어 있다. 공간에 대한 연구는 시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공간 연구는 김여정 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여정 시에서 공간 연구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공간을 되찾는 것은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 공간이 자아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아는 공간 속의 특정한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 공정성을 획득한다. 때문에 공간은 자유롭게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아 형성에 필수적이다.⁸⁵⁾ 본고는 김여정 시 세계 전반에 나타난 공간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 내면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김여정 시를 다양하고 풍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시에 나타난 바다는 사랑의 상처를 확인하게 하는 곳이며 바다에서 시인은 이별 후 피를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자신과 주변을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한다. 하지만 시인은 울릉도에서 불멸의 여인, 성모를 찾으며 자신도 성모처럼 주변을 포용하며 인내하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시인은 산을 통해 더욱 초월적인 내면세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만큼 시인에게 공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녀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공간의 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간에 대한 관심은 고대 철학자들의 물질과 구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제기되었다 데모크리토스와 루키포스는 원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어 있는 공간의 개념을 이용하였고, 뉴우튼은 절대 공간의 개념을 내세우고 절대적인 운동과 상대적인 운동의 개념을 제시하기에 이른다.⁸⁶⁾ 최근의 공간에 대한 이론 중에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와, 이푸 투안, 바슐라르의 공간 이론에 주목을 요한다. 독일 철학자인 오토 볼노는 공간이 인간의 체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81) 이가림, 앞의 책.

82) 진순애, 앞의 책.

83) 이상호, 앞의 책.

8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예코리브르, 2011, 23쪽.

85) 위의 책, 235쪽.

86) 유지현, 『현대시의 공간 상상력과 실존의 언어』, 청동거울, 1999, 30쪽.

있다고 하며 ‘체험 공간’을 중요시 설명한다. 그는 공간이 인간의 상관물로써 그 안에서 사는 사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지는 공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뿐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당시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한다.⁸⁷⁾ 사람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가 사는 공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공간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변하고 그 순간 자아 전체를 지배하는 특정 견해와 지향에 따라 달라진다.⁸⁸⁾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펼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간의 근원일 뿐 아니라 공간의 영원한 중심이기도 하다.⁸⁹⁾ 인간의 체험과 공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체험 공간이란 단순한 공간을 체험하는 심리적인 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결코 주체에서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생각에서조차 공간과 떨어질 수 없다.⁹⁰⁾

바슐라르의 공간은 『공간의 시학』에서 집, 서랍, 상자, 새집, 조개껍질, 구석 등 내밀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들 및 변양태들, 그리고 내밀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미지들과의 상관관계 밑에서라야 이해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이미지들에서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⁹¹⁾ 특히, 그는 집을 보호하며 포용력 있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김여정 시에서 산은 바슐라르가 주장한 집처럼 안식과 포용의 공간이다. 시인은 섬에서 성모 찾기를 하며 자신도 성모처럼 모든 관계와 포용하고자 다짐을 한다.

이푸 투안의 공간 이론은 인간의 감각 기관과 경험을 통해 설명하는 데 “목적적 운동과 지각을 통해 인간은 공간에서 개별 대상들의 친밀한 세계를 경험한다”⁹²⁾고 한다. “문학 상상력에 있어서 공간은 거리감과 시각, 청각, 촉각을 유발시키는 감각적 경험의 집합적 장소로, 공간은 산만하게 흩어지는 모든 순간과 경험을 지속시키는 곳이기 하며, 물리적 공간은 경험과 상징에 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인지되며 추상적 공간의 성격을 벗어나 정체성을 부여 받기에 이른다.”⁹³⁾ 특히, 이푸 투안은 어느 곳이든 자신의 고향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한다. 자신들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것일수록 그들이 위치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중심성에 대한 감각은 기본방위에 따른 기하학적 공간 개념에 의해 명확해진다.⁹⁴⁾ 이푸 투안에 이르면 세계의 중심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치에 세워질 수 있고, 김여정 시에서 산은 상승적 상상력을 지니고 있고, ‘세계의 중심’처럼 최상의 가치를 지닌다. 산이 지닌 수직성과 무한함은 존재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며 시인으로 하여금 평온한 내면을 형성하게 한다. 본고는 공간의 이론 중에서 이푸 투안과 바슐라르의 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층위인 ‘비애의 공간’, ‘치유와 연대성의 공간’, ‘초월적 공간’으로 나누어 보면서 김여정의 시 세계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바다 - 사랑의 상처와 고통, 비애의 공간

87)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20

88) 위의 책, 20쪽.

89) 위의 책, 24쪽.

90) 위의 책, 23쪽.

91)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89, 15쪽

92) 이푸 투안, 구동회 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29쪽.

93) 유지현, 앞의 책, 24쪽.

94) 이푸 투안, 앞의 책, 239쪽.

김여정의 초기시에는 빛, 소리, 새처럼 평범한 사물을 통해 고통과 상처로 이루어진 내면세계를 표출한다. 특히, 시인은 초기시에서 피를 흘리고 뼈를 들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모세 혈관이 터져 피가 흐르는”(「6월의 숲」), “뼈여 황막한 별판에 홀로선 뼈여 네 살과 내 살의 피 한방울”(「설법」), “내 손 가까이 닿는구나/ 너/ 피의 살/ 살의 뼈”(「내 손 가까이」)처럼 피를 흘리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는 검은 울음을 터뜨리는데”(「인형」), “억장이 무너진다.”(「죽은 말」), “섭섭한 마음”(「흐린 날은」)처럼 더욱 내면의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머니 당신을 나를” “하나의 위태로운 성냥개비로 낳으셨습니까”(「성냥개비」)에서 “아직도 위태한 성냥개비”(「성냥개비」)는 불안한 내면의 양상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인은 공간 즉, 바다를 통해 사랑의 상처를 확인하고, 이별 후 충족되지 못한 사랑은 더욱 어둡고 슬픈 내면을 형성하게 한다.

지난밤 밤새
죽은 동해를 끼고 죽은 듯이 잤다.
새벽녘에 눈떠 보니
석란잎 사이로 시퍼렇게
살아서 달려온
불의 바다
서른아홉 해
잇은 듯 버린 듯 키워온
내 사랑의 나무등치가
나흘 밤 나흘 낮을
번쩍이는 도끼날에 찍혀 넘어지고
그때마다 석란화 흰꽃잎에 내려와
하얗게 질린 하늘은
핀에 꽃힌 나비처럼 파들파들 떨고 있다.

「출혈」⁹⁵⁾

편안히 잠들 수 없으며
괴롭게 꿈꿀 수 없는
풀잎 흔들이는
밤의 샘속
흔들리는 달그림자여
아프게 눈 뜬
얇는 다도해의 바람이여
저문 솔숲에서
잠들지 못하고 푸득히는 학
뒤채이는 파도여
부러진 돛대여
망가진 날개여
피흘리는 거드랑이여

「절망연습2」⁹⁶⁾

95)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김여정 시전집』. 고요아침, 2012, 1187쪽.

96) 위의 책, 1125쪽.

내가 그에게서 떠나오는 시간은
광기 번뜩이는 바다가
개거품을 물고 튕구는 일몰
그는 한 줌의 소금을 얻고
나는 그 소금의 양금을 조금씩 허비하여
어둠을 살찌우는
모래밭일까

그는 그를 만나서 나를 찾는
이천석의 미련을
꺾어 목에 거는 시간은 미명
그는 한 지계의 죽음을 길고
나는 한 동이의 피를 쏟으며
여백을 살찌우는
창호지일까 그러나 아아 매미 허물 벗듯 할 수 없는 목숨의 헌옷가지여

「일몰」⁹⁷⁾부분

「출혈」에서 바다는 이중성의 공간으로 시적 화자는 이중성의 공간에서 사랑의 상처를 확인한다. 위의 시에서 ‘지난밤 바다’는 “죽은 동해”처럼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 되지만 새벽녘에 눈을 떠보면 생명력이 넘쳐 나는 살아서 달려온 “불의 바다”가 된다. 낮 공간은 시각을 통해 파악될 수 있지만 어둠의 공간은 경계가 없는 세계처럼 어떤 방향도 알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안정성에 문제를 만들어 불안감을 형성한다. 죽은 바다와 불의 바다의 양면성은 “나비처럼 파들파들” 떨고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의 내면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이중성의 바다는 광활하고 역동적인 공간 이면에 끝없이 이루어지 것은 기회보다 절망을 함축하며 그것은 행동을 격려하기보다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⁹⁸⁾ 이중성의 공간인 바다 앞에서 화자는 잠재적인 행동을 발산하기보다 자아확장을 방해하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은 화자에게 이별 후 사랑의 상처를 더욱 상기시키게 한다. “잊은 듯 버린 듯 키워온 내 사랑의 나무동치가” “번쩍이는 도끼날에 찍혀 넘어지고”는 사랑의 황홀함을 의미하지만 “그때마다” “핀에 꽃힌 나비처럼 파들파들 떨고 있다”에서 사랑의 황홀함보다 이별 후 사랑의 상처로 인해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바다의 이중성과 사랑의 이중성을 같은 조건으로 보는데, 바다의 이중성이 자아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면 사랑의 이중성은 불안한 내면 심리를 만든다. 특히, 시인이 이별의 고통을 핀에 찢려 떨고 있는 상황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불안정한 공간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이 고통으로 형상화됨을 강조한다. 불안정한 모습은 더욱 고립감(외로움)을 만들고 이런 고립감은 더욱 화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일몰」에서 “광기 번뜩이는 바다”에서 나는 그와의 이별을 생각한다. 역동적인 바다를 광

97)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1207~1208쪽.

98) 이푸 투안, 앞의 책, 94~96쪽.

기로 표현하는 것은 바다의 광대함과 역동성이 오히려 화자를 압도하여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바다와 그 바다 앞에서 시적 화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 바다는 광기의 모습일 뿐이다. 왜냐하면 바다의 광대함과 무심함에 비해 인간은 하찮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대함이 억압으로 작용한다.⁹⁹⁾ 그렇기에 시적 화자에게 바다는 광기로 작용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 ‘그는 소금을 얻고 나는 어둠을 살찌우는 모래밭’이 된다고 털어 놓는다. 어둠을 살찌우는 모래밭이란, 역동적이고 광대한 공간이 오히려 폐쇄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 사랑의 상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을 제약한다. 이별 후 홀로 남아 “나는 한 동이의 피를 쏟으며/ 여백을 살찌우는/ 창호지일까”처럼 피를 흘려야 하는 고통의 느끼고 있다. 피는 처절한 시적 화자의 슬픔과 고통을 상징한다. “장미가시가 바다 옆구리를 찔러 피를 흘리고 있었네” “그 옆을 죄 많은 빛 한 무더기가 혼신으로 바다를 껴안으며 따라 오고 있었네” (『장미밭에서』)에서도 시적 화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 흐르는 피는 소멸적이고 하강적인 이미지로 사랑의 종말을 피의 흘림으로 표출한 것이다. 즉, 흐르는 피는 사랑의 상처에 따른 슬픔을 극대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흐르는 피를 통한 마음의 상처는 시인의 고통과 절망을 암시한다. 시인은 이별로 인한 가슴을 “앓고 있”고 그에게 바다는 “한 입 내 살을 무는 돌고래의 이빨 아래 바다” (『편지』)처럼 고통스러운 상실감과 절망을 불러 일으키는 공간이 된다.

몸살 앓는 바다
아스피린을 먹어도 펄펄 끓는
억겁의 바다여
네 젖무덤 사이로
동백꽃잎을 물고 떼죽음을 한
영험의 새들
하얀 날개가
하얀 그림자가
하얗게 마른 지저귀미
침침한 기침의 꺼풀 속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잠적」¹⁰⁰⁾ 부분

저 화냥년의 바다가 어찌자고
밤마다 요동을 친다
구슬 물고 하늘에 못올라
밤마다 요동을 치는 바다가 봄철엔 실성하여
허연 게거품을 물고 뒹군다.

「요동치는 바다」¹⁰¹⁾ 부분

99) 위의 책, 97쪽.

100) 김영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1190~1191쪽.

101) 위의 책, 1142쪽.

겨울바다에
날을 세운 비수 한자루
그대 가슴 찢르고
선지피 뚝 뚝
흘리며 떨고 있었네

아침에
그대 견고한 비겁을 찢르고
그대 강인한 미련을 찢르고
빛나는 울음 날아와서
칼자루 던져진
허공에
아, 핏물 번져나고 있었다.

바다에 떨어지는 해
바다에 떨어지는 말씀
우리 몸속 깊은 곳
그중 진한 피 모두어
떨어지고 있었네.

「겨울 바다에 노을이」¹⁰²⁾

「요동치는 바다」는 표면적으로 바다가 의인화가 되서 생동감 있게 보인다고 한다.¹⁰³⁾ 하지만 화냥년의 의인화는 사랑의 상처로 인한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감정이 표출이다. 시적 화자는 “밤마다 요동치는 바다”를 보면서 생동감과 신선함을 얻기보다 “봄철엔 실성하여 허연 게 거품을 물고 뒹”구는 것처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얻는다. 즉, 화자는 요동치는 바다를 통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출했다. “겨울바다에/ 날을 세운 비수 한자루/ 그대 가슴 찢르고 /선지피 뚝 뚝 /흘리며 떨고 있었네” (「겨울바다에 노을이」)에서 시인은 겨울 바다의 노을을 보면서 폭력의 미학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시인의 불안정한 자세로 겨울바다의 노을마저 고통스런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겁도 찢르도 미련도 찢르다.”, “바다에 떨어지는 해/ 바다에 떨어지는 말씀 / 우리 몸속 깊은 곳/ 그중 진한 피 모두어 /떨어지고 있었네.” (「겨울바다에 노을이」)에서 결국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진한 피로 상징하고 있다. 찢르면서 떨어지는 바다 속에 떨어지는 피는 광활하고 푸른 바다와 대비되면서 강한 인상을 주며 이별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한다. “떨어지는 해, 떨어지는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강의 이미지로 심리적으로 바다의 공간을 좁아지게 한다. 시적 화자에게 바다는 좁은 공간으로 여겨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고통을 사방으로 느낀다. ‘떨어지는 것은’ 시선이 아래로 쳐져 지평선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자는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된다.¹⁰⁴⁾ 그러므로 시인은 바다에서 공간의 깊이를 상실해 더욱 슬픈 내면을 가지게 된다.

102)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1126쪽.

103) 『김여정 문학 세계』, 고요아침, 2012, 27쪽

104)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앞의 책, 304~305쪽

3. 섬 - 성모 찾기를 통한 치유와 연대성의 공간

중기시 이후에는 섬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중기시에 “바람도 모슬포 앞바다를 지나서 섬이 되더라”(「바람 바위섬」), “무색의 평화도에 가야겠어.”(「무색의 평화도」), “바람이 무인도를 만드는”(「무인도 백년」), “울릉도엘 간다”(「울릉도 성모를 만나러」), “흰장미 한가지를 되살려내는 비유를 시화한 섬 울릉도”(「시를 찾아」) 등이 나타난다. 특히, 시인은 섬 주위를 흐르는 바람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영역을 더욱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바람의 상승은 김여정 시의 공간의 양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바람도/ 모슬포 앞 바다에 와서 / 바위가 되더라// 바람도 / 모슬포 앞바다를 지나서 /섬이 되더라/ 기막혀 돌아앉는/ 섬이 되더라”(「바람 바위섬」)에서 바람의 작용이 섬을 만들어 나간다. 바람의 상승적 작용이 섬을 “청동의 아침이 열리고 한 무리의 해연이 날아”오르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이러 점은 초기시의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바다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꿈결 속에서 섬이 떠올랐다. 섬이 떠오르면서 청동의 아침이 열리고 한무리의 해연이 날아오르면서 일제히 바다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섬은 비로소 태양이 되어 불타올랐다. (「꿈결 속에서」)에서 “떠오르고”, “날아오르다”, “불타오르다” 등의 상승적 서술어를 통해 바다에서 섬으로 공간의 영역이 옮겨가며 섬은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된다.

울릉도여
한 여인의 고통이
썩은 세상을
흰장미 한가지로 되살려내는
비유를
시화한
섬
울릉도여.
한 편의 완성된
시를 찾아 완성된 고통을 찾아
내 오늘 너에게로 간다.

「시를 찾아」¹⁰⁵⁾

울릉도엘 간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우고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불사의 여인
성모를 만나러
울릉도엘 간다

울릉도 앞바다가 넓으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
울릉도 앞바다가 깊으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

105)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761쪽.

날 센 바람에
 울릉도가 찍어지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
 비오는 밤
 울릉도가 외로우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

울릉도엘 간다
 바다의 상징
 성모를 만나
 섬이 되려
 울릉도엘 간다.

「울릉도 성모를 만나러」¹⁰⁶⁾

「시를 찾아」에서는 시적 화자가 울릉도를 성모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시편이다. 위의 시에서 한 여인의 고통이 찌른 세상을 흰 장미로 되살린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이때 한 여인의 고통은 성모 마리아의 고통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울릉도를 성모 마리아처럼 모진 바람과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존재하는 섬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단지 울릉도를 외롭고 슬픈 공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찌른 세상을/ 흰장미 한가지로 되살려내는” 생명력을 지니며 이런 생명력은 고통을 극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릉도는 내밀한 영역이 있다. 모든 것을 끌어 들이는 힘, 그 공간들은 중심성에 대한 의식이 포함한다.¹⁰⁷⁾ 섬은 집의 중심처럼 어떤 힘의 중심, 잘 지켜져 있는 보호구역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¹⁰⁸⁾

「울릉도 성모를 만나러」에서도 시적 화자가 울릉도에 대한 정서를 담은 시편이다. “울릉도엘 간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우고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불사의 여인 성모를 만나러”에서 시적 화자는 울릉도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울릉도 앞바다가 넓으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 울릉도 앞바다가 깊으면/ 저 여인의 가슴만 할까”처럼 울릉도가 성모 마리아처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는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나 자신도 “성모를 만나 섬이 되려”하다고 강조한다. 섬은 위안의 공간, 내밀함의 공간, 내밀함을 응축하고 지켜줄 공간으로,¹⁰⁹⁾ 섬은 집처럼 수직선의 존재로 상상된다. 집은 위로 솟은 것, 수직의 방향에서 여러 다른 모습으로 분화되며 그것은 수직성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에 호소하는 것의 하나이다.¹¹⁰⁾ 시적 화자에게 울릉도는 사랑의 상처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함축적 이미지를 지닌다. 시인은 성모 찾기를 통해 결국 자기 구원의 동력이 된다. 시인은 섬을 통해 이별 후 상처 받는 고통을 극복하며 견고한 자의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

106)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759~760쪽.

107) 바슐라르, 앞의 책, 126쪽.

108) 위의 책, 149쪽.

109) 위의 책, 169쪽.

110) 위의 책, 132쪽.

꿈 속에 유리섬 하나 솟아 올라요. 섬 꼭대기에서 보아도 섬밑 바다가 환히 들여다보이고 섬의 팔방사방에서 보아도 바다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섬 하나 솟아올라요. 그 유리섬에 유리나무 유리풀 유리꽃 유리나비 유리벌레들 티 하나 없이 투명하게 살고 거기에 유리구름 유리바람이 빛나며 빛나며 떠돌고 있어요, 개펄 속까지 개펄 속의 조갯지 속까지 조갯지 속의 진주 속까지 진주 속의 하늘의 눈물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섬 위에 유리갈매기들이 날개를 빛내며 날고 있어요. 그대와 내 가슴에 놓인 유리다리를 건너 그대와 내 가슴으로 들어와 투명한 심장이 된 진실의 유리구슬 사랑의 지구의 양심이 폭죽처럼 터져 자유의 별이 흩뿌려진 개펄 속 하늘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섬 하나 새해에도 띄워줘요 내 기도 속 유리섬 천 만 이 솟아올라요.

「유리섬 하나」¹¹¹⁾

「유리섬 하나」에서 시적 화자가 유리섬을 갈망하며 그 섬에서 모두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시편이다. 유리섬은 바다의 표랑을 잠재우며 평온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식처의 공간이다. 특히, ‘유리섬’에서 “유리나무 유리풀 유리꽃 유리나비 유리벌레들 티 하나 없이 투명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와 타자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화자는 유리섬에서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펄 속까지 개펄 속의 조갯지까지 조갯지 속의 진주 속까지 진주 속의 하늘의 눈물까지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섬”에서 모두의 경계가 소멸되는, 이런 점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점이다. 특히, “그대와 내 가슴에 놓인 유리다리를 건너”에서 유리다리는 나와 타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매개체이다. 유리다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타자, 나와 그대의 거리감을 제거하며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유리섬에서 “그대와 내 가슴으로 들어와 투명한 심장이 된 진실의 유리구슬”은 “폭죽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염원이 담겨 있다. 유리섬은 존재에의 확신이 응집되는 존재 차원의 공간이다.¹¹²⁾ 시인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염원은 공포와 절망으로 드리워진 불안한 정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의지의 표출을 의미한다.

4. 산 - 무한한 공간과 초월의 의지

후기시에서 산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산은 어느덧 새가 되어 나를 태우고 하늘 저쪽으로”(「산행2」) 여름 산은 여름 산이라, 내 여름산은 온통 밤나무숲이다 (「산행3」), 아침 산속은 빛나는 별밭, 눈부신 보석밭이다. (「산행5」), 굽이굽이 푸른 산아 지난 밤에 별빛에 눈썹 말갭게 씻고 가슴에 일만 아래 새를 품고 깊숙히 앉은 산아 (「푸른 산아」)등이 작품 속에 존재한다. 후기시에서 산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산에 나타난 무한한은 내밀한 가치를 가지며 존재의 확장을 열어 주는 공간이 된다.

다시 무릎을 세우고
산을 오르니
산은 어느덧

111)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823쪽.

112) 바솔라르, 앞의 책, 152쪽

새가 되어
나를 태우고 하는 저쪽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다.

「산행2」¹¹³⁾부분

「산행 2」에서 시적 화자가 산에 올라가니 산이 지닌 상승적 가치에 의해 산이 새처럼 동일한 상징으로 보인다. 새가 된 산은 화자를 태우고 저쪽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다. 산이 가지는 상승적 가치와 무한함은 화자를 무한한 세계를 지닌 곳으로 안내하며, 현재의 삶을 초월하게 된다. 산이 지닌 넓고 무한함은 존재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산이 지닌 무한성은 비록 시인 자신이 나약할 지라도 순수한 존재의 확장에 결부되어 안정적인 자아를 되찾을 수 있게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나는 산을 오르지 못하고
대신 산을 데불고
내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덩치 큰
산도
작은 아이가 되어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
달디 단 숨결을 내 뽀뽀합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나를 따라와
내 품에 안간
산에
그 쌓인 낙엽 위에
순한 숨결이 얼어
보드라운 눈가를 날리면
산은 따듯하게 녹아 들어
내 속에 스미고
나는 덩치 튼
산이 되어 흰 어깨를 움트리고
내 속에서 젖은 낙엽들을
따뜻한 흙으로 녹입니다
따뜻한 피로 녹입니다.

「겨울 산행」¹¹⁴⁾

「겨울 산행」에서 시적 화자에게 산은 “작은 아이가 되어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처럼 의인화가 되어 있다. 특히, 작은 아이를 산에 비유한 것은 산이 가지는 생명력과 순수성을 내포하

113) 김여정 시전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646쪽.

114) 위의 책, 653쪽.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가 내 품에 들어왔을 때 즉, 산이 내 품에 들어왔을 때 “숨결”을 느낀다고 했다. 산과 화자가 동화되었을 때 더욱 생명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화자 또한 변화된다. 생명력을 간직한 산을 통해 “산은 따뜻하게 녹아 들어/ 내 속에 스미고 나는 덩치 튼 산이 되어” “내 속에서 젖은 낙엽들을 따뜻한 흙으로 녹입니다/ 따뜻한 피로 녹입니다.” 산이 지닌 생명력으로 자신이 지닌 절망감을 극복하게 된다. 산이 지닌 무한함은 생명력을 만들며, 안정적인 존재의 확장을 만들어 낸다.

마치 가을하늘 같이
구름 한점 없이 파랗게 맑은 초겨울 어느 날
한점 사심없이 맑은 산이
사랑 가득 품은 가슴으로
찬 이마를 하늘에 대고 있었다.
그 산에
내 마음의 산도 겹겹이 이마를 대고 있었다.

시간이 맑은 물소리가 흐르다가
갈대밭에 와서 하얗게 표백되어
빛나는 갈꽃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강둑 솟대 위에 앉은 까치 한 마리도
찬 머리를 하늘에 대고 있었다.

사심없이 맑은 것들만의 세상이던
초겨울 어느날 문득
나를 바람없는 피안으로 이끈다.

「맑은 산」¹¹⁵⁾

「맑은 산」에서 시적 화자가 산을 통해 평온한 경지를 얻게 되는 시편이다. “구름 한점 없이 파랗게 맑은 초겨울 어느 날”에 “맑은 산이 사랑 가득 품은 가슴으로”는 시적 화자가 풍요로운 정서로 산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맑은 산의 모든 것들이 “갈대밭에 와서 하얗게 표백되어/빛나는 갈꽃으로 흔들리고 있”것으로 보아 산 주변이 모두 평온한 상태를 지닌다. “한점 사심없이 맑은 산”이 “나를 바람없는 피안으로 이끈다”에서 맑은 산이 시인의 갈등과 좌절,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 더욱 시인은 “무아의 산길” (「전생의 산길위에서」)에서 평안한 세계를 만나고 안정적인 내면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115) 위의 책, 360쪽.

양소영 선생님의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허윤(서울대)

양소영 선생님의 발표문 「김여정 시에 나타난 공간 양상 연구」를 잘 읽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등단하여 2000년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공백기 없이 꾸준히 활동한 시인 김여정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여성 시인들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가운데, 선생님의 연구는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김여정 시의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20세기 후반 한국현대 시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시도일 뿐 아니라, ‘현장’의 뒤꼍에서 부지런히 되짚어 읽고 오늘의 독자를 바로 어제의 시세계로 안내해주는 연구자의 역할에도 충실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연구자로서뿐 아니라 독자로서 선생님의 글을 흥미롭게 읽은 이유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먼저 ① 철저히 작품 중심의 연구 방법론을 보인 것임에도 오히려 작품 바깥의 시인에 대한 시인론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고, ②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을 매개하는 요소들에 주목할 때 세 가지 공간의 양상을 단절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논의의 참조점을 최소화한 까닭에 역으로 시인이나 작품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발표문이 지닌 있는 그대로의 개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작품과 작품 사이에, 혹은 작품 언저리에 놓일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사실들이 명시된다면 김여정 시에 관한 연구가 소략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글이 균형 잡힌 김여정론으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선생님의 글이 도리어 주목하게 했던 지점들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① 선생님의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한 정도로 구명되지 않았던 초기, 중기, 후기시의 세 가지 중심 공간 요소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문에서 시인의 전기적인 사실로는 1968년 『현대문학』지를 통해 등단하였고, 다수의 시집과 시선집, 그리고 수필집을 발표하였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공간을 통한 시세계의 변화를 일관되게 보여준 한 시인에 관한 기본적인 정황이 궁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떠오르는 질문을 그대로 적어본다면, 1970년대 이후 시단에서 김여정의 상대적인 위치는 어디였으며, 어쩌서 ‘바다’는 그 출발점이고 ‘산’은 귀착점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김여정에게 한 세대 위의 시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김남조의 ‘바다’라는 공간 요소와 공명하는 지점은 없는지, 바로 다음 세대인 고정희 시의 ‘산’과 연결되는 지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비교 자체에 목적을 두기 위함이라기보다, 동시대의 언어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한 시인들 속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면 시세계를 통한 김여정의 공간 탐구가 갖는 문학적 의미가 시세계를 해명하는 차원 너머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시인의 공간 인식이 자기 탐구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삶의 조건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간 인식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살펴주신다면 작품의 공간 요소에 근거한 동시대의 세대 간 여성 시인들에 대한 연대적인 접근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선생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보에 근거한다면 1933년생인 김여정은 35세라는 당시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 등단하였고, 바로 이듬해에 첫 시집을 상재한 경우가 되는데(시집을 바로 엮을 수 있을 만큼 시를 계속 써왔던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한다면 시인

스스로가 오랫동안 거쳐 왔을 ‘시인 수업’이 초기시에는 어떤 형태로 투영되어 있는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현대문학』지 추천 완료 당시의 심사자나 심사평, 다수의 시문학상 수상 경위, 시인의 자전적 에세이들 또한 선생님이 시도하신 공간 연구의 주변에서, 공간 인식이 지니는 시문학사상의 새로움이나 중요성, 시인 자신의 공간 인식을 조명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인론적인 관점을 확장해 본다면 특히 공간 인식과 관련한 시인의 삶을 참조하는 것 또한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리섬’이나 ‘평화섬’과 같은 상상의 섬뿐만이 아니라 ‘울릉도’라는 사실적인 공간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성모 찾기’에 배경이 되는 시인의 종교적 상상력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질문을 이어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바다 → 섬 → 산’으로의 공간 변화가 김여정의 시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선생님의 논의는 김여정 시의 초기, 중기, 후기시라는 기존의 시기 구분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논의가 초기, 중기, 후기의 시기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기보다, 공간 요소의 변화가 시기 구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을 새롭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도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공간 요소를 중심으로 시세계의 전개 과정을 새롭게 구획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시게 된다면, 현재에는 시전집을 통해 인용된 시편들의 창작 연대도 함께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바다’에서 ‘섬’으로의 공간 변화에 주목하며 읽었습니다. 그런 한편 3장과 4장에서는 ‘섬’에서 ‘산’으로의 연결고리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장에서 섬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모 찾기’ 모티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제시된 ‘산’ 시편들에서는 모성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겨울 산행」). 3장과 4장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섬’에서의 ‘산’으로의 공간 변화가 단절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인의 내면세계의 측면에서는 치유와 포용력의 정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연속성을 보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완성되지 않은 발표문이기에 차후 공간 탐구를 통한 시인의 내면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정 발화 비교
-기쁨 발화, 음성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

신승윤(상명대학교)

1. 서론

중간언어(interlanguage)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목표어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체계를 지닌 학습자의 언어를 말한다(Selinker, 1972: 214). 중간언어에 변이형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언어에는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중간언어 이론의 입장이다. 문법이나 통사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중간언어 연구는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발전되었다. 중간언어 화용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화행 수행의 측면에서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중간언어 화용론은 비모어 화자의 화행 이해 및 산출, 습득에 대한 연구로서 학습자의 언어 사용과 화용적 지식 습득에 관심을 둔다.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연구물은 학습자가 사용한 전략이나 언어적 형태를 조사하고 모어 화자와 비교하는 공시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 대상의 숙달도를 다양화하여 화용적 측면에서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중간언어 화행의 발달 양상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유사-통시적 연구를 통해 목표어를 학습할수록 목표어 화자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기대 또는 상식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습자가 목표어 화자의 발화에 근접해지기까지 어떠한 발달 과정을 거치며 이 발달 과정에 어떠한 사회적, 개인적 영향이 있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요청 상황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전략 수행 양상을 중심으로 중간언어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여러 화행 중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발달 양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까닭은 요청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행으로서 한국어 화자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학습자의 성공적인 화행 수행이 요구되는 화행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청 행위는 대표적인 체면위협행위로서 성공적으로 화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용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화행 수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화용적 지식 습득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요청 화행은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초급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능으로 초급 수준에서부터 발달 양상을 관찰하기 좋은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변인이 각기 다르게 설정된 요청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전략 사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을 중간언어 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특별히 요청 화행의 주 화행과 보조 화행 중 주 화행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사용하는 중간언어에 규칙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중간언어 화용론의 측면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다루는 연구들도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요청 전략이나 표현 등의 특징을 분석하는 공시적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통시적(longitudinal), 유사-통시적(pseudolongitudinal) 연구¹¹⁶⁾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 능력 발달을 화용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대한 통시적 연구로는 이정덕(2010), 김아름·김영주(2016)이 있다. 두 연구 모두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분석한 항목은 다르다. 이정덕(2010)이 소수의 학습자의 발화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연구라면 김아름·김영주(2016)의 연구는 학습자의 발화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고 해당 점수의 변화를 통해 발달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정덕(2010)은 초급 과정을 수료한 말레이시아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서 나타나는 공손 표현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구두 DCT를 사용하여 9개월 동안 세 차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서 전략 사용의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과 학습 기간이 증가해도 화석화된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법적 지식의 발달이 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목표어 화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아름·김영주(2016)에서는 한국에서 학습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20명에게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주고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 화행을 수집하였다. 10개월 동안 네 차례 자료를 수집한 후 한국어 교사가 해당 자료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기초로 화용 능력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화용 능력은 학습 초기에 발달 폭이 크며 화행에 따라 발달 속도가 다름이 확인되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대한 유사-통시적 연구로는 김지혜(2013), 이정화(2016), 이정화(2020)이 있다. 세 연구 모두 KSL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요청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요청 전략 사용 양상과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양상과 유사해진다는 점과 숙달도와 관계없이 한국어 모어 화자나 학습자 모어 화자와는 다른 독특한 전략 사용 양상이 있음을 밝혔다.

각 연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김지혜(2013)은 친한 친구에게 전화 메시지로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기는 구두 DCT 방법을 통해 초중급 학습자의 요청 화행 자료를 수집하였다. 김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중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 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유사한 전략 사용 양상을 보이지만 초급과 중급 학습자 모두 담화 구성과 전략 사용의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정화(2016)는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비롯하여 학습 환경에 따른 차이를 모두 비교한 연구이다. KSL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KFL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DCT를 통해 요청 화행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요청 화행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숙달도가 높을수록 모어 화자와 전략 사용 양상과 유사해지며 이러한 경향은 목표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정화(2020)은 DCT로 수집한 KSL 환경의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요청 화행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숙달도에서 사용하는

116) 유사-통시적 연구란 통시적 연구와 같이 언어 변화나 습득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숙달도가 다른 학습자들의 자료를 단일 시점에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다(Gass와 Selinker, 1999: 34).

요청 전략이 목표어와 가까운지 모어와 가까운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숙달도가 높을수록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전략 사용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고급 학습자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거나 친밀도가 없는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나 중국어 모어 화자와는 다른 요청 전략을 사용한 점이 관찰되었다.

이상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시적, 유사-통시적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유사-통시적 연구들에서는 숙달도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사용하는 화행 전략이 모어 화자의 것과 유사해진다는 분석이 강조되었다면 통시적 연구들에서는 학습자의 숙달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발달의 개인차, 모어 화자와의 대화 상황에서의 노출의 중요성, 학습 기간에 따른 발달 폭의 차이를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는 KSL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P, N, S 3명이 참여하였다. 처음 연구에 참여했을 당시 학습자들은 1급 또는 2급 과정을 마친 상황이었으며 학습자들의 국적, 모국어, 한국어 학습 기관은 다양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39] 연구 참여자 정보

이름	국적	모국어	성별	학습 기관	최초 자료 수집 시 한국어 숙달도 ¹¹⁷⁾
P	베트남	베트남어	여	대학 부설 기관	2급 수료
N	프랑스	프랑스어	여	대학 부설 기관	2급 수료
S	과테말라	스페인어	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1급 수료

먼저, 연구 참여자 P는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 학습자이다. 베트남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2020년 6월에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며 졸업 후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한국 사람과 대화할 기회는 수업시간 외에 없지만, 매일 3시간 이상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나 좋아하는 가수가 출연하는 방송을 즐겨 본다.

연구 참여자 N은 프랑스어 화자로서 2020년 6월에 한국에 와서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016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6개월간 체류한 경험이 있으나 당시에는 한국어 과정을 따로 수강하지는 않았다. 한국어 수업 외에는 매일 2~3시간 정도 한국어 숙제를 하며 종종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한국인 친구가 있지만 프랑스어나 영어로 대화한다.

연구 참여자 S는 과테말라 국적의 스페인어 화자이다.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고 남편 때문에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우선적으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117) 학습자가 교육기관에서 수강 중인 급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부분만 영어를 사용한다. 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한 시어머니와도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가족 외에도 친한 한국인 친구가 있으며 이들과도 한국어로 대화하는 등 다른 참여자에 비해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3.2. 연구 도구

요청 화행에서 학습자들의 중간언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역할수행(role-enactment)¹¹⁸⁾을 실시한다. 역할수행을 할 도구로 사회적 힘과 친밀도를 다르게 설정한 6가지 요청 상황¹¹⁹⁾을 준비하였다. 각 상황은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요청 상황을 바탕으로 ‘사회적 힘(Social Power)’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변인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¹²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청 상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40] 요청 상황 개요

힘 ¹²¹⁾	거리 ¹²²⁾	상황
S>H	+	친한 동생에게 이사 도움 요청
S=H	+	친한 룸메이트에게 노트북 대여 요청
S<H	+	친한 언니/형에게 이사할 집 찾기 도움 요청
S>H	-	친하지 않은 동생(후배)에게 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요청
S=H	-	친하지 않은 같은 수업 수강생에게 지난 수업 자료 요청
S<H	-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발표문 조언 요청

3.3. 자료 수집 방법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 5주의 간격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일대일로 만났으며 연구 참여자는 매회 동일한 요청 상황에 대해 연구자와 역할수행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화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118) 역할수행 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어진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가정하고 정체성을 바꿔 대화해야 하는 역할극과는 차이가 있다.

119) 이 연구에서 다루는 요청 상황은 Searle(1969:66)의 적정조건을 바탕으로 하되 화자(S)가 청자(H)에게 요청하는 어떤 행동(A)이 ‘화자에게만 이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한다.

120)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상황의 개연성과 부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수정하였다. 이후 예비실험을 통해 3차 수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할 상황을 확정하였다.

121) ‘S>H’는 ‘화자가 청자보다 사회적 위계가 높음’, ‘S=H’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위계가 같음’, ‘S<H’는 ‘화자가 청자보다 사회적 위계가 낮음’을 의미한다.

122) ‘+’는 ‘화자와 청자가 친밀함’, ‘-’는 ‘화자와 청자가 친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요청 화행은 주 화행과 보조 화행으로 나눌 수 있다. 주 화행은 요청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하며 보조 화행은 주 화행의 앞, 뒤로 위치하며 상대방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하도록 핵심 내용을 보충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¹²³⁾에서 제시한 주 화행 전략을 바탕으로 하되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귀납적으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요청 전략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표 41] 주 화행 전략 분석틀

유형			전략	예
직접 요청			1)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어 주세요
			2) 수행동사 사용하기	부탁합니다
간접 요청	관 례 적	화자 중심	3) 소망 표현하기	-고 싶어요, -면 좋겠어요
		청자 중심	4) 제안하기	-을까요?
			5) 실현 가능성 묻기	-을 수 있어요?, -도 괜찮아요?
			6) 허락 구하기	-어도 돼요?
			7) 의지 질문하기	-래요?, -겠어요?
		비관례적	8) 암시하기	

4.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 양상

4.1. P의 전략 사용 양상

6가지 요청 상황에서 P가 사용한 주 화행 전략을 회차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숙달도의 변화에 따른 전략 사용 경향을 살펴보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전략의 종류가 줄어든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차 시기에는 다양한 주 화행 전략이 사용되었다. 1차 시기에 나타난 전략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소망 표현하기’, ‘실현 가능성 묻기’, ‘허락 구하기’, ‘의지 질문하기’로 5가지이다. 그러나 2차 시기부터는 1차 시기에 사용했던 ‘명시적으로 표현하기’와 ‘허락 구하기’ 전략은 나타나지 않는다.

123) 이선명(2009), 이정덕(2010), 김지혜(2013), 김혜련·전은주(2013), 폴리 룡(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42] P의 주 화행 전략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1차	7 ¹²⁴⁾	5	1	6	5	3
2차	7	3, 7	3	7	3	7
3차	7	8	7	5, 7	5	5
4차	8	7	7	8	7	7
5차	7	7	5	7	7	7
6차	7	7	5	3, 5	7	7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하는 주 화행 전략이 1~2가지 종류로 좁혀지는데 그중에서도 ‘의지 질문하기’ 전략은 회차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2차 시기에는 ‘소망 표현하기’와 ‘의지 질문하기’ 전략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3차 시기에는 ‘실현 가능성 묻기’와 ‘의지 질문하기’ 전략이, 4차 시기에는 ‘의지 질문하기’와 ‘암시하기’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5차 시기부터는 ‘의지 질문하기’ 전략의 사용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

같은 ‘의지 질문하기’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상황1’~‘상황3’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올래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상황4’~‘상황6’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겠어요?’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1) 혹시 노트북을 나한테 좀 빌려줄래? (상황2, 5차)

혹시 수연 씨의 공책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상황6, 5차)

이는 ‘-올래요?’보다 ‘-겠어요?’가 더 공손한 표현이라는 인식이 P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강하게 나타나는데 상황4의 경우 2차 시기에 ‘-올래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5차 시기에서 ‘-겠어요?’로 바뀐 것이 관찰되었다.

(2)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좀 바꿀래요? (상황4, 2차)

저랑 아르바이트를 시간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상황4, 5차)

실험 후 인터뷰에서 P가 ‘상황4’를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느낀다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래요?’에서 ‘-겠어요?’로의 전환은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P가 ‘-겠어요?’를 ‘-래요?’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내적인 체계를 투영해 준다.

상황에 따른 전략 사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황2’, ‘상황5’, ‘상황6’에서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전략 사용의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다시 말해, 회차가 진행될수록 ‘의지 질문하기’ 전략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반면, ‘상황3’과 ‘상황4’의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다. ‘상황3’은 친밀하나 화자보다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요청 상황, ‘상황4’는 친밀하지 않으나 화자보다 사회적 위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요청 상황으로 사회적 변인 관계만으로는 부담의 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¹²⁵⁾ P는 사회적

124) 표 안의 숫자는 [표 3]의 주 화행 전략 분석틀에서 제시된 각 전략의 번호를 의미한다.

변인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직 탐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4.2. N의 전략 사용 양상

N의 회차별, 상황별 주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43] N의 주 화행 전략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1차	1	5	1	5	5	4
2차	7	6	1	5	5	5
3차	1	5	5	5	5	5
4차	5	5	5	5	5	5
5차	5	5	5	5	5	5
6차	7	7	5	5	5	5

먼저, N은 상황이나 숙달도와 관계없이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특히 4차와 5차 시기에는 어느 상황에서나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만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N이 사용하는 ‘실현 가능성 묻기’ 표현은 ‘-을 수 있어요?’에 집중되어 있다.

(3) 언니와 같이 집을 찾을 수 있어요? (상황3, 3차)

혹시 선배가 제 발표를 고쳐줄 수 있어요? (상황6, 4차)

회차별로 사용된 주 화행 전략 경향을 살펴보면 1, 2차 시기에는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 외에 다른 전략(‘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제안하기’, ‘허락 구하기’, ‘의지 질문하기’)의 사용이 나타났다가 3차 시기부터는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 사용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전략은 1~3차 시기에만 등장하며 ‘허락 구하기’ 전략은 2차 시기에만 사용되었다가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사라진다. 한편 ‘의지 질문하기’ 전략은 2차 시기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졌다가 6차 시기에 다시 사용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황별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상황4’, ‘상황5’에서는 숙달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만 사용하였으며 ‘상황3’과 ‘상황6’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황1’과 ‘상황2’는 특정 전략으로 좁혀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 사용이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특정한 전략 사용으로 좁혀진다거나 전략 사용의 전환에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허락 구하기’, ‘의

125) 일반적으로 친밀하거나 사회적 위계가 낮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상황은 부담의 정도가 작고 친밀하지 않거나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상황은 부담의 정도가 클 것이다.

지 질문하기' 전략은 '상황1'이나 '상황2'와 같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N이 해당 전략들을 심리적으로 가깝고 편한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4.3. S의 전략 사용 양상

S는 매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요청 행위를 수행하였다. 아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S는 특정한 전략에 대한 집중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44] S의 주 화행 전략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1차	1	3	3	8	6	6
2차	6	3	4	3	6	3
3차	4	6	7	8	6	1
4차	1	6	3	8	6	3
5차	4	6	4	8	6	3
6차	7	8	4	8	6	6

1차 자료 수집 시기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소망 표현하기', '실현 가능성 묻기', '허락 구하기', '암시하기'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2차 시기에는 '제안하기' 전략 사용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3차 시기에는 '의지 질문하기' 전략 사용이 처음 나타났다. 매회 4개~5개 종류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S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P나 N의 경우와는 달리, S는 숙달도가 높아져도 특정한 전략 위주로 요청 행위를 수행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된 전략을 살펴보면 상황에 따른 전략 사용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상황5'에서는 모두 회차에서 '허락 구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요청 행위를 수행하며 '상황4'의 경우 2차 시기를 제외하고 요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암시하기' 전략을 사용한다.

(4) 혹시 김수연 씨 노트를 빌리고- 빌려: 해도 돼요? (상황5, 1차)

혹시 어 김수현 씨: 노트- 노트북 빌려줘- 빌려줘도 돼요? (상황5, 6차)

제가 월요일: 어: 병원 예약 있어요. 그래서 일하고 못- 못해요. 어떻게 해요? (상황4, 6차)

'상황2'의 경우, 숙달도가 낮을 때는 '소망 표현하기' 전략을 위주로 사용하였다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허락 구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4) 노트북을 빌리고 싶어졌어요. (상황2, 2차)

노트북 빌리고 될까요? (상황2, 4차)

‘상황3’과 ‘상황6’의 경우, 특정 전략으로 수렴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2가지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3’은 ‘소망 표현하기’와 ‘제안하기’ 전략이 주로 나타나고 ‘상황6’에서는 ‘소망 표현하기’와 ‘허락 구하기’ 전략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황1’에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매회 바뀌어 사용되었다.

5. 논의

5.1. 교실 학습과 전략 사용 다양성의 관계

세 명의 학습자 중 N은 사용한 요청 전략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지 않았다. 특히 사회적 거리가 먼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N은 매회 ‘-을 수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N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N이 소속된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부탁하기’를 학습하는 단원이 있는데 해당 단원에서 주로 제시하는 요청하기 전략이 ‘-을 수 있어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이다. 친구와 같이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사회적 지위도 동등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예: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이나 ‘의지 질문하기’ 전략(예: “숙제 좀 도와줄래?”)을 사용한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가 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는 “서류를 다시 봐 주실 수 있으세요?”와 같이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을 사용한 예시만 제시되어 있다.

이는 N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실현 가능성 묻기’와 ‘의지 질문하기’ 전략 등을 사용하여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실현 가능성 묻기’를 주로 사용한 것과 연결된다. N이 매일 4시간씩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과 수업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실에서 배운 한정적인 종류의 요청 전략이 N의 요청 행위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5.2. 목표어 발화에의 노출과 전략 사용 다양성의 관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사용한 요청 전략의 종류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S > P > N$ 순으로 다양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목표어 발화, 즉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에 노출된 정도의 순서와도 일치한다.

연구 참여자 S는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인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많다. 또한 한국인 친구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사회적 거리나 사회적 힘이 다른 다양한 대화 상대자와의 대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P는 한국어 수업 시간 외에 한국인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다고 했지만 한국어 공부 외의 시간에 좋아하는 가수의 방송을 빠짐없이 챙겨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를 듣는 기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반면, 연구 참여자 N은 한국어 수업 시간이나 수업과 관련한 숙제를 하는 것 외에 한국어 발화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상황은 목표어 발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교실에서 배운 요청 표현과는 별개로 다양한 요청 전략을 사용하여 요청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숙달도는 S가 가장 낮지만, 세 참여자 중 숙달도가 가장 높은 P보다도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

다. 만약 자연스러운 목표어 발화에의 노출이 거의 없이 교실 상황에서의 입력만 이루어진다면 5.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실에서 배운 내용에 기초한 한정적인 화행 전략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청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 화행 전략은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다. P는 ‘의지 질문하기’ 전략 사용을 선호하지만 N은 ‘의지 질문하기’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N은 ‘실현 가능성 묻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S는 P와 N과 달리 ‘허락 구하기’와 ‘암시하기’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P나 N에게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제안하기’ 전략 사용을 S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요청 상황에서 사용하는 주 화행 전략의 다양성도 학습자마다 다르다. 이는 목표어 화자의 발화에 노출된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교실 상황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목표어 화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회가 많은 경우, 문법적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교실 외에 목표어에 노출된 상황이 많지 않으면 교실에서 배운 것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다.

한편, 이렇게 개인에 따라 특수성을 보이는 요청 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중간언어 변화 양상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각 상황에서 사용하는 주 화행 전략이 일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1~3차 시기에는 특정 전략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보다 회차마다 다른 전략들을 사용하는 반면, 숙달도가 중급 후반, 고급 초반에 해당하는 5~6차 시기에는 특정 전략에 정착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는 학습 기간이 짧을 때는 각 상황에 적합한 요청 전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지만 학습한 기간이 길어지고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에 대해 학습자 나름대로의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김아름·김영주(2016), 중국인 L2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65, 1-29.
- 김지혜(2013), 구어 담화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요청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전화 메시지 남기기 과제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2, 45-69.
- 김혜련·전은주(2013), 한국어 요청 화행 교수-학습에 관한 비판적 분석 - 초급 교재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7, 233-259.
- 이선명(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발달 연구: 요청 화행 실현 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덕(2010),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 표현 습득 연구: 말레이시아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4, 218-246.
- 이정화(2016), 학습 환경과 숙달도에 따른 요청 화행 실현 양상 연구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78, 1-30.
- 이정화(2020), 숙달도에 따른 KSL 학습자의 요청 화행 전략 실현 양상, 『淸山中國學報』, 1, 127-151.
- 폴리 롱(2017), 홍콩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과 거절 화행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Gass S. & L. Selinker(1999), 『제2언어 습득론』, 박의재, 이정원(공역), 서울: 한국문화사.
- Selinker, L.(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p.209-231.

토론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 요청 상황에서의 주 화행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

손진희(강원대학교)

위 논문은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로, 요청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가 쉽지 않다는 점과 통시적인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귀중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연구 논문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가 3명으로 국적, 모국어, 한국어 학습 기관을 모두 달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대학부설기관의 2급 수료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1급 수료의 수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한 8개월 동안 한국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8개월 후의 한국어 숙달도의 차이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요청 상황

3.2[표2]에서 상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상황1~상황6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때, 상황4~상황6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이고, ‘친하지 않은~’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아예 모르는 관계를 설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더욱 먼, 아예 모르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황4~상황6에 수렴할 수 있을까요? 따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역할 수행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상황을 제시하였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 회차별로 학습자는 동일한 6개의 상황을 부여 받은 것이지요?

4. 전략 사용 양상

[표3] ‘주 화행 전략 분석틀’에서 예를 나타냈는데, 이 예들은 학습자들이 실제 발화한 것을 모두 나타낸 것이지요? S의 주 화행 전략을 보면, 8)암시하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예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교육 방안

‘5. 논의’에서 교실에서 배운 한정적인 종류의 요청 전략이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았고, 한국어 발화 상황에 다양하게 노출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행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의 질문들이 작게나마 선생님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문에서 논문을 꼭해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토론자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정 발화 비교 -기쁨 발화, 음성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오세진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를 음성학적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와 모어 화자의 감정 발화에서 기쁨의 감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이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비교할 것이다. 분석의 대상 문장은 ‘이제 그만해.’라는 문장으로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 기쁨의 상황을 유추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음성학적인 요소가 영향을 드러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의 음성학적 특징을 몇 분석한 후,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비교군으로 선택하여 초분절적인 요소가 학습이 되었는가, 모어화자가 드러내는 특징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찾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실험 설계, 스크립트 제작 및 피험자 모집, 음성 녹음, 청취 평가, 음성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1 연구 방법

화자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연출된 상황에 대해 피험자와 충분히 공유하고 녹음을 진행하였다.¹²⁶⁾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단어 자체에 긍정적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문장과 이를 배제한 문장을 제시하여 단어가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오히려 실험 대상의 문장만을 봤을 때는 ‘기쁨’에 대한 상황과 상관없이 느껴지는 문장을 선정하였다.¹²⁷⁾ 문장 자체의 텍스트적인 의미만으로는 현 상황이 기쁨인 것을 알아챌 수 없기에 초분절적인 요소이 발현이 더욱 민감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상황과 문장은 아래와 같다. 또한 이 문장은 ‘-아/어.’형태로 종결되며 명령문에 해당한다. 연출된 상황은 PPT 슬라이드로 제시하였으며 슬라이드를 보며 발화하는 형식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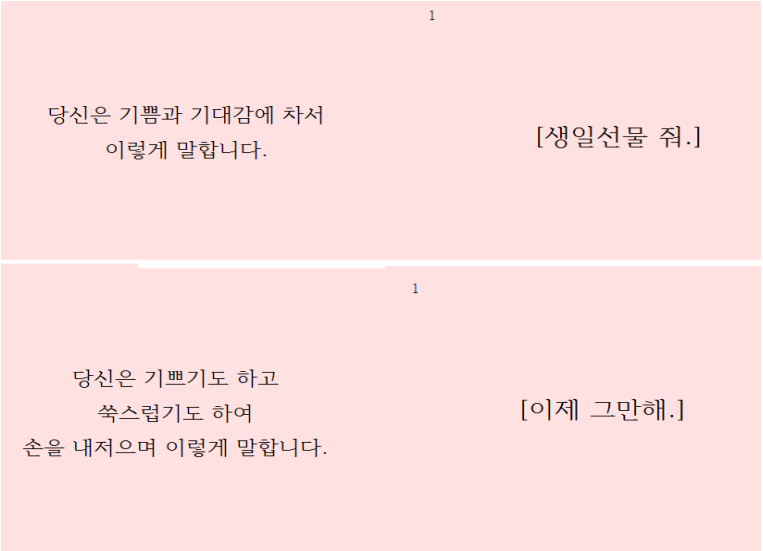
<표 1> 실험 문장 및 상황

문장 형식	문장	상황
명령문	생일 선물 줘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가장 친한 친구가 본인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사실을 알고 그 선물을 들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
	이제 그만해	오랜 짝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축하해주는 친구들에게 기쁨과 축스러움의 감정을 담아 하는 말.

126) 외국인 학습자의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역을 사용하였다.

127) ‘이제’, ‘그만’, ‘하다’를 이용하여 ‘이제 그만해.’라는 명령문의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PPT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문장에 대해 총 3회 발화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실험에 활용된 PPT 자료의 일부이다.



[그림 1] PPT를 활용한 음성 스크립트 예시

위의 자료는 실험에 사용된 PPT자료의 일부이며 상황에 대한 묘사가 페이지별로 세분되어 감정에 몰입, 고조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2 피험자 정보

2.2.1 모어 화자 정보

피험자의 정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대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한 화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표 2> 모어 화자 정보

피험자	나이	출생 및 성장 지역			피험자	나이	출생 및 성장 지역		
		부	모	본인			부	모	본인
M1	30	서울	서울	서울	F1	21	경기	경기	경기
M2	26	경기	인천	인천	F2	24	서울	경기	서울
M3	27	서울	서울	서울	F3	22	서울	서울	서울
M4	20	서울	서울	서울	F4	23	경기	경기	경기
M5	22	경기	경기	경기	F5	22	서울	경기	서울
M6	25	서울	서울	서울	F6	22	서울	서울	인천
M7	21	경기	경기	경기	F7	24	서울	인천	인천
M8	23	서울	서울	서울	F8	20	서울	서울	서울
M9	29	서울	서울	서울	F9	21	서울	서울	인천
M10	23	경기	경기	경기	F10	28	서울	서울	서울

2.2.2 외국인 학습자 정보

외국인 학습자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도록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다른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모두 중국인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 정보를 아래의 표에 기록하였다.

<표 3> 외국인 학습자 정보

피험자	TOPIK	한국거주기간(2020년 7월 기준)	피험자	TOPIK	한국거주기간(2020년 7월 기준)
M1	6급	8년	F1	6급	3년
M2	6급	3년	F2	6급	1년 8개월
M3	5급	4년	F3	6급	1년
M4	5급	4년	F4	6급	1년 6개월
M5	6급	4년	F5	5급	4년
M6	6급	6년 6개월	F6	6급	2년
M7	6급	6년 11개월	F7	6급	1년
M8	6급	2년 3개월	F8	5급	5년 2개월
M9	5급	2년	F9	5급	1년 5개월
M10	6급	없음	F10	6급	11개월

2.3 분석 도구

한국인 피험자는 한양대학교 음성언어인지과학연구소 내 녹음실에서 TASCAM HE-P2 녹음기와 SHURE KSN44 마이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피험자의 실험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진행되어 녹음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녹음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 각자의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녹음된 발화는 연구자를 포함한 음성학 전공자들에 의해 분석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하였으며¹²⁸⁾ 이후 Praat version 6.0.3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음성적 특징

분석의 영역은 억양과 발화시간의 일부이다. 특히 끝음절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끝음절의 음높이 유형과 끝음절의 길이가 문장의 의미나 기능, 화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특징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끝음절의 음높이 유형을 포함한 억양의 특징과 전체 발화시간, 끝음절의 발화시간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의사소통 시 음성의 크기, 높낮이, 속도를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호영(1991), 전선아(2000)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억양과 태도 문미억양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기에 끝음절을 실험의 대상으로 하였다.

3.1 억양

같은 문장을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억양이다. 억양을 통해 발화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실험의 대상이 된 ‘이제 그만 해.’라는 문장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담은 명령문 형태의 설득 발화로 분류할 수 있다. 전선아(2000)에 따르면 감정과 태도에 따른 문미억양의 패턴을 연구하였는데 확신, 주장, 꺼림, 설득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출할 때의 문미억양은 LHLH%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끝음절 음높이 유형이

128) 코로나 상황으로 동일 환경에서 녹음되지 못한 발화들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음성학 전공자 3인에 의해 분석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였다.

모어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 어떻게 나타날지 분석하였다. 또한 음높이 유형 외에도 시작, 마지막, 최고, 최저 피치도 비교할 것이다.

3.1.1 모어 화자

1) 끝음절 음높이 유형

끝음절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HLHL%, LHL%, HL% HLH%의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HLHL%는 전선아(2000)에서 확신, 주장, 꺼림, 설득의 감정과 태도로 분석되었으며 LHL%의 유형도 설득, 주장, 확신, 귀찮음, 자극의 감정과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만 상황을 종료해 달라’는 실험 상황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고조에서 저조로 실현된 HL%의 유형은 한국어 평서문의 일반적 유형이라고 있다. 모어 화자의 끝음절 음높이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4> 모어 화자의 끝음절 음높이 유형 분포

끝음절 음높이 유형	남자	여자	합계
HLHL%	5	5	10
LHL%	1	4	5
HL%	3	0	3
HLH%	1	1	2

HLHL%이 10명, LHL% 5명을 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HL%이 3명, HLH%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남자에 비해 여자의 발화에서 감정과 태도에 어울리는 억양의 유형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억양(Hz)

각 피험자의 억양을 시작 억양, 마지막 억양, 최고 억양, 최저 억양, 최고억양과 최저억양의 차이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끝음절 음높이 유형 외에 모어화자에게서 억양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5> 모어 화자의 억양

					(단위 Hz)
피험자	시작 억양	마지막 억양	최고 억양	최저 억양	최고-최저
F1	225.58	173.77	239.52	172.99	66.53
F2	276.62	199.34	327.07	198.48	128.59
F3	216.13	158.83	231.82	158.83	72.99
F4	246.85	228.14	267.42	94.6	172.82
F5	196.53	138.98	266.54	138.98	127.56
F6	228.23	171.07	261.51	171.07	90.44
F7	206.97	229.09	268.36	184.66	83.7
F8	231.37	184.28	269.15	180.81	88.34
F9	310.28	238.34	379.12	225.61	153.51
F10	270.64	84.51	270.64	84.43	186.21
M1	103.08	77.55	151.38	77.55	73.83
M2	100.63	87.03	143.86	87.03	56.83
M3	107.66	94.2	146.78	94.2	52.58
M4	142.9	139.5	162.05	126.31	35.74
M5	190.86	131.45	190.86	117.48	73.38
M6	127.11	97.78	164.53	97.6	66.93
M7	178.81	141.84	225.73	130.86	94.87
M8	132.91	107.79	132.91	105.12	27.79
M9	125.9	85.16	169.84	85.16	84.68
M10	134.65	92.57	139.58	89.84	49.74
평균	187.6855	143.061	220.4335	131.0805	89.353

평균값을 정리하면 시작 억양은 187.6955Hz, 마지막 억양은 143.061HZ, 최고 억양 220.4335Hz, 최저 억양 131.0805Hz, 최고억양과 최저억양의 차이는 89.353Hz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억양의 평균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1) 끝음절 음높이 유형

모어 화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습자의 끝음절 음높이 유형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모어 화자에게 나타난 네 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분포는 달랐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6> 외국인 학습자의 끝음절 음높이 유형 분포

끝음절 음높이 유형	남자	여자	합계
HLHL%	2	3	5
LHL%	1	1	2
HL%	3	3	6
HLH%	4	3	7

모어 화자에게서는 HLH%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으나 외국인 학습자에게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 HLH%는 전선아(2000)에 따르면 자신에 차 있어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는 억양이다. 또한 HL%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평서문의 억양을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예측한다. L%의 저조가 아닌 H% 고조로 나타난 억양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발화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¹²⁹⁾

2) 억양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을 시작 억양, 마지막 억양, 최고 억양, 최저 억양, 최고억양과 최저억양의 차이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모어화자에게서 나타난 평균값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7>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단위 Hz)
피험자	시작 억양	마지막 억양	최고 억양	최저 억양	최고-최저
F1	218.19	218.62	262.23	84.25	177.98
F2	291.1	232.53	319.85	184.39	135.46
F3	222.23	105.71	262.16	94	168.16
F4	303.79	251.24	367.39	239.52	127.87
F5	267.78	261.03	267.78	213.9	53.88
F6	332.45	285.44	367.54	258.42	109.12
F7	245.39	161.25	280.46	161.25	119.21
F8	290.51	76.73	372.33	76.73	295.6
F9	224.39	149.96	239.14	149.96	89.18
F10	285.96	234.85	302.26	212.84	89.42
M1	157.1	127.29	195.46	120.17	75.29
M2	126.07	107.27	145.18	99.82	45.36
M3	155.94	125.44	223.29	110.87	112.42
M4	123.97	111.21	175.15	111.21	63.94
M5	123.15	88.64	147.2	88.64	58.56
M6	108.42	102.74	149.82	96.14	53.68
M7	166.5	115.24	234.22	105.7	128.52
M8	113.78	100.99	144.72	86.17	58.55
M9	127.55	120.68	148.11	116.76	31.35
M10	180.33	146.09	201.22	122.75	78.47
평균	203.23	156.1475	240.2755	136.6745	103.601

평균값을 정리하면 시작 억양은 203.23Hz, 마지막 억양은 156.1475Hz, 최고 억양 240.2755Hz, 최저 억양 136.6745Hz, 최고억양과 최저억양의 차이는 103.601Hz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자의 억양 평균값보다 살짝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2 발화 속도

같은 문장이라도 발화 상황과 전달 의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발화시간과 전체 발화시간 대비 끝음절의 길이를 비교해볼 것이다. ‘이제 그만 해.’는 다섯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모든 음절이 같은 속도로 발화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문미에 많은 정보를 담는 특징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의 길이를 측정하여 전체 발화시간 대비 끝음절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3.1.1 모어 화자

129) 실제 음성 분석을 하며 H%로 마무리된 발화들은 기쁨에 가까운 감정보다는 화가 난 발화로 들렸다. 따라서 소통의 오류가 생기거나 청자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모어 화자의 발화시간을 피험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 모어 화자의 발화시간

피험자	전체발화시간	끝음절	(단위 ms)
			끝음절/전체발화시간
F1	1.13	0.567	0.50177
F2	0.956	0.475	0.496862
F3	1.068	0.525	0.491573
F4	0.991	0.447	0.45106
F5	1.11	0.456	0.410811
F6	1.142	0.52	0.455342
F7	1.03	0.524	0.508738
F8	1.138	0.344	0.302285
F9	1.043	0.445	0.426654
F10	0.984	0.351	0.356707
M1	0.929	0.426	0.458558
M2	0.911	0.359	0.394072
M3	0.923	0.384	0.416035
M4	0.797	0.305	0.382685
M5	0.924	0.386	0.417749
M6	0.945	0.325	0.343915
M7	1.154	0.598	0.518198
M8	0.902	0.39	0.432373
M9	0.834	0.377	0.452038
M10	0.903	0.439	0.486157
평균	0.9907	0.43215	0.435179

모어화자의 전체 발화시간의 평균은 0.9907ms이며 끝음절의 발화시간은 0.43215ms로 다섯 음절의 문장에서 마지막 음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약 43.5% 정도가 한 문장의 발화에서 끝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3.1.2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시간을 피험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9>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시간

피험자	전체발화시간	끝음절	(단위 ms)
			끝음절/전체발화시간
F1	1.544	0.462	0.299223
F2	1.252	0.423	0.337859
F3	1.558	0.785	0.503851
F4	1.165	0.496	0.425751
F5	1.163	0.232	0.199484
F6	1.307	0.372	0.284621
F7	1.359	0.489	0.359823
F8	1.141	0.439	0.38475
F9	1.312	0.252	0.192073
F10	1.116	0.408	0.365591
M1	0.864	0.346	0.400463
M2	1.159	0.398	0.343399
M3	1.018	0.395	0.388016
M4	0.89	0.343	0.385393
M5	0.705	0.205	0.29078
M6	1.237	0.626	0.506063
M7	1.02	0.425	0.416667
M8	1.228	0.486	0.395765
M9	1.065	0.371	0.348357
M10	1.324	0.539	0.4071
평균	1.17135	0.4246	0.361752

한국어 학습자의 전체 발화시간의 평균은 1.17135ms이며 끝음절의 발화시간은 0.4246ms로 모어 화자의 전체 발화시간보다 전체 발화시간이 좀 더 길었다. 그러나 마지막 음절이 발화되는 시간은 한국인보다 짧았다. 다섯 음절의 문장에서 마지막 음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6.2% 정도로 나타나 한국인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감정 발화의 특징을 음성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기쁨의 감정을 대상으로 끝음절의 음높이 유형과 억양, 발화 길이의 분석을 통해 감정이 음성학적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끝음절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어 화자의 끝음절 음높이 유형을 분석한 결과 HLHL%이 10명, LHL% 5명을 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HL%이 3명, HLH%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모어 화자에게서는 HLH%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으나 외국인 학습자에게서는 HLH%이 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 또한 HL%이 6명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평서문의 억양을 학습한 결과가 아닐까 예측한다. L%의 저조가 아닌 H% 고조로 나타난 억양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발화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 전달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발화속도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문장의 발화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었으며 그룹에도 끝음절의 발화 길이는 한국인이 더 길어서 모어 화자가 끝음절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한국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였으나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본질적인 요소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본다. 이러한 부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한국어의 음성적 특성이 있음을 정리하여 차후 한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실험은 자연 발화에서 추출한 음성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총 40 명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한국어의 감정 발화의 특성을 정리한 이 자료를 후속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단계별로, 상황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감정 발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특수성을 찾고, 외국인 발화와 비교 연구하여 음성학적인 언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내는데 작은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손남호·이호영·황효성. 「감정발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음향 분석」, 『언어학』 7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04, 175~199면.
- 이무경. 「발화조건에 따른 기본주파수 및 음성강도 변동의 특징」, 『말소리와 음성과학』 4, 2012, 111~118면
- 이서배. 「억양의 근접복사 유형화를 이용한 감정음성의 음향분석」, 『말소리와 음성과학』 6-3, 한국음성학회, 2014, 131~138면.
- 이호영. 『국어 음성학』, 태학사, 1996
- 장지혜·주다영. 「인공지능 스피커의 정서별 감정발화에 따른 사용성 평가」,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9, 705~712면.
- 정종수·김진만. 「한국어 기쁨화행과 슬픔화행의 음성적 특징 연구」, 『한국언어문화』 6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323~346면.
- 조성문·김미희. 「남녀 분노 발화의 음성적 특징」, 『한국언어문화』 6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347~379면.
- 조성문·오세진. 「공포 발화의 음성적 특징 연구」, 『한국언어문화』 72, 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169~191면.
- 조성문·오세진. 「기쁨과 슬픔 화행에서 보이는 ‘글썸’의 음성학적 양상」, 『한국언어문화』 74,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185~212면.
- 홍은지·조광수·최준호. 「스마트홈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의인화 효과」, 『한국 학회』, 2017, 15~23면.
- Ray D. Kent·Charles Read. Acoustic Analysis of Speech, 2/E, 강석한(역), 『음성 음향 분석론』, 박학사, 2007
- Jun, S.,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 3.1,
<http://www.linguistics.ucla.edu/people/jun/ktobi/K-tobi.html>, 2000.
- Jun, Sun-Ah,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1993.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정 발화 비교’에 대한 토론문

김지혜(성균관대)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사이에서 동일한 문장에 대한 음성학적 관찰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감정 발화에 대하여 계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발음 교육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으므로 흥미 있는 연구라고 보입니다. 아래에서 논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줄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험 결과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사이에는 크게 억양과 발화 속도 두 가지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억양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가장 적게 나타나던 HLH% 패턴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서는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 학습자가 일반적인 한국어의 평서문 억양을 학습한 결과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에 크게 동의됩니다. 다만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모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추가된다면 더 논리성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발화 속도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마지막 음절 비율이 약 43.5%로 높은 반면 한국어 학습자는 약 36.2%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그 이유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문미에 정보를 담는 특성이 음성학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에게 감정 발화에서 끝 음절을 늘려 말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학적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 교육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감정 발화의 음성적 특징을 알아내고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간의 음성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되나, 다만 이 논문의 결과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어 화자 20명, 한국어 학습자 20명으로 피험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수가 적어 대표성을 띠다고 말하기 조심스러우며 연령, 세대, 성별의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납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그대로 살리되 피험자를 늘려 추후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줄건을 드리며, 논문을 발전해 나가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